

初代 그리스도의教會神學要綱 成守慶著

漢 -  
 그리스도교  
 영성의 감동  
 이 기쁘게 주신  
 이 영광

### 저 자 의 말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심어진지 50여년 갖은 고난의 길을  
 거쳐 이 땅에 초대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의 환원을 위하여  
 써 뿌린 역사를 나는 묵묵히 보아 왔다. 나의 부친 되시는 고 성  
 낙소 목사님의 유언어린 눈물이 이제 이 땅위에 진정한 그리스도  
 의 발자취를 따라 가고자 하는 수 많은 신도의 마음발에 뿌려짐  
 을 감사한다.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에 100  
 여개의 교회를 결실 맺게 한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의 말씀속  
 에서 이루어진 그 심성의 광대함이라고 생각하며 고 성 낙소 목  
 사님을 흠모하는 마음 더욱 이 불초자의 가슴에 사모친다. 이제  
 이 소책자를 내놓게 됨을 하나님앞에 감사드리며 저를 위하여 항  
 상 기도 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 그리고 동역자들과 멀리 해외에  
 서 성원해 주신 여러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신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더욱 더 감사를 드리는 바는 출판을 담당 해  
 주신 채 회완 선생님과 편집을 위하여 수고하신 장 성우 선생과  
 조 석만 전도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저서의 출판으로 인하여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하여 지기를 기도한다.

저자 성 수 경

## 소개의 말

본 저서를 편집함을 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른 진리의 등대가 되어 많은 그리스도인과 ~~과학도에게~~ 광명의 지침질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산학 사적이 있으나 확고한 신념의 책이 없고 많은 간행물이 있으나 우리의 심곡을 울릴 말씀의 인도가 없는데 본 그리스도인의 신학론은 참으로 성경을 바로 가르친 유일한 책입니다. 본 저서를 내기 위하여 수고하신 성 수경 목사님은 이 책의 저서를 위하여 10여년의 긴 세월을 고심초사했을 뿐 아니라 진리를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많은 학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 가장 정확한 판단으로 성경을 지키는 일꾼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성 수경 목사님은 지금도 대한 기독교 신학교에서 신약 성서를 가르치고 계시며 10여개의 교회를 설립하여 성경 말씀으로 환원하여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을 찾자고 일하시는 정력적인 말씀의 종입니다.

그외에 성 수경 목사님은 의학도 전공하시어 병원을 곳곳에 설립하여 많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 책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진리의 씨앗이 나고 싹이 나며 열매 맺어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끝 없이 번져가기를 기원합니다.

현대의 고민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열과 분파로 인한 진리의 상실입니다. 진리는 하나이며 생명의 길은 좁고 좁은 길인 고로 모두가 이 길을 이탈하여 인간 본위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서의 말씀은 잃어 버리고 헌장과 헌법과 규약으로 병

들어 버린 많은 교파 교회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초대 교회 정  
신을 살리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진리를 사수하는 힘찬 은총의 역사가 성 수  
경 목사님께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진리의 명약이 될 수 있는  
저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로 뜻 있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 하며 머릿말에 대신  
합니다.

1970년 12월 일

편집자 장성우

## 차 례

저자의 말	3
소개의 말	5
서 언	15
제 1 편 신학 개요	21
제 1 장 신학의 정의	21
제 1 절 신학의 용어	22
제 2 절 보통 신학	23
제 3 절 자연 신학	23
제 2 장 신론(하나님론)	24
제 1 절 하나님의 출현	25
제 2 절 형이상학적 논증	25
제 3 절 하나님의 속성	25
제 4 절 하나님을 믿는 이유	28
제 3 장 그리스도론	29
제 1 절 예수 그리스도	29
제 2 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명칭	30
제 3 절 예수의 신격적인 것	31
제 4 절 예수의 성지	32
제 5 절 예수의 사랑	32
제 6 절 예수의 기도	33
제 7 절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 겸손하심	33
제 8 절 예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립하심	34
제 9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재림하심	34
제 10 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이유	35

제 4 장 성령론	40
제 1 절 성령의 의의	40
제 2 절 성령은 인격적	41
제 3 절 성령의 명칭	41
제 4 절 성령은 진리이심	42
제 5 장 성령이 교회내에서 역사하심	45
제 1 절 성령을 누구에게 약속 하였는가?	45
제 2 절 사도들에게 성령주님과 성령세례주님	45
제 3 절 믿는자에게 성령주신 것	46
제 4 절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름	47
제 5 절 선지자와 사도에게 대한 성령의 역사	48
제 6 절 성령의 능력과 역사	49
제 6 장 삼위일체론	51
제 1 절 모나키아니즘설	52
제 2 절 파트리시안설	53
제 3 절 케린도의 설	53
제 4 절 아리우스의 설	54
제 7 장 천사론	55
제 1 절 성서중의 양론과 실재	55
제 2 절 천사는 자존인가 피존인가?	56
제 3 절 천사의 수효와 조직과 계급과 직분	56
제 4 절 천사의 처소와 형태	57
제 5 절 천사의 하는 일	57
제 6 절 천사와 인간의 차이	58
제 7 절 성서외의 특수적인 사실	60

제 8 장 마귀론	63
제 1 절 마귀의 의의	64
제 2 절 마귀의 유래	64
제 3 절 마귀의 하는 일	65
제 4 절 마귀의 사처	67
제 2 편 인류론	75
제 1 장 인류의 발생과 과정	75
제 1 절 인류 창조	76
제 2 절 인류 타락	80
제 3 절 인류 타락의 결과	81
제 2 장 죄악론	81
제 1 절 죄악의 기원	81
제 2 절 죄악의 성질과 속죄	82
제 3 장 생명에 대한 약속	85
제 4 장 양심론	88
제 1 절 양심의 의의	88
제 2 절 양심의 근원	89
제 3 절 양심의 위치	90
제 4 절 양심에 대한 행위	91
제 5 절 양심의 권위	93
제 6 절 양심적 신앙생활	94
제 5 장 영론	96
제 1 절 영의 의의	96
제 2 절 영의 실재성	97

제 3 절 영의 기원.....	99
제 4 절 영의 영생.....	102
<b>제 3 편 신약의 교회론.....</b>	<b>107</b>
<b>제 1 장 그리스도의 교회 기원과 조직.....</b>	<b>107</b>
제 1 절 교회의 의의와 기원.....	107
제 2 절 교회 조직.....	108
제 3 절 교회설립의 사자들.....	111
<b>제 2 장 그리스도인의 예배.....</b>	<b>115</b>
제 1 절 예배의 의의와 유래.....	115
제 2 절 예배에 대한 내용과 순서.....	117
제 3 절 주의 만찬의 시작과 발전.....	119
제 4 절 주의 만찬의 목적과 방법.....	119
<b>제 3 장 구원론.....</b>	<b>121</b>
제 1 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123
제 2 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123
제 3 절 예수의 생명이 구원하신다.....	124
제 4 절 예수의 피와 구원.....	124
제 5 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125
제 6 절 복음과 구원.....	125
제 7 절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125
제 8 절 소망과 구원.....	126
제 9 절 신앙과 구원.....	126
제 10 절 회개와 구원.....	127
제 11 절 구증 고백과 구원.....	128
제 12 절 세례와 구원.....	129

제 13 절 인내와 구원.....	130
제 14 절 주재림 희망 자에게 최후에 주님이 오시어 구원하신다.....	130
<b>제 4 장 인간이 할 구원의 중요성.....</b>	<b>132</b>
제 1 절 신앙과 회개와 구증고백과 세례.....	132
제 2 절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속의 노선.....	142
<b>제 5 장 신약 교회에 대한 구약예언.....</b>	<b>146</b>
제 1 절 교회는 예언성취이다.....	146
제 2 절 교회의 모형.....	146
제 3 절 신약에 계시된 교회.....	147
제 4 절 교회에서 행사할 성례.....	149
<b>제 6 장 예정론.....</b>	<b>153</b>
제 1 절 예정에 대한 각자의 설.....	153
제 2 절 성서의 예정론.....	157
제 3 절 예지와 예정.....	157
<b>제 7 장 성서론.....</b>	<b>159</b>
제 1 절 성서의 의의.....	159
제 2 절 성서의 영구성.....	162
제 3 절 성서의 기원.....	164
제 4 절 구약과 신약의 지위론.....	166
제 5 절 구약 오경에 고등비판.....	167
제 6 절 보충설.....	168
제 7 절 오정기자 모세에 대한 반대설.....	169
제 8 절 성서가 본 오정기자론.....	170

제 9 절	성서의 원본과 사본	172
제 10 절	성서 원어론에 대하여	176
제 11 절	성서 번역에 대하여	179
제 12 절	성서는 인류 구원서	181
<b>제 8 장</b>	<b>신앙생활의 규범</b>	183
제 1 절	성경 공부와 기도생활	183
<b>제 9 장</b>	<b>이적론</b>	185
제 1 절	이적의 범위	185
제 2 절	이적은 그쳤다	186
제 3 절	이적의 특수성	188
<b>제 10 장</b>	<b>천국론</b>	190
제 1 절	개론	190
제 2 절	내세왕국 주 예수 재림시로부터 시작	193
<b>제 11 장</b>	<b>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론</b>	198
제 1 절	구원한 성도들을 구원을 완성시키려 하심	199
제 2 절	성도의 순교를 보복하기 위한 공의의 심판	200
제 3 절	재림에 대한 여러가지 징조	201
제 4 절	주의 재림의 목적	201
제 5 절	주의 나타나시는 장소	205
제 6 절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심	207
제 7 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타나심	207
<b>제 12 장</b>	<b>대환란 시대</b>	208
제 1 절	공중에서 되어지는 일	208
제 2 절	지상에서 되어지는 광경	209
제 3 절	대환란의 기간	209

<b>제 13 장</b>	<b>적 그리스도에 대하여</b>	210
제 1 절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211
제 2 절	정치적 주의 사상	211
제 3 절	적 그리스도의 최후	212
<b>제 14 장</b>	<b>천년왕국의 시작</b>	212
제 1 절	순교자의 부활과 첫째 부활에 대하여	213
제 2 절	성도들에게 보상함	214
제 3 절	제 2차 부활과 심판	215
<b>제 15 장</b>	<b>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b>	215
제 1 절	영생 복락	216
제 2 절	천국의 시작	216
제 3 절	천국의 발전과 완성	217
제 4 절	천국의 조직	217
<b>제 16 장</b>	<b>지옥론</b>	218
제 1 절	옥의 실재	218
제 2 절	옥의 종류와 사용	219
제 3 절	음부	219
제 4 절	무저갱	220
제 5 절	지옥 (불구덩이)	220

## 서 언

우리 기독교신자들은 성경의 지식이 능함으로써 신앙이 성경대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신자들은 열심으로 개인으로나 또는 공동적으로 성서를 읽고 주야로 묵상하여 여러가지로 부딪치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많은 교파 많은 신조 많은 교권 또는 유사기독교가 다발 성행하는 이 때에 어느 것이 이단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감별해 나가며 하나님의 성지에 합당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여 진진탈쟁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2)이 말씀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현실이 불법인 줄 자인하면서도 내가 쌓은 권리 교권교세 때문에 정법을 외면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기독교란 이권보다도 교권보다도 교세보다도 제일 귀중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즉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자체의 생명일 것이다. 이 생명을 완전히 보장하는 방법은 성서에서만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아담은 그 귀중한 생명을 마귀의 유혹으로 사기를 당하여 인간의 종말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 갈 것이니라” (창 3:19)의 판결을 받았다. 이 억울한 사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이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이천년전에 도성인신하시어 우리 인간의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정사하시고 솔선수범 생명의 부활체로 시범하시었다.

인간을 구원키 위한 그 설계와 방법이 성서에 명확히 교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두뇌는 아직도 우둔하여서 일부분으로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서에 보면 누구나 잘 알고 쉬운 성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요 3 : 16)하였다. 그러므로 이때까지의 신자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만 알고 그저 “믿사오너” 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적으로나 신앙상으로 보아서 하나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인 까닭이다. 필자는 이 한 문제를 풀이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성서적으로 볼 때에는 어느 한 귀절 만 가지고 귀절을 짓지 말 것이다. 즉 “만” 자주의를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구원” 문제에 대하여

- ① 전도~전도는 듣게 하기 위함(롬 10 : 14)
- ② 들음~들음은 믿게 하기 위함(롬 10 : 17)
- ③ 믿음~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함(요 3 : 16)
- ④ 회개~회개는 멸망치 않기 위함(눅 13 : 3)
- ⑤ 간증(증거)~간증은 구원을 얻기 위함(롬 10 : 9~10)
- ⑥ 세례(침례)~세례는 사죄함과 성령을받기 위함(행 2 : 38)

이상의 여섯가지의 말씀에 연결 됨으로써 우리 인간의 구원이 성취 되는 것이다. 만일 이 여섯가지 중 어느 한가지 “만” 주장하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일부분적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설계로서는 부족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매주일 거행하는 예배순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성서적인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 ① 사도의 가르침(설교)-(행 2 : 42)
- ② 서로 교제하며(헌금)-(행 2 : 42)

③ 떡을 떼며(성만찬)-(행 2 : 42)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에서는 유대교와는 달리 안식일(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일요일)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임(행 20 : 7)

④ 기도-(행 2 : 42)

⑤ 찬미-(행 2 : 47)

이상과 같이 엄격히 교시하고 있다. 이것이 성서적으로 나타난 완전한 예배순서인 것이다. 그러나 현하 교회에서는 다섯가지중 4가지는 행하고 있으나 ③번째인 “성 만찬” 을 빼놓았으니 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저자는 성서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그 능구령이 같은 옛 배 즉 마귀의 간계는 예뻐 동산에 침입할 그 당시의 방법이나 현 하교회에 침투하여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 보다 구원에 대한 핵심을 너무나 잘 아는 까닭이다. “성만찬” 에 구원의 핵심이 성서에 제시되고 있다.

- 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므로 생명을 얻음(요 6 : 53)
- 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므로 영생을 얻음(요 6 : 54)
- ③ 성만찬을 거행 참여함으로 부활할 수 있음(요 6 : 54)
- ④ 일년 이차 행함이 아니요 매주일 행할 것(고전 11 : 25)
- ⑤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을 지키는 성만찬을 행하기 위함(행 20 : 7)
- ⑥ 성만찬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시작하여 재림할 때까지 행함(고전 11 : 26)

저자는 묵상하여 보았다. 왜? 하필이면 예배순서 중에서 성만찬만 빼 놓았을까? 이것을 성서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인 “생명” 과 “영생” 과 “부활” 이 소생되는 비결이

“성만찬”을 거행함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간사하다<sup>2</sup>,  
그리하여 “성만찬”만 살짝 사취하여 버린 것이다. 우리 성도  
들은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성서적으로 실행 생활할 것  
이다.

이 외에도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서적으로 종합적  
인 합법적인 것을 기록하여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함을 촉  
구하였다.

## 제 1 편

## 제 1 편 신학 개요

### 제 1 장 신학 정의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1회로 12사도를 선택하시고 제2회로 70문도를 택하사 3,4년간 주야로 가르치신 신학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道.로고스)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한 1:1~4) 하였으니 이는 자기가 친히 확실히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사도들)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1:1)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학자들의 학설이 많지마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이다.

단일 요한 사도의 이 기록이 없었던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설명은 곤란했을 것이다.

필자가 우연히 불교학자와 합석할 기회가 있어서 서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 때 그는 철학적인 불법에 대하여 설명했으나 해득키 곤란했으며 명확하지 못하여 나는 요한복음 1장1절과 창세기 1장1절을 읽어 주어 명철한 복음인 곧 생명의 도를 설교한 사실이 있다.

이 외의 신학설이 아무리 고상하고 깊다고 할지라도 요한 사도의 신학설에 비길 수는 없는 것이다.

아리스토텔(Aristotle)은 철학을 삼분하여 물리학 수학 신학이

라고 하며 그 중에 제일은 신학이라고 하였고 그 후 스피노자(Spinoza)는 말하기를 우주는 하나님의 사상반사 뿐이라 하였고 영국 과학자 제임스 제인즈 (James Jeans)는 과학적 전지에서 사상이란 과학의 근원인 줄로 생각하고 만일에 이 우주가 사상적 우주이며 이 우주의 창조도 사상의 행동일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창조자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일 것이다.

이상 학자들은 추상적인 자기의 지혜로서 말한 것이요 성서적 신학 사상은 아니다. 우리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리)은 성서적 복음주의로 인류의 생명을 죄악 곧 사망 중에서 구원하려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경 본문 연구와 실천적인 교회생활 목회인 것이다.

### 제 1 절 신학의 용어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란 말을 기독교의 교리와 질리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데 이용한 사람은 12세기 피터에벨날드(Peterabelard)이었다. 이것은 교리적 용어이며 교부들이 삼위일체 연구에 이 말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는 고대 헬라인이 자기 조상의 족보와 생일 행사와 결혼 등에 사용하였고 또한 우주 발생의 여러 학설에 사용하였다.

또 오리겐(Origen)은 조직신학의 연구를 「처음 일에 관한 것」이라 하였고 또한 어거스틴(Augustine)은 자기 신학서를 「요람(要覽)」이라 하였고 칼빈(Calvin)은 신학 연구서를 기독교의 강령이라 하여 신학이란 말을 1. 교리학이란 명칭보다도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2. 이 명칭 밑에서 연구한 교회는 교회에서 공인된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거하여 된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교리라는 용어는 성경 중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1. 국왕의 명령에 (단2:13, 6:8, 눅2:1, 사17:7) 2. 구약 법에 (엡

2:15, 골2:14) 3.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사16:4)등에 사용하였다.

### 제 2 절 보통 신학

성서적 복음주의로 세계적으로 선전하여 인류 생명을 멸망중에서 구원하는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도들이 실천하신 교훈을 성서 중에서 연구하여 모든 분과적으로 과목을 제정한 것이다.

1. 주석신학……성경 본문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성취 하려는 것.
2. 조직신학……성서교리를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연구하는 학술적인 면에 변증한 것.
3. 역사신학……교회 역사를 연구하여 정통적 교회로 환원하는 것.
4. 설교신학……설교준비와 방법을 연구하기를 노력하는 것.
5. 실천신학……교회 생활과 봉사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

이상과 같은 분과를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목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격과 행사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시는 도리를 교훈하는 것이다.

### 제 3 절 자연 신학

1. 자연신학이 한 과학으로 존재함은 성경 중에 명백히 증거되었다. 그러나 인생의 보통 재능 곧 추리성과 경험등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몇가지 명제를 알 수 있으나 구원에 대하여서는 그 지식이 만족치 못하다. 그러나 자연계는 충분히 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

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풀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시 19:1~6) 하였고 기타 (사14:15, 17:23, 롬1:20, 2:14) 에도 설명 되었다. 웨스트 민스트는 말하기를 신령적으로 성경의 필요를 말할 때 주장하기를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밝히 표시하나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뿐이다」라고 하였다.

2. 인생 중에 세계적으로 종교가 존재함과 또 예배와 종교적 개념이 있는 것은 자연계시를 표시함으로써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호교제 없이 자연계에서 이 개념을 건설할 수 있는 재능은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3. 계시종교의 존재는 자연종교를 필요 조건으로 하며 또 그곳에 호소되는 것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변론과 증명을 하지 않으며 동시에 성경말씀은 영혼의 존재와 도덕적 양심과 공의 등을 인정한다. 과연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업과 성질을 지시하는 자연계의 논거를 보거나 깨닫는 능력이 없다는 인생은 특별계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 이유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아무런 기초도 없으면 그 계시란 인생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결이암됨은 말하기를 자연계시가 없으면 특별계시도 있을 수 없으니 이 말은 곧 자연신학이 없으면 계시신학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 제 2 장 신론(神論)

하나님은 자연적 존재이신 동시에 무시무종(無始無終)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요(묵21:6) 영원하심(창21:33)과 분별하심(말3:6, 약1:17)과 진리의 신이시다.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철학이나 수학적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성서를 통한 믿음으로만의 개인관계로 알 수 있는 것이다.

### 제 1 절 하나님의 출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창1:1). 하나님이 천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시었다가 천지창조함과 동시에 나타나시었다. 그런즉 그 창조하신 우주만물로 그 존재를 나타나시니라(롬1:20) 인류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타나시고 또는 선지성인에게 나타나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었다.

### 제 2 절 형이상학적 논증

현재 무엇이 존재한 것을 보니 영원 부터 무엇이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영원부터 계신자는 필연적으로 독립한 자라야 함이요 자연존재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존재는 현재나 영원이나 미래나 그것이 반드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다.

### 제 3 절 하나님의 속성

우리 인간이 마음 속에 세상을 살아 가며 그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인생은 최고의 근원을 찾으려고 함이 확실하다. 또한 우리들이 객관적 세계에 대해 아는 모든 지식은 그 배후에 있는 분명한 목적과 도덕적 성질 즉 진, 선, 미로 이 우주를 지혜롭게 조직하시고 또 그 법도대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화하는 일 보다 참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객관적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되지 못할

직각적 존재자로 발견한 이 개념들은 근본적이며 필연적이며 보편적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작이 없으며 만물의 최고 근원이시요 또한 물질적 세상의 근원이 되심과 같이 도덕과 진, 선, 미에 대해서도 근원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것이다 (시9:7, 창21:33, 새 40:28, 말3:6, 약1:17). 회성(悔性)도 있음 (요 43:10).
2. 하나님은 전지하심 (요일 3:20, 욥37:16, 시147:5). 선악을 알으심 (잠15:3) 세상에 있는 것을 아심 (시147:4, 마10:29). 사람의 행위를 알으심 (시33:15, 잠5:21). 우리의 언어를 알으심 (시139:4).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생각을 알으심 (출3:7, 시139:2~3, 대상28:9).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 (마10:29~30).
3. 하나님은 전능하심 (창17:1, 18:17, 마19:26, 약4:12~15, 빌9:9~11). 하지 않으실 일도 있음 (새59:1~2, 시66:18, 약5:6).
4. 하나님은 성결 하심 (새6:3, 시22:3, 99:5,9, 요17:11, 벰전1:15, 16, 새57:17, 요일1:5).
5. 하나님은 사랑이심 (요일4:8,16, 3:16,17, 5:34,35, 요17:2,23, 3:16).
  - (1).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 (요3:16, 요일4:9~10).
  - (2).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심 (엡2:4, 요일3:1).
  - (3). 구원받는 자를 기뻐하시는 사랑 (엡3:17, 눅15:23~24).
  - (4). 하나님은 공의로우심 (스9:15, 례12:1, 시116:5 145:

## 7. 요 17:25).

공의(公義)의 나타내는 방법

- (1). 죄인을 형벌하심 (출 9:23, 27, 代下 12:5,5, 단 9:12, 14, 록 16:5,6)과 충성된 자에게 의로운 상을 주심 (왕상 8:3,2, 시 7:9,31, 딤후 4:8 히 6:10).
  - (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서 구원 하심 (시 98:1~3, 103:6, 129:1~4 삼후 1:6~7).
  - (3).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 (느 9:7~8)과 신자를 의롭다 하심 (롬 3:25).
- ## 8. 하나님은 자비하심 (시 62:12, 86:75, 103:8, 145:8, 신 4:26).
- (1).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롬 9:15~18, 벰 후 3:9)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신 7:6 대하 6:14, 시 130:11~17).
  - (2). 죄를 죄복하고 죄를 떠난 자 (잠 28:13)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심 (시 32:10).
  - (3). 하나님만 섬기는 (호소하는) 자에게 (시 86:5, 록 10:12, 13)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새 49:13).
- ## 9.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방법
- (1). 죄를 용서하심 (새 55:7, 례 3:12, 미 7:18, 시 5:1). 또 죄인에게 오래 참음으로 (느 9:6,18, 26,27,30,31).
  - (2). 질병과 압박과 애통에서 구원하심 (출 15:13, 시 59:16, 빌 2:27).
- ## 10. 하나님은 신실(信實)하심 (신 7:9, 32:4, 고전 1:9, 10:13, 삼후 2:2, 살전 5:24).
- ## 11. 신실함을 나타내는 방법
- (1). 약속을 지키므로 (왕상 8:23~24, 56, 시 9:33:34, 히 10:23, 27, 딤후 2:13).

- (2).신의 자녀를 시험중에서 구원하심으로(고전 10:13)또는 신의 자녀를 의로 인도 보호 하심으로(삼후 3:3, 고전 1:8~9).
- (3).신의 자녀를 성스럽게 히므로(살전 5:23~24)또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 하시고(시 119:59)자녀의 기도를 응답 하심으로(시 143:1~2).

#### 제 4 절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 인류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인 동시에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혈통적 죄악으로 유전되어 사망에서 저주를 면할 수 없이 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믿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신이시다(엡 4:6, 요 17:3, 14:24:17, 18:35, 24:36).

1. 즉각적(即覺的)으로~천품적(天稟的)인 무신론자는 없다(행 17:23, 눅 12:16~21, 시 53:1).
2. 이론적으로~무신론자는 몰 이해자다(롬 1:19~23).
3. 성경적으로~하나님은 유일이시다(엡 4:6, 고전 8:6).
4. 경험상으로~곤란시는 하나님을 호칭함(창 3:7, 행 17:24~27, 28).
5. 자연계를 보아서~우주 삼라만상을 통하여(시 19:1, 창 1:1, 행 14:15, 롬 1:2).
6. 그리스도를 보아서~성경을 통하여(요 14:89, 히 1:1~2, 요일 2:22).
7. 그리스도 부활로서~하나님이 일으키심(행 2:32, 롬 6:5, 벰전 1:1).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12차 나타나심.

- (1) 마리아에게(막 16:9, 요 2:11, 8)

- (2) 무덤에서 돌아 오는 여인에게(마 28:9~10).
- (3) 시몬에게(눅 24:34, 고전 15:5).
- (4) 두 제자에게(눅 24:13~31).
- (5) 두 사도에게(요 20:19~21).
- (6) 11 사도에게(눅 24:33~36).
- (7) 갈릴리에서 7 사도에게(요 21:1~3).
- (8) 갈릴리에서 11 사도에게(마 28:16~20).
- (9) 5백여 형제에게(고전 15:6).
- (10) 야고보에게(고전 15:7).
- (11) 모든 사도에게(행 1:6~12).
- (12) 바울에게(고전 15:8).
8. 기도를 들어주심으로(행 4:29~31, 16:25~29, 눅 18:38 41~43).
9. 성신의 증거로(요일 5:7, 성서가 증거함).

### 제 3 장 그리스도론

#### 제 1 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교훈하신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로고스)이요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요 1:1~3). 또는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그 말씀 곧 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인류중에 계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에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또한 영광이시다(요 1:14).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 대가로 사망(롬 6:23)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구속적인 희생으로 피의(皮衣)를 범죄자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시어 죄의 몸을 가리우신 뜻은(창 3:21) 장차 그리스도로서 구속할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가실

것을 예약적인 복안을 두시었고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구출 할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옥문 좌우수에 양의 피를 가까호호에 바르게 하여 천사의 불방망이를 떼케하여 구원한 것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속양의 십자가 보혈로 만민의 죄를 구속하실 그림자(影子)로 된 것이요 또는 대제사장이 일년 일차씩 어린양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중의 속죄제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보혈로 인류를 구속하실 예표인 그림자인 것이다.

신약시대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지성소와 개통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단번에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시어 누구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구증고백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연합하는 세례(Baptism)를 받는 자는(막 16:16, 행 9:57, 2:38) 구원 속죄함을 얻고 선물로 성령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중생(요 3:5)하여 천국(교회)에 들어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이요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성도 곧 남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칠일 중 첫날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십자가의 희생하신 보혈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눅 22:19~20) 주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자기 보혈로 신께 속죄를 대신 하신다.

### 제 2 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명칭

그를 하나님과 주님이라 불렀으니(구약에는 아도나이, 신약에는 주) 이 말은 성경 기자들은 이러한 의미로 다른 피조물에게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히 1:8, 10, 요 20:18, 딤후 3:16, 딤후 2:13, 롬 9:5) 등 「만유의 주」(행 10:36)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딤후 6:15, 묵 17:14) 「영광의 왕」(고전 2:8 참고 요 1:41, 시 6:1, 엡 5:5), 헬라어 관사(冠詞)가 지배하는 문법적 법칙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읽나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의미인데 한 관사가 같은 인격에게 두 가지 명사를 표시함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1.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눅 22:69~70)에 대한 것을 신약중에 40차나 기록 했음.
2. 하나님의 독생자라 함(요 1:14~18, 3:16~18, 요일 4:9).
3. 처음과 나중이라 함(묵 1:17, 새 41:4, 44:6).
4. 알파와 오메가라 함(묵 22:13, 1:8).
5. 성스러우심이라 함(행 3:14, 호 11:9).
6. 주님이라 함(말 3:1, 눅 2:11, 행 9:17, 마 22:43~45, 빌 2:11, 행 10:36).
7. 영광의 주라 함(시 24:8, 10, 고전 2:8).
8. 하나님이라 함(히 1:8, 요 20:28, 마 1:23).
9. 우리의 큰 하나님이라 함(딤후 2:13).
10. 영원히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라 함(롬 9:5).

### 제 3 절 예수의 신격적인 것

一. 예수는 인격중에서 신격적인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질병에 대하여서(눅 4:39).
2. 사망자에 대한 취급(눅 7:14~15, 8:54~55, 요 5:25).
3. 자연제인 풍랑에 대하여(마 8:26~27).
4. 마귀에 대하여(마 8:16, 눅 4:35~36, 41).
5. 제비사에 대하여(엡 1:21~23).
6. 천지를 유지 하심에 대하여(히 1:3).

二. 예수는 전능하심이 하나님과 같으신 것.

1. 우리의 비밀한 생애를 알으심(요 4:16~19) 비밀의 사상까지 알으심(막 2:8, 눅 5:22, 요 2:24~25).
2.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어떤 행동을 하던지 미리 알으심(요 1:48, 눅 22:10~13).
3. 모든 것을 전지하심(요 21:17, 16:30, 골 2:3).

三.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재 하심(마 18:20, 28:20, 요 14:20, 고후 13:5). 하나님과 영원 존재함(요 1:1, 8:55, 요일 1:1, 골 1:17, 비 5:2). 영원 불변하심(히 1:11, 13:8). 하나님과 동일하심(빌 2:6, 골 2:6). 그리스도 속에 신성이 충만함(골 2:9).

#### 제 4 절 예수의 성직

一. 예수는 보배심을 입었다고 말하며 「세상에 오셨다」하고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요 3:31, 6:38, 16:18, 13:3, 6:6, 히 2:7~9, 14, 1:10~11, 록 1:8, 16:2, 8, 3:14).

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직분을 하심과(히 1:10, 요 1:3, 골 2:16) 지으신 물건을 지키셨음(히 1:3).

三. 죄를 사하여 주심과(요 2:5~10) 죽은 자를 살게 하심과(요 6:39~44) 사람을 영화롭게 하심(빌 3:21).

四. 심판하심과(딤후 4:1, 요 5:21, 행 17:31) 영생을 주심과(요 10:28, 17:2) 봉사하려고 오신 것이다(마 20:28).

#### 제 5 절 예수의 사랑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시어 사랑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스러운 명령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시기까지 복종 하셔서 사랑

을 성취 하신 것이다.

1. 죄인과 원수를 사랑 하시며(마 9:13, 눅 19:7, 롬 5:6~8, 눅 23:34) 영아(어린아이들)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막 10:13~16, 마 18:6~10, 갈 2:20).

2. 영혼을 사랑하사 구원하려 세상에 오시었고(눅 19:10, 요일 4:14)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는 것 까지 사랑으로 베푸시었다(마 20:28, 요 10:11).

3. 자기 백성을 마지막 까지 사랑하시고(마 1:21, 요 13:1) 자기,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 하시기를 몸을 버리시기 까지 한 것이다(엡 5:25).

#### 제 6 절 예수의 기도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인 동시에 최후의 십자가 위에서 까지 죄인을 위하여 기도 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 하신 것이다.

1. 자기를 위한 기도(요 17:1, 히 5:7)

믿는 자를 위한 기도(요 14:16~17, 17:20, 롬 8:34, 히 7:35)

자기 원수를 위한 기도(눅 23:34).

2.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기도(요 17:1). 하나님의 성스러운 명령을 복종 하기 위한 기도(마 26:42). 구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기도하심(마 26:44)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심(요 17:20~21).

3. 감사함으로 기도 하심(요 11:41).

믿음으로 기도 하심(요 11:42, 막 11:24).

열심으로 기도(눅 22:44, 히 5:7, 약 5:16).

#### 제 7 절 예수는 온유 겸손하심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시며 겸손하심이 성서중에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1. 온유와 겸손하심을 스스로 증거 하시었다(마 11:29, 21:5, 고후 10, 1).
2. 그 행동의 겸손과 배척자와 교체하심(마 9:10, 눅 15:1~2). 모든 사람에게 봉사자가 되시었다(마 20:28, 빌 2:6~7, 요 13:4~5).

제 8 절 예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립하심(마 16:13~18).

예수께서 질문하여 모든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시니 제자들이 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라 하고 에레미야라 하는 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중의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 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답하여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육체적으로 이를 알게 함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베드로(여성적 반석)라, 네가 말한 그리스도 이 반석(남녀 중성 반석)위에 니(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 하리니 하시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신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베드로가 복음을 대중에게 전도하여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삼천명을 구원시킨 것은 천국문을 열게 하는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 개통식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한 것이다(행 2:36~40).

제 9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재림하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사 장사한지 3일만에 부활하신 후 40일간을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과 성신 세례 줄 것과 사도 구원의 방침을 교훈 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재강림 할 것을 약속하였다.

1. 부활함(마 28:1~10, 막 16:1~12, 눅 24:1~35, 요 20:1~18, 행 1:3).
2.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심(마 26:64, 롬 8:34, 엡 1:20, 히 10:12, 12:2).
3. 예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천사도 증언 하였음(요 14:3, 행 1:11, 히 9:28).
4.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거룩한 성인 시몬에게 재림 하심은 대리(代理)나 거짓 그리스도께서 아니다(마 24:24, 살후 2:14, 요일 2:18).

제 10 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이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한 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3:16) 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시어(마 28:18)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모든 일을 하신다(새 42:1, 52:1~3, 53:11). 더욱 큰 일은 우리 죄를 담당 하시는 일이다.

1. 성신으로 증거하니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으니 성서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 진리다.
  7. 그리스도에 대한 성스러운 명칭(새 9:6, 마 1:23, 요 1:1~14, 행 20:28, 빌 2:6, 골 2:9, 딤후 2:3, 딤후 1:3, 히 1:8, 요일 3:20, 5:1).
  2.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
    7. 태초에 존재하심(마 5:12, 요 8:58, 17:5, 고전 15:47, 골 1:17, 요일 1:1, 묵 22:13).



- ㄴ. 천사들(히 4:15).
- ㄷ. 마귀들(막 1:24, 3:11, 5:7).
- ㄹ. 베드로(벧전 1:19).
- ㅁ. 요한(요일 3:5).
- ㅂ. 빌라도(눅 23:4) 빌라도의 처(마 27:19).
- 14.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은 구주 되시는 증거
  - ㄱ. 니고데모(요3:2).
  - ㄴ. 자연계를 정복하는 능력(눅 8:24).
  - ㄷ. 치병 능력(마 9:35, 11:5, 눅 17:14).
  - ㄹ. 죽음을 이기심(요 14:41).
  - ㅁ. 사귀를 이기는 능력(마 17:14~18).
  - ㅂ. 창조의 능력(요 6:14).
- 15. 그리스도의 선언은 실제화 되심.
  - ㄱ. 진리(요 14:6).
  - ㄴ. 편히 쉬게함(마 11:28).
  - ㄷ. 세상의 빛(요 8:13).
- 16. 하나님의 증거.
  - ㄱ.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마 3:16:17).
  - ㄴ. 변화와 하나님의 음성(마 17:5).
  - ㄷ. 하나님의 증거(요 12:28)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경고(히 12:25~26).
  - ㄹ. 그리스도 사후(마 27:45~54, 행 2:24).
- 17. 그리스도는 이상적 인물이며 각종 특색이 구비됨.
  - ㄱ. 강한 신념과(마 4:1~14) 대담(요 18:1~11, 눅 9:51~56).
  - ㄴ. 온유와 순결(요 8:31).
  - ㄷ. 동정과(요 11:35) 관용심(눅 23:39).

- 18. 그리스도는 예언자(하나님만 장래를 아신다) (신 12:5, 마 21:11, 눅 24:19, 요 7:40).
  - ㄱ. 예루살렘 멸망(눅 19:41~44, 21:26).
  - ㄴ. 자신의 교회를 건설할 것(마 16:18).
  - ㄷ. 교회가 표면적으로 완성함(마 13:31~32). 현재 6억 이상이 신자임.
  - ㄹ. 교회 내부적 부패(마 13:33).
  - ㅁ.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음(마 24:35) 일년에 2백만부씩 성서가 발부됨.
  - ㅂ.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마 20:18~19).
  - ㅅ. 교회를 배신하는 자(눅 18:8).
  - ㅇ. 말세일(마 24:4~24, 37~39).
- 19. 동역자의 증거와 동시대 인물들의 인상.
  - ㄱ. 세례요한(요 1:19~34). 베드로(마 4:18~20, 16:16). 도마(요 20:19~20).
  - ㄴ. 관원들(요7:46). 니고데모(요3:2). 유대인들(막1:22).
- 20. 부활의 역사적 사실.
  - ㄱ. 빈 무덤과 4복음에 기재됨.
  - ㄴ. 삶의 출현과 제자들의 태도 변화.
  - ㄷ. 사울의 회개와 부활후 발생된 사실(행1:3, 롬1:3~4, 목 1:17~18)
- 21. 성경 비판자.
  - 셀세스 배교자 풀니안 유태인 관원(람비) 역사가 조셉 퍼스, 마태아놀드, 루난스트라우스.
- 22. 신약의 완성.

그리스도가 원 저자로 증명(마10:20, 요14:26, 16:1~14).  
결론(요:3:16, 20:30~31, 8:24,6:40,5:28~29,살후1:8~9)

## 제 4 장 성령론

### 제 1 절 성령의 의의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롬8:9)이다.

창조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창1:2) 하신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신 것이다. 곧 하나님의 영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동시에 성신은 그리스도의 신이시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일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와 하나님은 일체라고(요10:30, 5:18) 하였고 주님은 신의 본체의 형상이시라(히1:3) 하였고 성부 성자가 일체인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요 그리스도의 신이니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일체이시다. 그런즉 성경에 계시하신바가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그의 말씀이 그리스도시오 그의 영 곧 신이 성령이시니 삼위가 즉 일체요 한 하나님이다.

주전 2,3세기 경에 모나기안(monachian) 삼일신적 기독교론에 반대하여 하나님은 단일이라고 주장 하였고 그 후에 노에투스(noetus) 이론(異論) 일본질(一本質) 일위(一位) 여기에서 아버지가 문자 그대로라고 하였다. 또한 아리안주의(Arianism) 그리스도의 신성과 초인간성을 부인함과 아리우스(Arius)는 그리스도는 선재(先在) 피조물이니 세상이 있기 전에 창조되었다 하므로 패트리패시안 이론(理論) (Patripassian) 위(位)의 구별을 성경에 주장함, 타위는 다른 위에 혹은 다른 위를 통하여 역사하며 삼위간에 상호 애정하며 각각 의지 작용을 한다고 반박하였고 터둘리안

(Tertullian)과 아다나시우스(Athanasius)의 지도하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을 보호하는 중에 발달되었나니 삼위일체의 교리를 교회에 조직케 된 것이다.

### 제 2 절 성령은 인격적 (그「것」이 아니요 그「이」란 뜻이다)

1. 성령은 삼위중 제 삼위에 처하시어 복수로 우리라고 한다(창1:26, 마28:19).
2.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바티즈)를 받음(마28:18~19)
3. 성령은 하나님의 성신이라 칭함(엡4:30)
4. 성령은 예수의 신이라 함(행16:7)
5.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이라 함(롬8:9, 10)
6.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라 함(창1:2, 고전12:3)
7. 성령은 하나님이라 함(행5:2~4, 28:25~26)

### 제 3 절 성령의 명칭

1. 성령은 지혜의 신(출28:3)
2. 성령은 성결의 신(롬1:4)
3. 성령은 양자 되게한 신(롬8:15~16)
4. 성령은 은혜의 신(히10:29)
5. 성령은 진리의 신(요14:17, 15:26, 16:13)
6. 성령은 생명의 신(롬8:2)
7. 성령은 영광의 신(벧전4:14)
8. 성령은 여호와의 성신(겔11:15, 새61:1)
9. 이사야 11장 2절 중에 일곱 종류의 신으로 기록함.
  - a. 여호와의 신
  - b. 지혜의 신
  - c. 총명의 신
  - d. 모략의 신

- e. 전능의 신
- f. 지식의 신
- g. 여호와를 정의함의 신
- 10. 로마 8장 2절부터 11절에 여섯 종류의 신
  - a. 생명의 성신(롬8:2)
  - b. 하나님(롬8:3)
  - c. 하나님의 신(롬8:9)
  - d. 그리스도의 신
  - e.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는 하나님의 신(롬8:11)
  - f.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

제 4 절 성령은 진리이심(요일5:7)

1. 인치는 성령(엡1:13)
2. 보혜사 성령(요14:16, 26, 15:26)
3.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한 성령(행2:38, 5:32, 롬8:9, 고전6:19)
4. 회락이 되는 성령(눅10:21)
5. 성령은 우리와 교제함(감화)(고후13:14, 갈5:5, 16, 1, 22, 25)
6. 성령은 영원함(히9:14)
7. 성령은 무소 불능(눅1:35)
8. 성령은 무소 부지(요14:26, 고전2:10)
9. 성령은 무소 부재(시139:7~10)
10. 성령은 연환이 됨(마28:18~19, 고전12:4~6, 고후13:14)
11. 성령은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음(눅3:21~22)
12. 성령은 창조에 동역자(창1:2, 시 104:30)
13.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자(요14:26)
14. 성령은 그리스도에게서 보내신 자(요16:7)

15. 성령은 예수의 대리자가 됨(요14:16~17)
16. 성령은 예수를 살게 하심(마1:18~20, 요1:14)
17. 성령은 형상으로 됨(눅3:22)
18.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함(요3:5, 벧전1:23, 약1:18, 고전 4:15)
19. 성령은 은혜를 주심(롬8:27, 8:9)
20. 성령은 뜻대로 주심(고전12:11)
21. 성령은 선한 지각이 있음(고전12:11)
22. 성령은 은혜를 주시는 자(고전12:4)
23. 성령은 이해자(행15:28)
24. 성령은 이검(利劍)(엡6:17)
25. 성령은 우(憂)하심(엡4:30)
26. 성령은 저항자(사7:51)
27. 성령은 죄를 반대하시는 자(막3:29)
28. 성령은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반대하시는 자(막3:29)
29. 성령은 옥(辱)받는 자시다(히10:29)
30. 성령은 반역자에게 반역을 주심(새63:10)
31. 성령은 축임을 받음(행5:3)
32. 성령은 훼상을 받으실 수 있음(마12:31, 눅12:10)
33. 성령은 감화 하시는 자(살전5:19)
34. 성령은 하나님에게 듣는 것을 말한다(요16:13)
35. 성령은 사랑하시는 자(롬15:30)
36. 성령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자(롬8:13)
37. 성령은 인도하는 자(갈5:18)
38. 성령은 예수를 몰아 가신 자(막1:12)
39. 성령은 증거 하시는 자(요15:26, 사20:23)
40.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자(요6:63)

41.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자(사1:18)
42. 성령은 갱신케 하는 자(딤후3:5)
43. 성령은 위로 하는 자(시9:31)
44. 성령은 말하는 자(요16:13)
45. 성령은 이사야로 말하였음(사28:25)
46. 성령은 선지자 내에 있었음(벧전1:11)
47. 성령은 선지자를 감동하심(벧후1:21)
48.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선언 하였음(요16:15)
49. 성령은 장래사를 말 함(요 6:13)
50. 성령은 교훈 하시는 자(고전2:13)
51. 성령은 기억하게 함(요14:26)
52.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자(롬8:26)
53. 성령은 모든 진리 중으로 인도 함(요16:13)
54. 성령은 세상을 책망 하심(요16:8)
55. 성령은 충만하심(엡5:18)
56. 성령은 인치심(엡4:30)
57.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요15:26)
58. 성령은 믿는 자가 신의 자녀되는 것을 증거함(롬8:26)
59. 성령은 믿는 자의 연약한 것을 보조하심(롬8:26)
60. 성령은 믿는 자의 증보자가 되심(롬6:26)
61. 성령은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요16:14)
62. 성령은 은혜를 분배하심(고전12:11)
63. 성령은 사역하라고 부르심(사13:2)
64. 성령은 역사하심(고전12:11)
65. 성령은 사역자를 파송하심(사13:4)
66. 성령은 교회 장노를 선정하심(사20:28)
67. 성령은 과실을 맺게 하심(갈5:22)

68. 성령은 신의 비밀한 것을 통감하심(고전2:10)
69. 성령은 모든 것을 찾으시(고전2:10)
70. 성령은 신의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심(고전2:12)
71. 성령은 생명을 주심(롬8:11)

## 제 5 장 성령이 교회내에서 역사하심

### 제 1 절 성령을 누구에게 약속 하였는가?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동시에 특별히 죄에서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 신자들이 성령받을 약속과 신자에게 내주함(요7:39, 사2:38, 고전12:13, 사5:32, 롬8:9, 8:11, 갈4:6, 딤후1:14, 요일3:2, 4:13, 고전6:19, 엡1:19)

### 제 2 절 사도들에게 성령 주심과 성령 세례 주심

사도들도 신자들과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특수적인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하심의 증인의 자격으로 그리스도가 창립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설하기 위하여 성령 주시는 것과 성령세례 주신 것이 특수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별하지 못함으로 지금도 사도가 되려고 하는 망상을 하고 있는 현상이다. 사도는 주님의 사장(死葬)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행1:21~22) 성령과 권능의 성령 세례를 특수적으로 주시어 주 예수의 죽음, 장사지냄, 부활함을 목격한 증인을 삼아 복음을(고전15:1~4) 증거한 것이다.

1.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권히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되 그 기(氣)를 불어 넣으시기를 하대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신 것(창2:7)과

같이 하신 것이다(요20:22). 이는 사도들에게 내주(內住)케 하신 것이다. 곧 죽은 영이 새로 살아난 것이다.

2. 예수께서 평시에 사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한 말을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요14:26) 하신 것은 성령세례를 주어 2, 3년간 주야로 교훈하신 것을 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전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지시대로 성서를 기록할 것까지 권위를 주려는 약속이다(요 14:25~26).

3.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전일 약속한 성령 세례 줄 것을 기대 하도록 하시었다(행1:4~5). 또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고 하시었다(행1:8).

4. 오순절(수일)에 제자들 곧 사도들만이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 대기 중에서 자연히 하늘로부터 급강풍의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도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외국 방언을 말하였다(행2:1~4). 이는 외부 권능의 세력으로 강림하는 성령세례로 말미암아 사도의 특권인 교회 창설권이다.

### 제 3 절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신 것

사도와의 신자에게 성령 주시는 것에 대하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사죄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곧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행2:38).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요3:5, 롬6:4).

1. 고벨로 가정에 성령 주심은 이방인에 특수적이다. 이는 없던 일이다. 베드로 사도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가기를 꺼

려 했으나 성령이 가라고 한 까닭에 겨우 가게 된 고로 복음만 전하고 세례를 주어 구원을 얻어(막16:16) 성령을 받기까지 노력할 의사가 부족하였으므로(행10:47)파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로서 주신 것으로 생각 된다(행10:44~46). 이방인의 구원에 개통식인(행11:18) 성령 세례인고로 이후에는 없고 세례로 내주(內住)성령으로 중생 된다(요3:5).

2. 신자에게 사도들의 안수로 권능적인 사도들과 방불한 기사 이적을 행한 경우와 내려가는 성령을 주시는 것(행8:17~19)이고 사도의 제 삼자에게는 안 되는 것(행8:15)이다.

3. 믿고 회개하고 구증고백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성령은 은혜로 주시어 받는 것이다(행2:38, 막16:16. 딤후3:5).

### 제 4 절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름(고전12:4~10)

성령의 역사가 각각 다르며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1.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강림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였음(마3:16)이며 그 역사는 광야로 주님을 이끌어 갔음(마 4:1).

2.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강림이 급강풍의 소리와 불의 혀 같은 줄기가 각 사람 위에 임하였음(행2:1~4)이오 각 국 방언을 말하게 하고(행2:4)이적과 기사를 하되 모인 곳과 옥기지가 진동(행4:31~32, 16:26)하여 옥문과 철문이 자동적으로 개봉한 것과 예수님이 나인성 파부의 독자를 사중 소생케(눅7:11~13) 함과 나사로를 죽어 장사지낸지 4일에 다시 살리심 같이(요11:17,44) 읍바에 다미다가 병들어 죽은 것(행9:36~41)을 다시 살린 것과 성신을 죽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처를 힐책 함에(행11:1~10)사망한 것.

3. 사도들의 안수에 의하여 성령이 강하한 자들(행8:17. 6:6)

, 8:5~7)이 사도들과 방불하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사도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함과 안수하여도 성령이 강하 하지 못함(행8:15).

4. 믿고 회개하고 구증고백(口證告白)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은혜로 받고 죄사함과 다시 살며 성결하면 성령의 과실을 맺음(갈5:22~23)과 기도함으로써 신유의 은사가 있음(약5:14~16)과 사도와 같이 또는 사도에게 안수로 성령 받은 자와 같이 이적과 기사는 능치 못함.

#### 제 5 절 선지자와 사도에게 대한 성령의 역사

신약시대 교회중에 성직자들이 있어 조직적으로 발전한 것인데 「저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나」(엡4:11)하였다.

이상 5종 성직자는 동일한 교역의 직이나 명목이 각각 다르므로 직책이 다른 바 아래와 같다.

1. 사도는 예수님과 2, 3년간 동행하며 교훈으로 수양한 자로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이 전권에 포함되어 자의대로 할 수가 없이 교회를 창설하고 기사 이적으로 죽은 자를 소생케 하며 안수하면 권능의 신이 내려가게 하고 계시로 성서를 기록하게 하였다.

【주의】 보혜사 성령(성령세례)을 주어 34년간 주야로 교훈한 말을 기억하며 전하며 성서로 기록하게 하고(요14:26) 계시로 성서를 종료한다. 신약성서 완성을 표시하기를 이 외에는 가감하지 못하게 하였다(묵22:18~19). 그런즉 신약성서 외에 어떤 계시나 또는 구약서가 있고 신약성서가 있으니 타약서(他約書)나 어떤 헌장서(憲章書)를 첨부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신약 계시가 신전신지시대 까지 계시한 까닭이다.

만일 누가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사도가 되지 못한 자니

불완전 하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시서 끝에 경고한 것이다(묵22:18~19).

2. 선지자는 구약시대도 있고 신약시대도 있었다. 이는 사도들에게 안수로 권능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언을 하며 교역자를 선정할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안수 임명(행13:1~3)식을 하며 성도를 완전 하게 하며 교회사무를 충성하여 교회를 완성하였고 계시록 까지 성서가 완전히 됨으로써 사도와 선지자는 중지한 것이다(고전13:8).

3. 복음을 전하는 자(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임명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을 통하여 후계자들 곧 금일도 교역 하는 자는 내주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여 기록한 성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고 능력이 있으니 좌우에 날선 검보다 강하여 혼과 영혼과 근절과 풀수를 쪼개고도 남으며 또 마음의 사상과 뜻을 감찰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라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와 같다(히4:12).

#### 제 6 절 성령의 능력과 역사(役事)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어 권능적으로 역사 하시어 창조 하시어 일로 부터 시작하여 인간들에게 감동과 감화로써 성령을 기록하는 일까지 하였다.

1. 창조의 역사(창1:2, 욥33:4, 26:13, 창2:7)
  2. 택한 자에게 알게 함과 지시하는 일(색4:6, 출35:31~35, 사사13:24, 25, 14:5~6, 15:14~15, 행8:29, 10:19, 16:6~7, 눅1:35, 색13:1~6)
  3. 감동 함으로(벤후1:21, 고전2:13, 막16:20)  
    ㄴ. 나타냄으로(고전2:4, 12, 요14:26)
3.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행한 일

7. 중생(요3:6, 딤펢:5~6, 요13:7~11)  
 ㄴ. 완전케 하심(골1:28, 히6:4, 고후7:1, 롬8:2, 벨전3:18, 빌3:20)

#### 4. 권능의 성령

예수께서 직접 주신 성령세례

7.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부여 됨(행3:1, 8, 5:1~16)  
 ㄴ. 예언에 의함(요일2:28~29, 마3:11, 행1:4~5)  
 ㄷ. 사도들에게 약속 함(눅24:49, 요14:26, 16:13, 마10:19~20)  
 ㄹ.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주신 것(행10:44~45, 1<sup>1</sup>:17, 45:8)

ㄱ. 성령세례는 신령적 교회 창설목적 그 목적이 완성 됨(행2:21, 33, 10:44~48, 11:15~18)

ㄴ. 성령 세례는 물세례 전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며 사도에는 무관 함(행10:44, 11:15)

ㄷ. 인간의 간섭없이 외부로 듣고 볼 수 있음(행2:1~4, 10:45)

#### 5. 은혜의 성령(안수의 성령)

7. 사도들에게 안수로 임하는 권능을 행하는 성령 물세례 받은 자에게 나누어 줌 듣고 볼 수는 없지만 방언을 할 수 있음(행6~17, 19:6, 딤후1:6, 롬1:11)

ㄴ. 기실한 교회를 확립케 하고 인도하고 증명할 목적(고전2:8, 10, 14:1, 26, 히2:3~4)

ㄷ.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자연 폐지함(고전13:8, 10)

이상과 같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립 또는 신약 성서를 완성 하는 특별한 신의 권능적 건축에 족대(足臺)(일어로 아시바)와 같은 동시에 건물이 완성되면 자연히 폐하는 것과 같이 완성된 성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 6. 선물 혹은 허락의 성령

- a. 나(生)계함(요1:12~13)
  - b. 중생(요3:5, 벨전1:23, 고전4:15)
  - c. 하나되게 함(고전12:13)
  - d. 성스럽게 함(고전6:11, 살후2:13~14).
7. 순종자에게 내주함(롬5:5, 갈4:6, 요일4:13, 3:24, 고전6:19, 딤펢:5, 스5:32)
- ㄴ. 충만함으로 결실함(행6:5, 엡5:18~20, 갈5:22~23, 고후5:5~16)
  - ㄷ. 감화 하심(벨후1:21, 고전2:13, 살전5:19)
  - ㄹ. 성령을 받은 자는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행2:38, 5:32, 갈4:6)
  - ㄱ. 성령을 주시는 목적
- ① 위로(행9:31)
  - ② 사랑(롬5:5)
  - ③ 인도(롬8:13~16)
  - ④ 총명(엡3:16, 골1:9)
  - ⑤ 살리심(골2:12)
  - ⑥ 건강(엡6:10, 딤후2:1)

### 제 6 장 삼위일체론

삼위 일체론에 대한 학설은 많아 과거부터 잡론 율박하여 혼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성령에 관한 것은 성서 중에서 찾아서 해결 해야 할 것이다(창1:3). 창세기에 하나님과 그의 신과 그의 말씀인 삼위가 나타나 있으며 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신약서 중에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삼위

일체를 무엇으로 인정 하는가? 이것은 누구의 학설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서가 완전히 대답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일체라 하였고(요5:18下半)또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일체라 하였으며(요10:30)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히1:3)하였으니 아버지와 아들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일체라고 하였다. 삼위중 부자는 일체가 분명하다. 삼위중 일체 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니 성령은 아버지요 아들이시다. 그런즉 부자가 일체인 동시에 부와 자와 성령이신 삼위가 자연 일체인 것이다.

### 제 1 절 모나키안이즘

주전 2,3세기 경에 모나키안이즘(monarchianism)은 삼일신적(三一神的) 기록론에 반대하여 신은 단일이라고 주장한 이단의 극단적 아리안주의의 반응으로 1. 게린도의 사조로 따르다면 그는 우리 주님의 도성인신(道成人身)을 부인한 자니 아마도 요한일서는 그에게 대하여 답으로 쓴 것 같다. 그후 에비온주의자들의 사조를 따르다면 그들은 처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신격과 초인간성을 부인한다. 주후 312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단 인간 뿐이 아니요 인본주의적 견해(人本主義的見解), 그는 전재(前在) 피조물이며 인간 이상의 정도에 있으나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과 다른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나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있기 전에 창조된 까닭이요 또는 무한히 고상한 피조물인 까닭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절대적 영원한 신성들을 모두 부인한다.

2. 반 아리안 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하시고 또한 그와 동일한 본질과 대립된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히심과 접근할 수 있는 최근 가능성을 받았으며 또한 아들로 양자되었다고 창조 구주의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스리운 대리자로 일하셨다는 설을 지지 한다. 이들은 요3:16과 요17:4에 호소 한다

3. 성령은 단 피조물의 피조물이며 아들로 인하여 산출되었다 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설에 가담하고 있다.

4. 아리안과 반아리안 주의나 쏘시니안 주의자는 아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승인 하지 아니하였다. 저들은 그의 신성에 대해서는 말했어도 그 신격을 말하지 않았다. 알미니안과 유니테리안 둘도 여기 응하여 아들과 성령의 종속성을 따라 간다.

5. 이 양설을 반대하는 정통적 입장은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이다. Homo-Ousicn의 진술과 이상 이론 진술 사이에는 한 헬라 문자가 그리스도의 성질에 대한 개념의 넓은 상위점을 보이며 또한 사실상 그렇게 삼위의 교리를 별하게 되는 것이다. 신(新)스토익 주의(숙명론)와 플라톤 주의 관념의 영향은 로고스와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에 적합한 제한으로 줄어 지게 하였다.

### 제 2 절 파트리시안설

파트리시안의 설은 필자가 제목에서 쓴 바와 같이 동일한 것이다. 잘못된 학설을 반격하기를 성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하여 제출 되어 있는 참되고도 분명한 위(位)의 구별을 보이므로써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했다. 이는 너무도 많은 곳에 표현되어 있으니 즉 너무도 많은 형식으로 주입 되었으며 성령 말씀이 바로 그 씨(緯)로 엮어 졌으므로 그렇다고 하였다.

### 제 3 절 게린도의 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道成仁身)을 부인하는 케린도 사조에 대하여 성서에 분명히 기록한바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요1:14)」하였으니 이 말을 부인 한다면 신학상이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제 4 절 아리우스설

주후 312년에 아리우스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전 피조물이며 인간 이상의 정도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과 본질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리우스의 주장이며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묵1:8, 22:13)하였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제 1편 제 3장 제 1절의 기사를 참조하면 잘 알 수 있다(히1:8, 요20:28, 딤후2:13, 롬9:5).

필자는 어떤 학설이든지 상식적으로 참고는 할지라도 그런 학설에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인류의 영적 생명을 구원 하시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인 동시에 성서에 한 구절만으로서 주장 또는 학설을 세우는 것은 성경을 파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삼가 해야 할 것이다(벧후3:16). 우리 인생도 신체가 삼분으로 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면서 성서를 보면서도 부인하는 학자도 있다. 몸과 혼과 신(령)을 말씀하였는 데 이 세 부분이 구성된 것이 곧 사람이다(살전5:23, 히4: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두 부분 곧 육체와 영혼으로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서에 분명히 몸과 혼과 신(령) 세 부분이 합성하여 하늘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함과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

한 삼위일체설은 성서적이니 성서적 신앙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 제 7 장 천사론

### 제 1 절 성서 중의 양론(兩論)과 실재(實在)

천사론에 대한 이론은 무신론자와 유물론자 뿐 아니라 우선 성서 중에도 부정 학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두개 학파는 부활도 천사도 신도 부인한바(행23:8)가 있었으나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통하여 보면 천사의 기별(奇別)과 활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의 나타날 것은 구약중에 몇가지 사실만 열거하는데 최초에는 에덴 동산에 생명과실수(生命果實樹)를 수직(守直)하는 그룹들(천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재케 하였고(창3:24) 둘째에는 “술”이라는 지경으로 도피하는 아브라함의 비립여(婢立女)인 하갈에게 나타난 것(창16:7)과 셋째에는 여호와께서 삼인격인 천사를 대동하고 마므레 천막 맞은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낳을 희소식을 전한 것(창18:1~15)과 소돔성 롯의 가정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과 롯의 가정 도피를 통고한 것(창19:1~22) 그 다음으로부터 구약말기까지는 생략하고 신약 성서에도 천사의 역사가 많으나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며 몇가지만 기록한다.

최초에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기도할 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고령에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하고(눅1:11,13,19) 둘째에는 천사가 브리엘이 나사렛촌 처녀 마리아에게 성신으로 잉태한 것을 예고한 것(눅1:26~38) 셋째는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성자 예수 탄생시에 그 지방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전한 것(눅2:8~10)과 사도 시대 곧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 후에 천사의 역사가 많은 중에 초기에 된 것만 3,4건을 말하면,

첫째는 전도자 빌립에게 광야로 가도록 천사의 지시가 있는 것 (행8:26)

둘째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내방 지시한 것(행10:3~6)

셋째는 베드로 사도가 옥중 사형 선고 중에서 천사의 인도로 탈옥한 것(행12:7~10)

넷째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 천사가 헤롯을 치니 충이 먹어 죽은 것(행12:23) 등 많은 기록하고 그의 사실들은 점차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 제2절 천사는 자존인가? 피존인가?

1. 천사는 자존이 아니다. 자존이란 어의는 자연의 존재인 동시에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니 이는 삼위일체의 유일인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2. 피존자(被存者)이다. 피존(被存)이란 어의는 피조(被造)란 것인 데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천사인 것을 성서에 증명되었다 (골1:16).

3. 천사의 피조시기와 천사를 어느 때 창조하였을까?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것(욥38:6~7). 지구가 창조될 때 새벽별(晨星)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하였다 한 것이 그들은 천사들인데 그 전에 있음으로 노래한 것이다.

4. 천사는 기록되어 피조된 영물이다. 그룹(천사)이 창조된 형편을 에스겔 선지가 말 하였다(겔28:13~14).

### 제3절 천사의 수호와 조직과 계급과 직분

1. 천사의 수는 천천이요 만만이다(묵5:11, 히12:22). 또는 수행자가 천천이나 되고 그 외에 지키는 자가 만만이나 된다고 하였다(단7:10, 왕상22:19下).

2. 그 조직은 12명이 더 되는 천사와 12문과 12천사가 있다고

하였다(마26:53, 묵21:12).

3. 계급에 대하여는 문무양반이며 각영(各營)마다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는 일반 천사가 있는 것이다(단7:10, 묵12:7, 유9).

4. 직분에 대하여서는 바람의 천사가 있고 불꽃의 천사가 있고(히1:7) 불을 받은 천사가 있고(묵14:8) 물을 맡은 천사가 있고(묵16:5) 신자를 보호하는 천사도 있다(마18:11, 히1:14, 시34:7).

5. 주 재림시에는 천사가 택한 자(믿는 자)를 나팔로 소집함(막24:31, 살전4:16).

### 제4절 천사의 처소와 형태

1. 천사의 소재처는 하늘 위이다. 하나님의 사자인 고로 하나님 앞에서 호위하며 수행하고 있다(마22:30, 묵5:11, 단7:10).

2. 천사와 천군의 형태

① 천사장 미가엘은 무빈(武班)인 고로 유사시에는 출전한다(묵12:7, 유9).

② 하나님의 군대(창32:1~2, 수5:14)

7. 병거가 천천만만쌍(시68:17)

나. 화마 화병거(왕하6:17)

③ 천국군 중에 악대(시103:21, 눅2:13)

### 제5절 천사의 하는 일

1. 천사의 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하는 데 그 중에 몇가지만 기록한다.

① 사람의 악한 길을 막는다.

발람이란 선지자가 불의의 길로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나귀가 가지 않고 정지하였다. 나

아무리 때려도 가지 않더니 마귀가 말하기를 앞에 천사가 칼을

때어 막고 있으니 가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들도 불의의 길에는 천사가 방어할 것이다(민22:21~30).

②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각각 천사가 있고 수시 보호하며 역사하게 하려 파송한다(마18:11, 행12:15, 히11:14, 시34:7).

③인간의 육신과 영혼 구원의 길을 인도함.

소돔성의 롯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 하려고 내방하였고(창19:15, 22)가이샤라 고벨료 가족 영적 생명 구원을 인도하려고 내방하였다(행10:1~8, 26).

④성도들 별세시에 하는 일

에로 결인 나사로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워(눅16:22~23)진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죽을 때에 천사와 동행 낙원에 갈 것이다.

⑤천사가 악인을 의인 중에 끌어내어 불에 던질 것이다(마13:49).

2. 천사의 나타나는 모양 몇가지를 소개 함.

①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행1:10, 창18:1~2).

②꿈 중에 나타나는 일도 있는 것(히13:1~2).

### 제6절 천사와 인간의 차이

1. 천사와 처형과 인간의 구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①하나님이 천사를 위하여 구속의 길을 두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 된다.

유다서 6절의 기사에 의하면 천사가 일차 범죄하면 주께서 영원 결박으로 옥압 중에 가두어 큰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②인간의 구속에 대한 것.

죄와 건과(愆過)로 죽어간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진실로 감사함이다. 이에 대한 이론은 천사가 장가 가지 않는 데(마22:30) 있다. 그런즉 생산의 도리가 없으나 그 류(類)는 천천이요 만만이니 이는 개체개체를 창조한 것은 분명하다. 만일 천사가 범죄 한다면 구속할 수가 없으므로 천사는 악령이 되고 만다(유6).

구속한 주는 하나인데 많은 수의 천사가 타락할지는 구속하지 못할 가련한 존재들이요 은혜의 약속이 없는 그들이다.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 아담을 창조 하시고 자연법칙으로 생산하게 되었으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가 협동적으로 동참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중 아담인 독생자의 순종하신 피의 대가로 대속하게 되었으니 이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이다(롬5:15~19, 6:23).

천사는 가취(嫁娶)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에 의하여 생산이 없고 개체인 하나하나가 창조된 것이니 일대일의 구주가 되어야 할터인데 구주는 유일이니 일대 다수는 불가능인 까닭에 천사는 범죄 하면 구속할 도리가 없어서 악령이 되고 결박 투옥 되는 것이다.

2. 천사와 인간에 대한 우열

①천사는 인간 보다 우열하다. 하나님의 측근자인 동시에 봉명사자(奉命使者)요 신성한 영물인 까닭이다.

②인간은 천사보다 저열하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자인 동시에 저주 아래 있는 까닭이다.

③천사와 인간이 같은 모양의 생활을 할 시기가 있다(마22:30).

④인간은 천사보다 희망성에 대하여 우수하다. 아무도 없는지라 천사는 범죄할 때는 구속할 길이 없고 인간은 범죄 저주 아래서

도 구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리로써 구속하는 하나님의 특수적 은혜가 있는 것이다.

⑤속죄 구령할 중생자는 천사보다 존귀하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권속이니(롬18:14~17,엡2:19)그리스도와 장차 같이 왕노릇 하게 된다(묵20:6).그 때에는 천사들이 수종할 것이다(단3:28, 6:22, 묵22:8~9).

⑥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들은 천사를 심판할 것이다(고전6:3) 범죄 천사에게 한다는 말이다.

### 제7절 성서의 특수적인 사실

1. 우리가 천사에 대하여서 성서 중에 있는 사실을 통해서 천사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하며 장차 신의 세계에서 우리와 무슨 차별과 권위가 이상에 종합적으로 쉽게 알도록 한 것이다. 이제 성서 외에 몇가지 책자를 통하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천사를 동원하여 된 것을 기술코자 한다.

2. 우리는 양차 대전을 통하여 천사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멜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잘 때에 매우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40일간을 먹을 것을 주어 활동하게 하시었다(왕상19:1~9).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저를 지키는 사자를 보내어 너의 모든 길을 지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육체의 안전을 위하여 지키신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사자의 입을 막으려고 천사를 보내어 지키신 것을(단6:22) 우리는 믿는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과 그 능력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천사들이 이 지구상의 전쟁중에 활동하였음을 모든 세인들이 보았다. 만일 그 때에 천사들의 간섭이

없었던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강압되어 몹시 쫓겼을 때 몬스란 곳에 밀린 연합군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에 천사가 삼인격으로 나타나니 무서운 싸움은 잠시 정지 되었다. 그러자 연합군 후원부대가 곧 와서 독일군을 격퇴한 것이다. 그 외에 더욱 분명한 사건은 영국 신문에 보도 된 것인데 그것을 보도한 세실카불유, 헤이우드는 주후 1918년 빠세 전선에서 불탄서 베튬이라는 촌에 있었다. 그 전선을 위하여 프랑스군대를 보냈으나 그들은 독일군의 무서운 폭격에 비참하게도 후퇴하고 말았다.

그 무서운 독일군의 진격을 연장 시키려고 영국 기관총 소대는 빠세 해협 연변에 배치 되었다. 그 때에 독일포병 부대는 이 기관총 소대를 향해 격렬한 포문을 열고 퍼부었다. 그러나 갑자기 독일군의 포화는 변동하여 베튬이라는 옆의 봉우리로 퍼부더니 독일 포병 진지는 혼란을 이루고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 때에 헤이우드대위는 서서히 진격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그 후 많은 독일군 포로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독일군이 결정적 승리를 자신하고 진격해 가는 때 갑자기 베튬 봉우리에 흰옷 입은 기마병들이 달려와서 그들에게 포격은 가했으나 하나도 쓰러지지 않고 다가와서 두려워서 도망했다는 증언이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지상의 전쟁에도 필요에 의하여 간섭하는 것이다.

악한 자들이 횡포하게 세상을 어지럽게한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 악한 자의 계획을 깨뜨리는 것이다.

제2차 대전인 소위 대동아 전쟁 시에도 중국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활쓰 컴버 박사는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하며 두 나라의 철학과 문학에 능통한 분이였다. 하루는 편지 두 장을

받았는 데 하나는 중국인 목사에게서 온 편지고 하나는 일본에서 온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젊은 일본 비행사가 중국의 무방비 시가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10대의 비행 편대로써 날아 갔다. 지휘자는 불교인이었는데 그 도시에 가까이 날아가서 수다한 천사가 짐을 빼어 들고 그 앞에 있음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한 개의 운채라고 생각하고 비행 하였으나 그 천사들 때문에 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천사들 때문에 생사의 무서운 균형을 위반하고 말았던 것이다.

중국에서 온 편지에는 비행기 10대가 폭격하러 온다는 소식에 그 도시의 주민들은 대혼란이었다. 그 때에 목사님이 그 중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결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으나 상공에서는 비행기의 푸로케라 소리가 위협을 주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조금후 비행기는 다 돌아가고 말았다는 편지였다.

이런 사실은 많은 사람은 믿지 않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사실인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 「이 밤에 여호아의 사자가 나와서 앗스르군사 18만5천을 격퇴한지라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19:35) 하였으니 우리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비상한 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서운 원수마귀가 해하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잘 보호 하시는 것이다.

마귀 사탄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더럽게 할까봐 물을 지키는 천사를 주셔서 모든 물을 지키게 하시고(목16:4~6) 함부로 폭풍을 일으키어 세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맡은 천사를 두셨다(목7:1).그런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물과 바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게 하고 그들을 우리를 섬기게 보내신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를 가지시는 것이다.

## 제 8 장 마귀론

마귀란 무엇이며 그 근본은 무엇이며 그 권세에 대하여 성서에서 본대로 대개 소개하려 한다.

소위 무신론자는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부인할 뿐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부인하고 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함으로 그러할지 모르나 없다는 것 보다도 있다는 증거가 더욱 많다. 그 유래를 상고하면 본시 천사가 분명하다. 성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범칙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벧후2:4) 하였고 또는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주께서 영원한 결속으로 옥암중에 가두어 두셨다가 큰 환란 때 심판을 기다리게 하셨다」(유6) 하였기로 증명되는 바요 그의 명칭도 성서중에 큰 용 늪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 기록 하였고(목12:9) 세상에서 속칭하여 악귀 귀신 사귀 도깨비 등 외에도 많이 있다. 그 명칭만 보아도 그들을 잘 알 수 있다. 용에 대하여는 조화무쌍하여 비와 바람을 부르며 정치와 집권의 주동자이므로 제왕은 용안이라 하며 용체요 용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서 천정에는 금으로 장식한 황룡이 있게 하고 근처에는 목시록12장에 예언한 붉은 용인 적색정치가 출두하여 천하를 유혹하며 횡폭 무도(무신) 하며 파괴 살상과 전쟁인 것이다. 과거 뱀에 대하여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하던 6천여년된 오래된 뱀은 마귀의 변신이다. 마귀란

명칭도 좋은 일에 대하여 방해와 실술군이며 악의 악독 악질적인 것을 말하며 사탄이란 이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반역함과 어떤 심중에든지 침투하여 반역 전부를 계획하고 있다 (마 4 : 10, 16 : 23, 눅 22 : 3). 장래 세계에서는 천년간을 무저갱(無底坑)에 봉쇄할 것이며 제 2차 사망시에는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다 (묵 20 : 2, 10).

### 제 1 절 마귀의 의의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인데 명칭은 여러가지인데 성서에 기록한 것만 말하면 큰 용, 늪은뱀(古蛇),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위에 설명 하였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써 참소(讒訴), 파괴(아몰류온), 승왕(뿔 제법), 살인, 욕심, 폭언, 세상의 왕, 공중의 집권자, 암흑의 권세, 사망의 왕, 질투, 시기, 분쟁, 중상, 모략, 작당, 교만, 기타 제반 악독을 소유하거나 주장하는 자인 것이다.

### 제 2 절 마귀의 유래

1. 마귀의 유래는 본래 천사였다. 천사는 신성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 인간처럼 범죄하였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천사도 피조물인고로 하나님과 같이 절대자가 아닌고로 천사든지 인간이든지 하나님의 성지에 순종관 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묵 22 : 9) 하나님의 성지를 불복종한 마귀다.

(1)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범죄한 것이다 (벧 후 2 : 4).

(2) 불의가 노출하므로 (겔 28 : 15)

(3) 자만심과 지혜를 더럽힌 것으로 (겔 28 : 17)

자만은 벌써 죄인 것이다 (딤후 3 : 2). 하나님과 비등하려는 것이 었다 (새 14 : 12~14). 이사야 선지는 사탄을 아침의 아들 곧 계명성 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타락된 것은 자만심이 계명성(루 씨퍼)의 속에 발생하여 하나님과 동등을 계획한 것이다.

이 루씨퍼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다고 했으니 (겔 28 : 14) 죄와 불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한 것이다.

마귀가 된 천사는 루씨퍼 곧 계명성인 동시에 모든 천사보다 최미의 천사요 제일 지혜있는 천사요 제일 존대를 받는 천사로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 특히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존대를 받아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을 여러 천사에게 말한즉 삼분의 일이 동의 하여 따른 것이다 (묵 12 : 4).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의 지혜와 미를 잘못 사용하므로 죄가 되고 죄가 결실할 때에 무엇이 되는 것은 광고적으로 보일 것이니 너를 땅에 떨어뜨려 열왕 앞에 구경 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겔 28 : 16~17). 우리도 교만해 질 때에 버려질 것이요 교만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에 떨어지는 번개 같이 된다 (눅 10 : 18) 하였다. 사탄이 된 천사는 제일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인 고로 루씨퍼 곧 계명성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과는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후 11 : 14~15) 하였으니 사탄은 성도를 자기일꾼을 만드는 데 가장 흥미있게 활동하므로 알고 우리는 경성할지니라.

### 제 3 절 마귀의 하는 일

1. 마귀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1) 선한 종자를 뿌린 곳에 밭 중에 악한 종자 곧 가라지를 뿌

리고 가는 자(마13:25) 이브를 유혹하여 신앙의 정초를 탈취,  
곧 선악과를 먹게 하였으며 아담까지 먹게 하여 인간타락이 시  
작 되게 한 것이다(창3:6).

(2) 망을 둘러 치는 일을 하는 자  
부주의 하는 새를 잡으려고 아침 저녁 어두운 곳에 망을 치고  
새를 잡는 자와 같은 것이다.

(3) 노한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呑) 자를 찾기를기  
같이 심한 모양과 같이 한다(벤전5:8).

(4) 유혹하며 참소하는 일은 천하를 유혹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참소하는 자라 하였다(목12:9~11).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결합 많은 죄인이라고 하늘에  
출입하면서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것이다(욥1:6~12).

(5)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반역 또는 거절하게 하는 일  
마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향하여 더욱 큰 활동을 하  
고 있다. 실상은 육체적으로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도외시(度外視)하고 잘 믿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멘 동산에 죄를 모르는 이브를 유혹하였고 우리 주  
님 예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수양할 때에 사탄은 당돌히 시  
험하였고 또 베드로의 마음에 침투하여 주님을 넘어 뜨리고자  
하였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침투하여 신앙을 전복시키고 그리스  
도를 반역 하도록 하였다(눅22:3).

## 2. 사람의 마음에 거한 사탄

성경 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마귀는 노리고 있다  
가 어떠한 경우에 틈을 타서 그 심중에 침투하여, 주장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에스겔 선지와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 속  
에 있는 사탄을 지적한 사실을 소개 하려 한다.

에스겔은 두로왕에게 대하여 사탄을 본 것이 아니요 그 마음에  
있는 사탄을 본 것이다(겔28:11~19).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대하여 마음 속의 사탄을 본 것이다(마 16:23).

(1) 그 성전 구조 내용을 보면 거기에 타당한 사람은 세상에  
서 볼 수 없다. 솔로몬 왕은 지혜는 있지만 두로왕이 아니고 에  
멘 동산에도 있지 아니했다. 에멘 동산은 아담이 있을 뿐이고 그  
는 그렇게 지혜에 아름답지 못한 자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두  
로왕을 들어 말했으나 두로왕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그 중에 거  
하는 사탄을 가리킨 말이다.

(2) 예수께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대하여 사탄이라  
고 한 것이 그 속에 있는 사탄을 가리킨 것이다(마가 16:23).  
두로왕과 베드로도 창조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자연 법칙에  
의하여 부모로 생긴 자들이다. 아담탄 창조된 자다 그런즉 지음을  
받은 날 부터라 하였으니 창조를 논한 것이니 이는 분명히 두로  
왕의 속에 있는 사탄을 말한 것이다.

## 제 4 절 미귀의 사자

1. 「천사장 미가엘이 자기의 사자를 데리고」 하였으니 천사들  
이 하나님의 사자인 동시에 천사장의 사자일 것이 분명하다. 그  
런즉 사탄의 장은 큰 용이요 그 전에는 루찌퍼 계명성이었다.  
다른 별의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지구에 던지더라(목 12:4)하  
였으니 천사 삼분의 일이 용의 사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 된다.

천사장이 사자를 거느리고 큰 용과 그 사자와 더불어 하늘에서  
전쟁하여 승리 함으로써 용이 잡힘으로써 그 사자도 또한 잡히  
였다(목 12:7~9). 사탄들에 축출되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  
습은 번개와 같이 된 것이다(눅 10:18).

(1) 사탄의 사자란 말이(목 12:9) 배몬(demons)이라고 비

국에서 번역되었고 제임스 역에는 사용 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역에는 데블(devils)이란 말을 사용치 않았다 그러나 메몬이나 데블이나 같이 사자란 말이다. 성서 중에 메몬, 데블 곧 사탄의 사자가 8종이 있는 데

- a. 질병으로 사람에게
- b. 물결로 사람에게
- c. 비애로 사람에게
- d. 악으로 사람에게
- e. 유혹으로 사람에게
- f. 유언(讒言)으로 사람에게
- g. 비열로 사람에게
- h. 음해로 사람에게 역사와 노력을 하고 있다(왕상 22:20~22, 딤펢전 4:1, 눅 13:10~16, 12:5~16, 요 4:1)•

(2) 우리 중생한 자들은 어떤 귀신에게 잡혔는가?

말고 회개하고 입으로 증거하고 세례받음을 통하여 사죄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성신이 내주하며 그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는 일을 사탄이 할 수 있다. 이는 필요하다면 우리도 사탄에게 넘겨 줌이 된다(고전 5:5).

그러므로 사람을 주장하는 더러운(汚) 사탄을 믿는 자의 격려와 가르치는 과정을 위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는 읍에게서 실 예를 알 수 있는 것이다.

(3) 사귀 악령들은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진 것이다.

A. 사귀들을(막 5:12) 더러운 귀신(汚鬼)라고 하였다. (막 5:8) 더러운 귀신(汚鬼)은 범피자이다(겔 28:16). 사귀는 사탄이라고 하였다(막 3:22~23, 눅 10:7~18).

B. 사귀는 불신자들의 죽은 후 영으로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더러운 귀신(汚鬼)이 자칭 말하는 데 군대라(막 5:8~9)하였다. 그래서 군대가 죽은 귀신으로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걸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속에 있어야 하는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의 고통을 받지 않고 사귀가 되어야 할 것이다(눅 16:19~23).

인간이 죽은 후에 낙원(눅 23:43)이 아니면 음부에 갈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밝혀졌으니 군대도 사후에 그러한 것이니 사귀들이 자칭 군대라 한 것은 사탄의 군대란 말이다. 하늘에 천군과 땅에 사탄의 군대인 것이다. 천군 천사에게 축출된 사탄의 사자가 사귀 악령이다.

【참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귀 더러운 귀신(汚鬼) 악령들은 사탄의 사자로 인정은 하면서도 하늘에서 축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제12:9)에 보면 분명히 사탄이 피습할 때에 그 사자도 또한 피습 하였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눅 16:19) 이하를 보아서 사람의 사후 영이라 할 수 없고 아담 이전(창 1:1~2) 간에 그 지상에 살던 인간이 홍수에 죽은 영들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영은 동일한 것이다. 노아 홍수시에 멸망한 영과 같이 옥에 있을 것이다(벧전 3:19~20.)

창세기 1장 1절에 대하여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절을 창조에 대한 서론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2절을 보면 「땅이 혼동하고 암흑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 하시더라」하였으니 땅과 물은 그 전에 창조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시다」하였다. 그 창조한 천지는 무엇이 혼돈케 파괴된 것을 개조한 것으로 해석 한다.

그 이론이 타당한듯 하나 그러나 사귀 악귀를 혼돈전 시대 인류의 영으로 추상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그들의 이론은(렘 4:23~27) 기록(창 1:1)에 부합시켜 파

기로 인정하고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탄의 사자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명문(계 12:9)에 기록한 것을 믿는 동시에 사탄의 사자 사귀 악마를 아담전 시대 인간의 영들로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홍수에 멸망한 신들이 가둔 감옥인 것이다.

2. 마귀 사탄이 어느 곳에서 왔으며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에 곤란 하지만 성서에 의하여 이하에 몇가지로 설명하겠다. 그러나 제일 답하기 곤란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로 하여금 불가한 것이다 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질문의 답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열거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 곧 시계나 자동차든지 가옥이든지 볼 때 어느 곳에서 왔는가 누가 제조 하였는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만든 자를 의심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것은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주 천체 삼라만상을 보고 조물주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의심치 않는 동시에 출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다(창 1:1)하신 말씀을 확신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제문제는 성경에 대답과 설명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왔다는 답이 되어 있지 않으나 자존하심과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설명과 증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느니라」 하였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1) 마귀가 하늘에서 축출을 당하여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를 쫓으니 이 권세 잡은 자는 순종치 않는 자의 속에 지금 일하는 신이라(엡 2:2)하였고 또는 우리가 씨름 하는 것은 혈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두운 곳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와 공중에 있는 악신을 대적 함이라」(엡 6:12)하였으니 마귀

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

(2) 마귀가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 온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공중에 오시어 이미 죽은 성도들의 낙원에 있는 영과 분묘(쉬울)에 있는 신혼을 부활시키며 생존한 신앙자는 변화시키어 공중으로 올리며(살전 4:17, 계 19:7,8) 주님은 신랑으로 성도는 신부로 혼인 자리에 있는 것이요 7년간은 마귀 사탄은 지상으로 축출할 것이다.

사탄을 공중에서 축출할 때에는 우주는 정화 되느니 우주의 대 혁명이요 대 소탕전이 천사와 사탄이 불꽃을 갈아 앉힌 후에 사탄이 패배하며 지상으로 축출되자 「하늘에서 소리있어 가로되 하늘과 그중에(구름중)에 거하는 자는 향락 하리라 그러나 지상과 바다는 화가 있을 진저 대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할 줄을 안고로 크게 화를 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계 12:12) 하였으니 지상에 대 환란이 전개된다.

(3) 마귀가 지상에서 무저갱(無底坑)으로 퇴거 금고 봉쇄할 때에는 주님 예수께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대동 하시고 지상에 재림 하사 천년 왕국에 태평왕이 되신다. 이 때에는 지상 만물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 노릇 할 지니라(계 20:4下) 마귀 사탄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계 20:3)고 하였다.

(4) 마귀를 무저갱(無底坑)에서 잠시 석방하여 다시 미혹하고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유황 불구덩이에 던지리니 그 집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 곳이니 세세토록 주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 20:9-10, 마 24:41)고 하였다.

#### 결론

마귀는 본래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옆에 측근자인 광대하고 기

를 부은바 된 천사 곧 계명성(루씨퍼)이었던 광채 남과 아름다움으로 교만하게 되어 그가 당하는 마지막은 불구덩이의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마귀는 자존자가 아던 것은 분명하다. 천사가 피조자인 동시에 천사가 범죄하므로 마귀로 변한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마귀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자존인 것같이 생각하면 아니 된다. 혹자는 마귀도 자존적인 설을 자아내어 하나님과 마귀, 선과 악의 이원론을 말하고 있다. 이는 마귀편이다. 성경에 분명히 피조된 천사가 범죄하여 사탄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천사였던 것이니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제 2 편

## 제 2 편 인류론

### 제 1 장 인류의 발생과 과정

인류론에 대하여 여러 철학자와 각 종교가의 학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천지 만물과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고찰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성경에서 인류의 근원과 귀천과 기타를 취득하여 개론적으로 하려고 한다.

일반 철학자들은 인류는 이성을 가진 고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유교의 맹자는 말하기를 「天地之間 萬物之衆에 唯人이 最貴는 五倫」이라고 하였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막연하고 무의미한 논증이 아니요 철두 철미한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가장 귀할 뿐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동물인 것이다. 또한 영원성이 있는 것이다. 최초 창조한 인간은 아담과 이브 남녀를 지으셨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음으로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로 사망의 선고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였다. 이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된바 인간의 죄의 기원을 설명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론과 자범죄론을 말하는데 인간의 죄는 선천적과 후천적이라고 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만 자기의 근본적 신성과 실제적 범죄에 대한 진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

는 것만 비로소 공평하게 인생의 가치와 타락과 범죄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특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질과 타락과 동시에 인생의 운명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내적 인생의 역사나 그의 영적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분리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죄와 의와 장래를 심판으로 확인케 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성령이시니 이 길을 통해서만 그같은 신성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이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에 대하여 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한 것이니 그것은 즉 우리들이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니 이는 곧 우리들이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절대자인 실재자에 대한 감각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피조 당시에 신의 형상으로서 부여함과 또한 타락중에서 받은 은사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완전함을 그냥 보전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성서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도달하니 곧 주의 영으로 인함이라」(고후 3:18)하였나니라.

### 제 1 절 인류창조

인류의 구원은 철학적으로도 알 수 없고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으니 곧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여 천지 창조와 우주 삼라 만상과 지상 만물의 창조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인류의 창조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명을 하였고 2절부터 19절 까지는 우주 천지를 창조하였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지상 만물과 조어류와 곤충류와 결승 등을 창조 하시고 26절 27절에는 사람(곧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서 사람의 육체를 창조 하시고 21절부터 22절까지는 흙으로 만든 남자 제 일인 아담의 근골로 제 2인 여자 이브를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진화론적으로 논하면 흙은 우리의 선조라 할 것이고 원숭이와 곰이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물의 창조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짐승류와 고기류와 새류 곤충류 등을 제 5일(제 5시대)에 창조 하였다(창 1:20-23).

(2) 사람은 제 6일(제 6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인 볼 수 없는 사람의 신 곧 영을 창조하시고 지상 정복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심(창 1:27-31).

(3) 인류는 창조물 중에서 최우수 한 것이다. 인체는 제 7일(제 7시대)말기인지 미상하니 토질인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의 생혼이 되게 하셨나니라(창 2~7)

사람의 육체와 생혼은 기존자료인 흙과 기운으로 만든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볼 수 없게 전에 창조하신 것이다.

(4) 인류 시조 아담은 제 1차에 창조한 것이니(기수) 이것은 유일한 양성이다. 양성은 곧 남성인 고로 남자라 하였고 제 2차에 만든 제 2인은 제 1에서 산출한 2인(우수)인 음성이다. 음성은 여성인 고로 여자라 하였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상합은 음양이 배합하여 2인이 합일하

어 일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엡 5:31~32)을 무시 못할 사실이다.

남자가 여자를 상등이나 하등으로 대우하지 못하게 한 원리가 있으니, 그는 여자를 남자의 중부에서 근골을 취하여 만들었으니 같은 대우를 할 것이 분명한 동시에 만일 부부가 아닌 남녀의 상대는 평등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등적이다. 부부가 되면 배필인 동시에 남자의 소유격인 부인이다. 다시 말하면 부의 것이란 말 곧 부의 사람인 피소유격이다.

그 남편을 존경하고 협동 조수인 피애자(被愛者)가 되며 남자는 그 부인을 자기와 같이 애호하고 보존할 가군인 것이다.

(5) 인류창조의 장소는 성서에 에덴지방인 4대강의 근원지이다. 제 일강은 비존강이요 제 2강은 기혼강이요 제 삼은 헛메겔강이요 제사는 유브라테 강이다(창 2:11~14)하였으며 근래 동물학자들도 말하기를 사람이 최초로 시작한 장소는 중앙 아시아라고 말하니 연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인류는 한 족속인 고로 죄나 구원을 일반적으로 받게 된다(롬 5:12 고전 15:22).

(6) 사람의 영과 육체 창조 시기는 타 동물들을 창조한 제 5일후 제 6일(제 6시기)에 창조 된 것이 분명하다(창 1:24~27). 하등동물은 영을 부여 하지 않는 고로 웃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영을 창조 하시고 부여하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말하며 웃는 것이다(창 1:3, 시 2:4).

㉔ 식물은 생존만 있어 倒生을 한다.

머리를 땅에다 두고 자라며 ㉕ 동물은 생존과 각혼만 있어 횡행(橫行)인 횡행(橫行)하고 ㉖ 인생은 생존과 각혼(覺魂)과 영혼이 부여되어 직생(直生) 곧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며 서서 걸어 다니며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과 같이 피조 된 고로 머리를 하늘로 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동물이 분명하다.

창조 제 5일에 동물을 창조 하시고 제 6일에 사람 영을 창조 하셨다고 하였다. 제 1일이라는 날이 곧 제 1시기인 동시에 연대적으로 본다면 몇 천만년인지 수백만년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우리 인간의 24시간 1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하여 필자의 좁은 식견으로 일람표를 삽입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창조 연대표)

원대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비고)
성경구절	(창세기) (1:1~5)	(1:6~8)	(1:9~13)	(1:14~19)	(1:20~23)	(1:24~31)	(안식일)	(2:1~3)
창조동물	천지와빛	공	땅과식물	일월성신	고기과 새, 물	동물과 인간	안식하심	안식하심
하나님이 일하신날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다섯날	엿새날	이렛날	이렛날
인간들의 시대	제 1 시대	제 2 시대	제 3 시대	제 4 시대	제 5 시대	제 6 시대	제 7 시대	제 7 시대
지질연대	무생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제 4 빙하기)	(제 4 빙하기)
시대이진	1 억년간	2 억년간	3 억년간	4 억년간	5 억년간	100만 년간	50만년간	15억150만년

인류는 신생대중(第3氷河期와 第4氷河期) 後半期인 第4氷河期에 창조되었을 것으로 약 50萬年前이라고 추측함. (第3氷河期는 100萬年間임)

과거 신문지상에 보도 된바 있거니와 쓰런 북해연안 어떤 석탄  
광에서 화석이 있었는데 광물학자의 분석 감정 결과 25만년전 동  
물의 상이 산악의 붕괴로 산채로 묻혀서 죽은 것이라고 하였다.  
과학적 증거로나 창세기 순서로나 동물의 창조가 인생창조보다  
먼저 한 것이 분명하나 그 연대는 몇 천만년인지 분명하지 않다.

### 제 2 절 인류의 타락 (하나님을 멀리 하였다는 뜻)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창조의 순서의 반대로 되었다. 이브가  
먼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꾀  
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고 그 후에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한  
것이다. 타락에 대한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마귀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더한 사  
실(창 3:3)인데 믿지지도 말라 한 것이다. 하나님은 과실을 만지  
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창 2:17).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말을 더할 필요는 무엇인가?

2. 하나님을 의심하는 동시에 자기 지혜를 부족하게 여기어 하  
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창 3:5~6). 굶  
주림이 아닌 욕심으로 탐식한 것과(롬 14:20) 신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먹은 것이 죄가 된 것이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실과를 먹은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보다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더 신임한 까닭이다. 마  
귀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죄가 되고  
죄의 값으로 영과 몸과 혼이 죽고(엡 2:1, 롬 5:12)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생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중  
생 부활로 인하여 영생 불사 할 것이다(롬 5:15, 18, 19,).

### 제 3 절 인간 타락의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 온 것은 시조 아담 일인의 타락으로 인하였고  
인생의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롬 5:12). 그러므로 모태  
로 부터 죄악 중에 있었다(시 51:5). 이는 인류가 도덕성과 지혜  
성이 부패하여진 것이며(롬 8:7) 또는 인간들이 각각 범죄로 인  
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심판이 임하여 지게 된다(롬 1:18  
~32).

1. 노아시대에 인류의 죄악이 가득차서 인류의 생활이 전부가  
죄악으로 향락을 하고 마음속 사상이 잔악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을 한탄(창 6:6)하시며 진노하사 40주야를 폭우로 지상  
을 덮었으니 인류는 멸망하고 단지 의인 노아 가족 8인만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창 7:1~24).

2. 아브라함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간들이 죄악으로 가  
득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천사들을 파송하여 성중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큰 족하(長姪)인 롯의 가정을 권고하여 도피하도록  
하고 천사가 하늘에서 불을 던졌는데 원자력이나 수소탄보다 더  
강하여 인성은 물론이고 두 성이 사해로 변하여지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 본 고로 소금기둥이 된 것이다(창 19:26).

### 제 2 장 죄악론

#### 제 1 절 죄악의 기원

1.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에 믿음  
으로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 하시고 에덴 동산  
에 일남일녀를 두시고 대자연 중에서 평화스럽게 사는 그 생활  
은 낙원의 세계였다. 그러나 하루는 사탄이 간교한 뱀의 모양으  
로 아담의 가정에 나타나 여인인 이브에게 질문 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한즉 이브가 대답하기를 모든 실과는 따먹어도 되나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 먹지 말라 하였고 따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다고 한즉 사탄 곧 뱀은 반대로 결코 죽지 않고 먹는 동시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착하고 악한 것을 알게 된다고 하므로 이브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 먹게 한 사실이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고 마귀 사탄의 말은 믿었으므로 죄의 기원이 되고 죄가 시작된 것이다 (창3:1-6) 그 죄의 댓가로 뱀과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부부도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형을 선고 하였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롬6:23).

## 2. 죄의 정의

- (1) 죄는 주 예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성신을 믿지 않는 것 (요 16:9)
- (2)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마7:23, 요일 3:4)
- (3) 죄는 모든 불의 한 것 (요일 5:17).
- (4) 죄는 행치 않는 것이니 착한 일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약 4:17, 고전 9:18)

결국 죄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위반하는 행동이다.

## 제 2절 죄악의 성질과 속죄

### 1. 죄의 성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과장인 동시에 세상으로 부터 오는 것이어서 영구하지 못하다. 세상과 정욕은 영구한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이다 (요일 2:16-17).

그런즉 이상 세가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일시적 향락인 것이다. 인류는 저주 아래 있는 고로 죄악

의 낙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히 11:25).

(2) 모든 사람을 속임 곧 자기성을 말하는 것이다 (잠 14:12).

(3) 양심을 고민케 하는 것 (시 32:3-4, 마태 26:75, 27:3-5).

(4) 비애의 선구자다 (시 38:17-18).

### <참고>

범죄는 범죄자에게만 속한 것이며 원죄는 인류 일반에게 속한 것인데 범죄는 종류가 각각 다르고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러나 자행죄가 없는 자는 원죄로 지옥가게 할 수는 없다 (롬 5:12하반).

### 2. 죄의 결과

하늘이나 땅에서 동일한 저주와 심판을 조래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천사가 교만한 맘이 생겨서 하나님과 같다고 함으로 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한 것이다.

마귀가 된 천사는 결명성 (루씨퍼) 은 광명한 (새벽별)인 동시에 모든 천사보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 있는 천사로서 범죄한 까닭에 버림을 당한 것이다 (새 14:12-15).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낙원생활을 하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음으로 저주와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창 3:17-19).

(1) 죄는 최대의 저주 (결 28:14-19, 벨후 2:4, 창 3:17-19)

(2) 죄는 고통이다 (잠 13:15-21상반)

(3) 신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요 9:31)

(4) 죄는 사망이다 (롬 6:23, 약 1:15)

### 사망의 종류

(ㄱ) 육신의 사망 (창 3:19, 결 18:4)

(ㄴ) 심령의 사망 (엡 2:1)

(ㄷ) 영원한 사망 (묵 20:14-15)

(5) 죄인은 천국에 못들어 간다 (묵 21:27)

(6) 실예,

(가) 카인 (창 4:3-15)

(나) 가룟유다 (마태 27:1-5)

(다) 아나니아 삽비라 (행 5:1-10)

(라) 부자 (눅 16:19-31)

(7) 죄가 모든 세계 사람에게 들어간 고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롬 3:10, 23, 시 14:2-3).

### 3. 속죄

이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 당시에 경륜하신 비밀이 있는 것이다. 이는 죄의 몸을 짐승을 죽여 그 가족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게한 것은 장차 양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과 죄후의 십자가에 주 예수 보혈로 속죄 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런고로 구약은 짐승의 피로 속죄의 약속을 한 것이고 신약은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류의 속죄의 약속을 하였으니 (눅 22:20) 속죄하는 방법을 적는다.

(1)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롬 10:14, 요 3:16)

(2)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진실히 회개한 자 (행 2:38, 17:30)

(3)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시며 자기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증고백 하는 자 (행 8:37, 마 16:16, 롬 10:10)

(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바티도)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 (마 28:19, 막 16:16, 행 2:38, 요 3:5, 롬 6:4)

(5) 하나님의 법인 구원의 방법을 순종함으로 이상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롬 6:17-18)

(6) 믿는 자로서 회개 자복한 자 (요일 1:9, 엡 1:7, 시 32:5)

(7) 주의 탄환에 진정으로 주일에 참여 하며 (마 26:28, 고전 11:28-29, 행 2:42, 20:7)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요 4:23-24)

## 제 3 장 생명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은혜인 것이다.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들을 주관할 책임을 받음과 그의 환경을 자유로 사용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만을 한 것이 아니다.

성서에 제시된 것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준비를 지시 했으니 이 특별한 준비로 인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지위로 피조된 인생은 그것을 상실치 않을 수 있는 완전한 것이 제시 되었으니 그것은 곧 영생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특별 약속은 그가 후대 노아(창 9:15) 에게와 아브라함 (창 15:18) 에게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이스라엘 (출 34:10) 다윗왕 (삼후 7:14-17) 에게와 맺은 약속과 방법은 매우 방불 하다고 한다.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맺은 약속은 둘다 깨어지고 말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약속을 성취한 것이다.

### 1. 약속이란 말의 뜻

구약 히브리어 「베릴」 은 적는다 뺏어지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삭과 아비멜렉의 약속을 비교할 수 있다 (창 26:28). 동양에서는 백마의 피를 마시며 맹서하는 생사간의 신실을 대표 함을 비교하여 진실함을 우리 인생에게 지시하며 그 관계를 충성 하자는 것이다.

2.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표시하는 회염이 각을 배인 생축을 불사른 것은 맺은 약속을 성취한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의 관계는 생축을 제사하는 것 또한 그 피를 제단(하나님편)과 또한 백성에게 뿌림으로 지시되었다(창 17:7, 13-14, 출 34:8 레9:9-12).

3. 이상 약속의 성취는 신약 헬라어 「페리류」로서 모든 것이 결정된 약속인데 이 새로운 약속의 목적은 은혜의 약속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신약이다(눅 22:20). 그 피의 약속은 우리의 양심을 청결케 하여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봉사케 하였으니 이것으로 새 언약의 증보가 되심은 첫 언약(구약) 때에 범죄를 속량 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다(히 9:14-15).

신약에서 이 약속의 제목과 또한 그들을 서로 연결 시키는 것(렘 31:31). 이 약속의 성취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히 9:18)하였고 또 송아지와 산양의 피로 모든 물건을 청결하게 하나니 만일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 사유함이 없는 것이다(히 9:19-22),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신약을 성취 한 것이다. 우리 인류의 생명의 구속함이 신약의 성취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 4. 우리 행위의 약속에 대한 증거

7.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과 아담(롬 5:12 창 2:16-17)

ㄴ. 약속의 조건은 순종이다(창 2:16-17)

ㄷ. 약속의 조인은 선약과다

ㄹ. 약속의 상벌은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 나무는 영생의 상징이요 사망은 벌에 대한 그 약속이다(갈 3:12, 롬 10:5, 레 18:

5, 시 30:15, 절 2:10, 12, 마 19:17, 롬 7:10)

전 약속도 임시적이거나 순종하였다면 생명을 가질 약속이 되었을 것이다(창3:22).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모든 계획은 전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니 아담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인류를 구속케 하는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 5. 약속의 영속성

아담과 인류는 약속을 지키므로 영생을 얻을 약속을 지킬 힘을 상실 했을 지라도 그 약속은 아래와 같다.

7.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ㄴ. 인생은 항상 선한 지식을 택할 것이며 악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은 탐구하지 말 것.

ㄷ. 인생은 언제나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육적으로도 죽는다는 저주아래 있다는 것.

ㄹ. 절대적 순종은 생명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의 살길이 다른 길에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인생의 능력은 자기의 불능성을 증명하여 상실한 곧 죄로 인하여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행위의 약속을 무가치 하게 만든 것이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하는 데서 부터 분리 된다. 그래서 인생은 죄있는 행동을 통해서 곧 자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토대를 벗어난 어떤 새로운 약속이 없다면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첫째 약속은 둘째 약속의 준비다.

그런즉 이 약속에 순종하여야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다. 복음을 듣는 동시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자기 과거 생활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신앙고백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동시에 그 사람은 죄사함과 성신을 선물로 받아 증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인

이 되는 것이다.

그런즉 믿음과 회개와 신앙고백과 침례 세례 받는 것이 복음순종이며 그외도 철저히 하는 사람은 구원의 약속이 성취 되는 것이다 (막 16:16, 행 2:38, 마 28:19).

#### 결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기운을 불어 넣어 삼중으로 결합하여 사람 곧 사람이라 하여 사람의 시조 아담을 사람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 함으로 인하여 죄인이라 하며 죄인의 자손 인류는 전부 죄인이었으나 제이 아담이 속죄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한다 (롬 5:1, 1:17).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 제 4 장 양심(마음)론

### 제 1 절 양심의 의미

양심은 마음을 말함인데 구약성서 중에서 양심이란 말이 없고 마음이라고 쓴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서 중에는 요한 8장 9절에 개역으로 양심이라고 써 있고 사복음서 외에는 여러곳에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을 본심(本心), 진심(眞心), 본연지심(本然之心), 천양지심(天良之心), 천심(天心)이라 한다. 이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지적 하는 말이다. 양심은 남북지침과 같으며 저울과 같이 정평(正平)한 것이다.

공의와 선량한 성결의 하나님의 품성(秉性)인 것이다. 양심은 원어에 스나이페-시스라 한다. 이는 바른 성질이란 말이다, 곧 진실미한 본원이다.

지아스틴 씨는 말하기를 육체는 마음의 주택이요 마음은 영의 주택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은 몸의 주재요 영은 마음의 주재자다. 불교에서는 무에서 유로 된 것이 심성(心性)이라 하였고 유교에서도 마음에서 발작하는 일곱가지 정이 있나니 곧 희(喜)노(怒)애(哀)락(樂)애(愛)악(惡)욕(慾)이라 하였다. 이 일곱가지 정을 잘다스리는 자가 군자요 성현이라고 하였다. 마음에서 출발 하는 것을 의(意)가 하고 마음의 방향을 지(志)라 한다. 그리하여 동지자(同志者)란 마음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양심에는 사단(四端)이 있나니 측은 지심(惻隱之心)은 인지단야(仁之端也)요 선악지심(善惡之心)은 의지단야(義之端也)요 사양지심(辭讓之心)은 예지단야(禮之端也)요 시비지심(是非心之)은 지지단야(智之端也)라 하였으니 양심의 사단(四端)이 곧 인의예지(仁義禮智)이니 인(仁)은 춘생만물(春生萬物)이요 예(禮)는 하성만물(夏盛萬物)이요, 의(義)는 추수만물(秋收萬物)이요 지(智)는 동장만물(冬藏萬物實)의 이(理)이니 일심지사단(一心之四端)으로 성도덕(成道德)하고 일년지사시(一年之四時)로 성생사(成生死)함은 개천이지소위야(皆天理之所爲也)니 즉상제지심성(即上帝之心性)을 부여 인간지소치(人間之所致)고로 인간지사단(人間之四端)인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천리지사시(天理之四時)인 춘하추동은 일대동야(一次同也)니 하늘 이치는 천심의 작용이요 양심은 하늘이 부여하신 천심이다.

### 제 2 절 양심의 근원

양심의 근원을 탐구하려면 자연히 인류의 시작에 대하여 알면 되는 것이다. 그런즉 인류의 시작을 알고자 하면 또한 동물의 시작을 알아야 한다. 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뉜다.

1. 단순해산연체 동물시대(單純海産軟體動物時代)가 약 2억  
년전이요

2. 흉서(胸棲) 동물시대가 약 1억년 전이요

3. 포유(哺乳) 동물시대가 약 2억년 전이요

4. 인간의 선조가 시작된지가 약 50억년 전이라고 한다.

창세기 1장 1절 부터 25절까지 보면 천지 창조와 우주 창조 말  
물 및 날으는 새와 걷는 짐승과 고기 자라 곤충 창조가 6시대로  
되는 구분이 있는데 한 시대가 몇 억만년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인간 창조는 제 6시대 최중에 된 사실이니 곧 제  
7시대 시조가 된 이후 인류역사가 6천년이 되는데 인간 시작이  
약 오천만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령을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지  
50만년(신생대의 후반기인 제 4빙하기)후에 즉 제 7시대 초기에  
인생의 육체를 흙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성서적 역사로 보아서 인간 창조의 역사로서 양심은 인간 창조  
시에 부여된 줄 믿는 동시에 양심의 영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였으니 양심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역사적으로는 인  
류 역사와 동일한 것이다. 양심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의와 진과  
성결을 가지게 되며 정치적으로 육해공중에 동물과 식물을 관리  
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의(意)와 지(志)와 정(情)과 영생성(永生  
性)이 있는 것이다.

### 제 3 절 양심의 위치

양심의 위치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 의학서중에 말하기  
를 막해장영(膜海藏靈) 흉막(胸膜)중에 영이 감춰져 있다 하며  
장해장신(藏海藏身) 뇌수 속에 신이 감추워 있다 하고 혈해장혼(血  
海藏魂) 혈액 속에 혼이 감추워 있고 정해장백(精海藏魄) 정액 속  
에 혼백(魄·魄)이 감춰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생리적으로 참고

가 되는 말이다. 그러나 양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상 臟海는 肺臟의 근본이요 막해(膜海)는 비장(脾臟)의 근본  
이며 혈해(血海)는 간장(肝臟)의 근본이요 정해(精海)는 신장  
(腎臟)의 근본이니 폐비간신(肺脾肝腎)은 네 가지 모양으로 매어  
져 있다. 오장지심(五臟之心)은 중앙지태극(中央之太極)이라  
하였다.

심장은 중앙에 위치를 두고 오장을 관할하게 되어 있어서 심장  
을 해부하면 심장내부 중앙에 십자가 있는데 종격(縱隔)으로 구  
분하여 좌심(左心) 우심(右心)으로 나누어지고 이 2심(二心)에는  
또한 횡격(橫隔)이 있어 상하로 나누어진 고로 심장의 내부에는  
자연 4부로 구분되어 그 위의 2 부는 좌심방 우심방이라 말하  
고 아래 2 부는 좌심실 우심실이라 칭하니 그런즉 양심의 위치는  
십자가 중앙에 있어서 수평적 역할을 하여 회노애락을 중절화합  
하고 있는 것이니 이 양심은 천래적 활동인 동시에 장차 우리 인  
류의 영혼의 심판에 양심의 증거대로 할 것이다.

로마서 2장 15절 부터 16절 까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  
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면 혹은 변명하여 그 마  
음에 새긴 법률의 행위를 나타내나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바와 같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  
하시는 그 날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  
법을 실행하였으며 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면  
그 율법을 행한 것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 양심에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양심에 새겨진 대로 심판날에 그 시비를 분별한다 하였으니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양심의 증  
거대로 영혼이 심판 받는다면 양심과 영혼의 위치는 동일 장소일

것이니 심장부 중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다 (눅 17:21).

#### 제 4 절 양심에 대한 행위

양심은 하나인고로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각각 다르므로 그 명칭이 종류대로 다르게 되어 성서 중에 나타나 있는 것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1. 모든 일은 선하게 행하려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심지(深知)함 (히 13:18).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신고로 선을 만드시고 악은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다 하시고 최후로 사람을 선성(善性)을 주어 지으시고 보시고 매우 좋다 하신 것이다. 인생은 선 뿐이 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악성이 침투 되어 선악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생각지 못한 자들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은 진리에 합치 되는 설이요 이원론은 비 진리인 것이다.

양심이 승리하면 선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가졌으니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이 주신바 성결하고 신실한 마음 (고후 1:12)이라 하였다. 이렇게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성결하고 신실한 것이다.

3.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인애(仁愛)한 마음으로서의 행위 (행 23:1).

4. 하나님을 대하던지 사람을 대하던지 항상 흠이 없는 양심 (행 24:16).

5. 하나님께 감사와 봉사하는 청결한 양심 (딤후 1:3).

6.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케 하는 양심 (히 9:14).

7. 동족에서 구원을 위하여 항상 고통하는 양심 (롬 9:1~3)

8. 청결한 마음과 착한 양심 (딤후 1:5).

9. 신앙의 비밀을 가진 깨끗한 양심 (딤후 3:9).

10. 비방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실행의 양심 (벧전 3:16).

11. 악을 각성하는 양심 (히 10:22).

12. 깨끗한 것이 없는 더러워진 양심 (대 1:15).

13. 지식이 없으므로 약하여지는 양심 (고전 8:7).

14. 파선(破船)과 같은 양심 (딤후 1:19).

15. 불다른 철관에 확인 맞은 양심 (딤후 3:21下).

16. 하나님을 찾아 가는 양심 (벧전 3:21下).

#### 제 5 절 양심의 권위

양심은 일신(一身) 주재(主宰)인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다. 또는 심판에 증거권이 있는 하나님 편에서 정당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1. 만물을 주관함.

인간은 천래적인 양심이 있어 바다에 어류와 육지에 동식물과 공중에 조류등을 관찰하는 권이 있어 오곡백과를 임의대로 먹고 모든 새들과 동물들 또는 어류와 자라와 곤충들 까지도 임의대로 잡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양심에 정치적 권한이 있는 까닭이다.

2. 양심의 특징(特点)

양심에서 표현되는 의사는 언어로 반포하는 것이니 언어는 곧 마음의 소리인 것이다.

하늘이 부여한 심성(心性)이 있는 동물 외에는 언어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닮은 심성 곧 하늘양심의 특이한 점이다.

### 3. 양심의 사고력과 판단력

인생에는 심성이 부여되어 사고력이 있어 연구 발명하며 항상 발전과 과거를 추구하고 현재(現在)에는 발달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동시에 시비곡직(是非曲直)의 판단력이 있어 도덕적 책임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는 양심은 신앙과 함께 도덕적 생활로서 양심에 책망이 없게 되는 것이다.

### 제 6 절 양심적 신앙생활

양심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벧전 3:16~21)이다. 종교가도 도덕가도 얼마든지 의식과 허위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비양심적인 생활을 하는 무리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문을 행하며 지키며 표면으로는 청결한 모양을 가지고 이면적으로는 부패하므로 주님께서서는 일곱가지 화를 설명하시기를 「회 칠한 무덤과 같은바 밖으로 보기는 아름다우나 그 속에서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같이 너희도 또한 밖으로는 사람에게서 옳은 것을 보이나 속으로는 간교와 악독이 가득하도다」(마 23:27~28) 하시었다.

#### 1. 양심의 역할

인간의 양심은 시비를 똑바로 분간 한다. 모든 일을 양심의 지침판에 올려 놓고 보면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저울로서 중량을 알고 자(尺度)로 장단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생 자체가 인격적인지 비 인격적인지 양심에 비춰서 알게 되는 것이다.

지식, 지위, 용모, 의복에 인격이 있지 않고 그 양심적인 생활

에 인격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거울에 비추면 그 거울은 용모 그대로 반사하는 것과 같이 양심은 선악간에 입증하고 있다.

그런고로 인간이 범죄 할 때에 양심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 준다(롬 2:15).

영문(營門)에 파수군(派守軍)과 법정(法庭)에 검사와 같은 양심이다. 죄는 피고와 같고 양심은 죄를 논고하는 검사와 같다. 그래서 시비곡직을 잘 구별하는 하늘 양심의 역할이다.

#### 2. 양심은 죄를 기억함

사람마다 범죄하게 될 때에 그 사실과 모양을 그 양심에 녹음기와 같이 녹음되어 밝혀 진다. 언제까지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그 후 애굽으로 팔려가서 브티바의 가정에서 신용을 받아 있다가 파란곡절을 겪고 애굽의 총리대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칠년 흉년 양곡을 수집하여 저장한 애굽정부에 흉년으로 그 형들이 양곡을 얻으려고 2회나 애굽에 왔다. 금잔도난 사건으로 형들이 곤란에 빠졌을 때 총리대신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말하기를 과거 우리가 아우의 애걸하는 것을 보고도 들어주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환란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다(창 42:21).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세인데 총리대신이 된 때가 31세가량이니 형들이 범죄한 것이 14년 되었지만 그 범죄 사실은 금일과 같이 그들의 양심에 기억되었다.

시일(時日)이 장구할지라도 장소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지라도 범죄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뽑아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에 기억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하는 도리 외에는 없는 것이다.

#### 3. 양심은 죄를 책망 함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는 양심의 가책이 쉬지 않고 징계함으로 고민중에서 뼈가 쇠하여지며 진액이 고갈된다고 하였고 여름에 큰 가뭄 같다고 하였다(시 32:3~4). 다윗왕의 은밀한 죄는 양심의 책망으로 눈물이 마른다고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 중 가롯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악성의 활동으로 예수님을 은 삼십량에 팔아주기로 제사장과 결탁하고 암호를 짜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입맞춤을 하여 관원들에게 알게 하여 잡아 주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심판대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빌라도 법전에 회부 되었다. 이 때에 가롯 유다의 양심에 고통이 일어났다.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 은 30량을 제사장에게 다시 주며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다고 자백할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비가 당하랴 하였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는 은을 성전에 던지고 물러 갈 때에 그 양심의 가책에 견디지 못하여 목매어 자살 하였다(마 27:3~5).

## 제 5 장 영론 (靈論)

### 제 1 절 영의 의의

우리 인간은 삼혼이 있으므로 동식물 중에 최우수함으로 식물과 같이 도생(倒生)되어 있거나 새나 금수와 같이 횡생(橫生)하지 않고 직생(直生) 곧 직립보행(直立步行)함을 위로 부터 받은 영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상지경천(上指敬天)하는 최귀한 동물이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조류나 짐승이나 무엇이 다를바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당시에 식물은 생존만으로 지기(地氣)를 흡수하기 위하여 땅에 머리를 대고 살게 하시고 짐승은 생존과 각혼을 부여하여 먹고 마시며 활동하나 옆으로 살고 옆으로 보고 걷게 하시고 인간은 생존과 각혼(覺魂)과 영혼을 부여하시어 의식주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주리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영 곧 신

을 받아서 하나님은 말씀인 고로 말씀을 주시어 말하는 동물이다.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웃고 한다(창1:3, 시2:4). 성서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보호 하사"(살전5:23) 하였다.

인간은 신(身)과 혼(魂)과 영(靈)으로 구성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성서의 말씀 중에 몸과 혼의 구분과 몸과 영의 구분은 명확하나 혼과 영은 구별에 대하여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말이나 번역에도 영과 혼은 구별 되었으나 성서 기자들이 어떤 곳에는 혼을 영이라 영을 혼이라 혼용하였기 때문이다.

말의 근원을 연구한다면 히브리어에 「테페시」라 하고 헬라어로 「푸쓰게」라 하여 영어에는 「soul」 우리 말에는 생명, 혼, 심, 정신이라 하며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 헬라어로 「푸네마」, 영어로는 「spirit」 우리 말에는 영이나 신이라 한다.

이와 같이 문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으나 성서기자들의 사용 어구를 본다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민망하다」란 말씀을 마태는 마음이라 하였고(마태 26:38) 요한은 영 곧 「spirit」이라 하여(요한 13:21)같은 주님의 말씀을 혼용하였으며 또한 두 말을 동시에 사용할 시에는 심이라 영이라 하여(새 26:9 눅 1:46~47)하등의 구별 사용이 없으니 영인지 확실히 구별키 곤란하다. 그러나 성서 전체를 통하여 볼 때에 영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생명을 표시 하였고 혼생명이란 말은 인간 중에 존재한 요소 육적생명을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영은 신의 속성의 일부분이요 혼은 인간의 생명에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영에 대한 의의는 영 곧 spirit 이니 모든 사람들이 보통으로 말하는 심령(心靈) 생명(生靈) 영혼(靈魂)이라 함은 영(靈)과 혼(魂)의 결합적인 말이다.

## 제 2절 영의 실재성(實在性)

구약 중에 「흠은 흠으로 돌아 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조물주를 기억하라」(전 12:7)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창 1:27) 하였다.

이와 같이 성서에는 인간실재를 전제할뿐 아니라 창조를 한 후에 인간 육체를 흠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기운을 코에 불어 넣어 생혼이 된 것임으로 지상에서 된 흠의 본질인 육체와 혼도 다 흠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며(전 3:19~21)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전 12:7).

아래와 같이 영의 실재를 요약하고자 한다(혼은 호흡으로 부터 시작한다).

### 1. 자유

인간은 자유와 독립성이 있다. 이는 영의 자유와 독립을 논하는 것이다.

육체는 지상에 속하여 살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영은 신에 속한 고로 자유권과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사모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사랑한다.

이 사실로 보아서 영의 실재가 증명된다.

### 2. 참된 나(眞我)

인간은 객관적 나와 주관적 내가 있다. 동시에 참되지 못한 나와 참된 나가 있다. 전자는 외부적 나 곧 육체요 후자는 내부적 나 곧 참된 나인 영이다.

인간은 자기를 나라고 한다.

그래서 내 머리 내 손 내 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지백체중 어느 부분이 나의 대표이며 동시에 나라는 참된 나 주관적인 나일까? 이는 하나님께로 부터 온 영이다.

육은 흠으로 만든 것인 고로 유한하여 만드시 흠으로 돌아 가

며 영은 신에 속한 고로 영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참된 나이니 영의 실재이다.

### 3. 존귀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영이 있음으로 존귀하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할 영의 생명의 존재로 인함이다.

이는 육체가치를 논함이 아니고 영적 생명의 존귀성을 논함이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였으나 인간의 존귀는 영이 있음으로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칸트는 말하기를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존재니 영은 하나님께 받고 육은 동물과 같이 물질인 까닭이다.

위에는 신이요 아래는 동물이라 하였으니 인간에 진귀는 신적 속성인 영이 있는 까닭이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영의 실재를 분명히 최후 십자가 위에서 「내 영을 받으소서」 기도 하셨다. 동시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현철(大賢哲)들은 영혼주의(靈魂主義) 곧 이상주의(理想主義)자들이니 석가 공자 쾅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등이다. 고로 영의 실재를 부인할 수 없는 동시에 의심할 수 없다. 영혼을 부인하는 교파도 있으나 이것은 이단이다.

## 제 3절 영의 기원

영의 기원설은 다양한데 이것을 소개하며 변증코자 한다.

### 1. 영의 전생설(前生說)

인류는 육체로 나기 전에 존재한다.

이는 인류의 영이 영원 혹은 천지창조시 부터 존재 하였다가 인간 출생시 영(靈)과 혼(魂)과 육(肉)이 일인(一人)으로 결합한다. 동시에 전생에 범죄한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으로 출생한다고 한다.

이 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오리겐인데 그는 말하기를 「인류는 육체로 나기 전에 존재한다. 육체를 가지기 전에 타락하였다」고 한다.

이 말은 불교에서 전생 범죄설과 당시에 유행하는 플라톤 철학과 피타고라스 학파에 율회설을 채용한 철학설이다.

그러나 우리 신학적 사상으로 비판한다면 영의 선재설(창 1:27)은 시인 하지탄 전생시에 범죄로 저주를 받아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율회설이니 이 설은 창세기 3장과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의하여 인간이 출생 후에 범죄한 것이 분명히 성서에 기록 되었으니 율회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2. 영의 유전설

이 설은 생식설(生殖說)이라고도 한다. 육체는 부모에게서 유전된 것과 같이 영도 생식된다는 설이니 최초 아담의 영이 자손손 유전되어 온다고 한다. 이 설을 주장한 자는 펠토리안과 어거스틴이니 이는 유전죄 설명에 유익하게 하는 학설인데 육이 부모에게서 유전된 것과 같이 영도 부모에게서 유전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영도 유전된다고 한다.

이 설은 앞에 설명한 영의 의의에 배타되어 비성경적이다.

정신(精神)과 육체(肉體)는 인적(人的) 요소(要素)이니 유전된다 하여도 무방하며 영은 신적 속성에 일부러 유전(遺傳)이니 생식(生殖)이니 함은 부당한 말이니 영의 독립성과 단일성을 파괴하는 학설이다.

### 3. 영의 창조설

이 설은 중세기 안셀름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창한 학설인데 개인의 육체는 양친의 육체에서 생긴 것같이 영은 하나님이 개개히 창조하여 출생 순간 혹은 교합포태(交合胎) 당시에 부여 하든지 간에 막론하고 창조설은 성경적이다.

### 7. 영의 독립성을 지지한다.

개인에 개인적 영이 있으니 인디비듀얼(Individual)이니 독립성과 단일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영은 평등이며 자유와 독립인 고로 존비 귀천 군자 부자의 차가 없다. 영은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다.

#### ㄴ. 신(神), 인간(人間), 윤리(倫理)를 확인한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 하여도 공경 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히 12:9). 인간은 몸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있다. 물론 만물이 하나님께로 부터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직접과 간접의 덕사가 있다. 사람의 영은 간접적 유전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직접 창조하신 것이다. 고로 영의 독특성은 사람마다 각자가 인식 할 것이다. 육체의 영은 그 출처가 판이(判異)하다. 육체는 흙으로부터 영은 신으로부터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흙으로 된 육은 땅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영은 신께 간다」(전 12:7)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몇단대의 조부가 아니요 곧 영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께서도 아버지라 하셨다. 신과 사람의 천분이 창조설을 이렇게 인정한다.

#### ㄷ. 창조의 원리를 증명한다.

창세기 1 장에는 삼대창조(빠라)중에 제 2인 영의 창조가 있다(창 1:27).

그 외는 탄들(앗사)에 의하여 흙을 빚으시고 기운을 넣어 생혼(Living Soul) 곧 생명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나 혼이나 정신이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기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창조 할 때 「우리의 삼위신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창 1:26) 여기에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 있다. 형상은 원어에 즈렘(Shady Imase)이니 영(影) 형상(形像)이니 지경의(知滿意)의 도덕적 형상 그리스도 인격에 대표적 형상이요 모양은 원어에 대문(Likeness)이니 면형, 상모, 동양, 견본(面形相貌同樣見本)이니 신격(神格) 곧 진성의(眞聖義)의 영(靈)의 모양이다. 이는 특별히 창조 하였으니 이는 영의 창조이다. 영은 죽 신의 속성이 되고 그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영을 창조 하였다. 영의 창조설은 창조원리에 부합되는 학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

#### 제 4 절 영(靈)의 영생(永生)

타종교에서는 천성(天性)이라 하는데 (天命은 謂性이요 率性은 위도요 수도는 謂教니라)하였다.

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성(性)을 부여하였다는 말인데 하나님 신과 같은 영(靈)을 주었다는 뜻이니 인간은 영적 동물이라 함은 영을 부여된 증거라고 생각된다. 불교에서도 이 성을 주장자(主掌者)로 말하였다. 석가모니가 설산(雪山)에서 6년간 수련에서 자신이 자기의 성(性)을 찾아서 견성(見性)한 것을 도통(道通)이라고 한 것이다. 대현철(大賢哲)들도 인간에게 있는 영성(永性)을 시인 하였으나 영의 중생(重生) 도리가 없어서 헛된 공상적(空想的)인 종교가 되고 만다.

영(靈)의 불멸(不滅)을 말까지 하였다. 그러나 영생(永生)의 도리(道理)가 없다. 영의 중생과 영생(永生)의 도리(道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리 뿐이다 (고전 1:18, 행 4:12).

그런고로 주님 예수 말씀에도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은 하늘 나라의 영생을 교훈한 것이니(요 3:5,16) 주님의 십자가 도리인

죄에 대하여 죽이고 그 시체는 강사하고 무덤 중에서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는 참 신앙과 참 회개와 참 고백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장(死葬) 부활의 세례를 받아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는 영이 영생하는 것이다 (롬 6:4~5, 골 2:12).

#### 제 3 권

제 3 편

### 제 3 편

### 제 3 편 신약의 교회론

#### 제 1 장 그리스도의 교회 기원과 조직

##### 제 1 절 교회의 의의와 기원

교회의 의는 조래하였다는 뜻이다. (세상과 구별된 것) 원어에 에클레시아 라고 하며 또는 큐리아케 라고 한다. 즉 주께 속한다는 뜻도 된다. 이는 우리 인류를 세상 중에서 조래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주께 속한 자들이 영적 집단인 주의 몸인 것(엡 1:23, 골 1:24)이다.

그러므로 성서중에 「하나이 되게 하신 것을 주력하여 지켜라 (엡 4:3) 명령하셨다.

이는 통일할 조건 중에 제일 조건이 「몸도 하나요」(엡 4:4)하였  
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이라는 말이요 모든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할 명령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기에 는 성도들로서도 매우 지키기에 곤란할 줄을 알게 하므로 「모든 힘을 다하여 지켜라」하신 것이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보통으로 지키지 못하는 수 많은 교파와 성서에서 탈선된 교회를 만들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약교회도 아니요 새 교회도 아니며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설계(마 16:18)하시고 사도를 대표하여 베드로에게 장차 설계 그대로 창설하도록 위임 (마 16:19)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주님께서 특별히 권능의 성령을 12사도에게 보내주시어 이적적으로 사도들이 방언으로 각국인의 지방에서 온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어 회개한 자에게 아버지와 아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뱀피조)를 베풀어서 속죄의 십자가를 경유(롬6:4)하여 속죄와 성령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중생(요3:5)을 한 삼천명으로 예루살렘에서 기원 30년에 1. 설교와(사도의 가르침) 2. 주의 만찬(떡을 떼며) 3. 헌금(서로 교제함) 4. 기도하며(행2:42) 5. 찬미하며(행2:47) 신령과 진리로 여기에(오순절주일)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집단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 된 것이다.

## 제2 절 교회 조직(빌1:1)

교회조직은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다.

그런즉 성도라 함은 중생의 세례와 성령의 새로운 피조를 받은(딤후3:5, 요3:5) 그리스도인 남녀를 가리킨 것이요 감독이라 함은 장로를 말함이고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구제 사업에 충직하며 기타의 일도 권면하는 직분이다.

이상의 것들을 세분적으로 나누어서 아래에 기록코자 한다.

### 1. 성도

7.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시요 그리스도임을 믿고(행16:31, 요3:16)

ㄴ. 회개하며(행3:19, 2:38)

ㄷ. 구증고백 하고(행8:37, 마16:16, 롬10:10)

ㄹ. 세례를 받은 자(막16:16, 행2:38)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것이다.

이는 성도가 주일에 2, 3인이라도 모여서 주의 만찬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 한다. 성도는 이상 4단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데

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롬1:7, 고전1:21, 딤후1:8~9)

나.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히8:10, 요6:45, 롬10:14~15 고전1:21살후2:13)

다. 왜 소명 하였나?(행26:16~18, 눅14:17, 딤후2:14, 살후2:

14)

## 성도의 의무

### 가. 예배할 의무(요4:23)

a. 성경교수를 받을 의무(교회에 설교를 청함)(요5:39, 행17:11, 행2:42)

b. 헌금할 의무(서로 교제함)(행2:42, 4:35) 11조(말3:7, 1:마23:23, 고전16:1~2, 고후9:5~6)

c. 주의 만찬을 행할 의무(눅2:19~20, 고전11:23~29, 고전12:16~17)

d. 기도할 의무(행2:42, 12:12, 살전5:17)

e. 찬미할 의무(행2:47, 엡5:19, 약5:13, 골3:16, 히13:15)

### 나. 교회 직원에게 대한 의무

a. 복종할 것(히13:7~17)

b. 책하지 말 것(딤후5:1, 벰전5:5)

c. 송사하지 말 것(딤후5:19)

d. 존경 할 것(딤후5:17, 살전5:13)

e. 문안 할 것(히13:24)

### 2. 장로(감독)들

개교회에서 자격에 의하여(딤후3:1~7)

두 사람 이상으로서 선택한다(빌1:1, 딤후1:5, 행14:23).

7.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딤후3:1~7, 벰전5:2~3, 사20:31).

ㄴ. 장로의 직분에 대하여(딤후3:5, 5:17, 딤후1:7, 벰전9:3, 행20:38).

ㄷ. 장로의 의무에 대하여(딤후3:2, 벰전5:2~3, 행20:28 딤후5:17).

ㄹ. 장로들은 신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벰전5:3).

ㅁ. 장로들은 시취한 후에 할 것(요21:15~18).

3. 집사들도 1개 교회에서 자격에 의하여 (딤후전3:8~13) 2인 이상으로 선택 할지니라(빌1:1).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최초로 구체사업에 근심한 신앙과 성령이 충만한 자 7인을 선택하여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무를 담당케 하였는데 여인 상대인 동시에 여자가 필요할 것인데 전 교회에서 남자만 택하고 여자는 한명도 택하지 않은 것(행6:1~7)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 때에는 주님을 친히 수행하며 진실히 봉사생활하는 여자가 여러명 있으나 그러나 교회가 설립된 후에 엄격한 교훈과 신성한 교직자를 선정하여 교회조직을 하여 목회와 치리하므로 교직자는 교회에 언권과 기타 관리성이 보존함에 있어서 여자도 교회직원이 되는 동시에는 동일한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자도 교회 치리상 언권과 남자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합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 함이 없나니 율법에 말한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이니라」(고전14:34~35).

또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으니 오직 조용 할지니라」(딤후전 2:12) 하셨으니 만일 여자를 교직자로 선정하면 치리상 언권과 남자를 주관하게 되면 이상 두 곳에 성령이 지적한 것과 같이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고로 교회에서는 성서 말씀에 범하면 죄가 되는 까닭에 여자로는 성직자를 선정치 않고 여자로는 교회에서 교직자들이 임시에 헌금할 때에 걷는 일, 문명, 심방하는 일군들을 지정한다.

이는 권사라고 하고 그 외는 성경학이나 신학을 한 여자로서 전도인 전도사로 임명하여 교역케 한다(빌 4:2~3).

케냐 교회 베비자매는 집사가 아니고 여종 일꾼이라는 뜻이다(롬 16:1~2). 다시 말하면 전도자란 말이다.

7. 집사의 직분 (행 6:1~7).

구체사업 및 재정운영의 직무인 것이다.

나. 집사의 자격 (딤후전 3:8~13).

믿음과 행실과 가정 등에 대한 미덕이 있어야 한다.

다. 집사의 의무 (행 6:1~3)

자선적 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제3절 교회 설립의 사자들(엡4:11)

상기의 사명을 딛 사람을 구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전도사 및 선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이다(엡4:11)

1.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시어 3,4년간 가르치는 중에 분부를 받은 12사도와 가롯유다를 대신 보신된 맛디아(행 1:25~26)와 이방사도로 주님이 특별 선정하신 바울(갈2:8)인 것이다. 사도직은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창설하는 특권을 주님이 친히 선정하신 동시에 자격을 말하면 이리하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 부터 우리 중에서 하늘에 승천하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행 1:21~22)이라 하였다. 그런즉 사도는 주님을 본일과 친히 교훈 한자로서도 주님이 선정한 자라야 된다 현대에는 이러한 자가 있을 수 없는 동시에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 선지자는 구약시대에도 있었으며 신약교회 시대에도 있었다 이는 가롯 유다 후임 보선을 위하여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였던 신실한 120명 중에 사도들이 성령세례를 받고 교회를 창설한 후에 안수하여 성령의 권능을 얻은 남녀들인 듯하다.

남자로서는 안디옥 회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 등이 있었고(행 13:1) 여자로는 가이사라 빌립의 여식 4인이 있었고(행 21:9) 또는 가이사라에는 빌립의 가정뿐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다(행 21:10).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도하며 교회내에 교역자를 선정할 때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안수임명(행 13:12~3) 식을 하며 성도를 완전케 하며 교회사무를 한다(엡 4:11).

초대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령의 지시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치리한 것을 기록한 것과 사도 요한의 계시록까지 성서가 완전인 신약전서로 신천신지까지 예언하였으니 사도와 선지자들은 종락을 고하였으나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다수 출현할 것을 주님이 예언 한 것이다(마 7:22). 그런즉 신약성서가 완성된 이후에 선지자라는 행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귀를 쫓고 제반 농사를 행할찌라도 신중치 말고 진중 할 것이다.

이상 사도와 선지자의 직은 종료되고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현 교회에도 계승하고 있는 동시에 성례와 권선증약의 권한은 사도와 선지자와 동일 하니라.

3.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를 말함인데 주님 예수와 12사도와 70문도와 (막6:7, 눅10:1) 스데반과 빌립과 바나바와 실라와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디도와 요한 마가 들이며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할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 7. 전도자의 자격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되게 하심은 소명자란 뜻이니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12사도와 70문도를 1회 2회로 모집하여 교훈하시고 실습 전도를 시키며 다시 교양하여 불합격자(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정식 임명 하신 것이다(마 28:19, 막 19:15~16).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7인도 사도들에게 수양을 한 후에 안수하여 선택하였고 바나바와 실라도 사도들에게 피임하였고 바울

도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3년간 수양을 마치고서 사도 게바에게 가진 것이고 (갈 1:17~18) 디모데는 바울에게 교양을 받고 안수 임명 (딤후 1:6)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주님의 설계대로 선배에게 수도원이나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통하여 충분한 자격을 얻은 후에야 선배에게 피임 계승 해야 한다.

#### ㄴ. 전도자의 직분

이것은 은혜로서 베푸신 복음 곧 십자가의 도 전력을 증거함 (고전 9:16~18, 고후 4:5, 행 20:24).

#### ㄷ. 전도자의 의무

주님 예수께서 각각 수신대로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로 믿게 할지니라」 (고전 3:5, 롬 10:14~15).

#### ㄹ.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 예수께 주시므로 주님께서 그 권세를 통하여 부르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한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교훈하여 지키게 하시었다(마 28:19~26).

4. 목사(牧師) 감독(監督)은 이명 동직(異名同職)이니 전도자로서 전도하여 교회를 설립한 후에 양떼인 성도들을 기르는 자 들임을 원어에 말하고 곧 목자란 말이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자격에서 장로의 자격이 겸비 (딤후 3:1~7) 한 자를 장로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를 장립하는 것이다.

#### 【참고】

현대 기독교 각 교파에서는 이 목사 직명을(엡 4:11) 쓴 영어로 패스터(Pastors) 로 사용 하지 않고(시 111:9) 영어로 레버런스(Reverence)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어의를 말한다면 여호와 그 이름이 지존, 존엄하신 자란 뜻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지존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레

버림스(Reverence) 지존자라 혹은 신부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당하므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레브(Rev)라는 명사를 사용치 않고 패스터(Pastor) 곧 목사라는 명사 성서대로 사용할지니라.

#### 7. 목사의 자격

감독(장로)과 이명 동직이니 전도자 자격에서 장로의 자격과 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가 단정하고 믿음에 순종하게 하여 자기의 가정을 잘 치리 하며 주님의 교회를 돌 보는 자라야 한다(딤후 3:1~7).

사도와 교사와 전도자는 처자가 없어도 관계 없으나(딤후 1:16) 목사는 전도자 자격에서 아내가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가정이 신앙상 모범이 되어야만 권위가 있는 까닭이다.

일차 목사직에 피선자로서 그 후에 상처를 하여 무처라 하든지 자녀가 불행히도 사망하여 없을지라도 목사직은 존속된다.

이는 목사선택 당시에 자격자였던 까닭이다.

목사 장로는 자녀는 신앙상으로 순종 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자녀의 연령이 20세에 가깝게 된다면 그 부모의 연령이 40세 이상이 될 것이니 자연히 연장자라야 목사 장로가 될 터이니 성서에 연령이 많은 자가 마땅히 선생이 된다는 것이다(딤후 5:12).

또는 선배 목사님들이 시취 통과 하여야 금식기도 하고(행 13:3, 14:73) 안수식을 한다(요 21:15~18).

#### 나. 목사의 직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곧 양떼를 인도하고 교회 치리를 하며 교훈 하는 것이다(행 20:28, 벰전 5:2~3, 딤후 5:17). 곧 이것이 가르치는 장로인 것이다.

#### 다. 목사의 의무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충성 진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통일 되어 신약 교회로 환원 시켜야 할지니라(엡 4:12~13, 벰전 5:2, 골 1:28 마 28:20).

#### 르. 교회에서 목사에게 대한 의무

이것은 존경하며 생활비를 전담하여야 할 것이다(딤후 5:17~18).

5. 교사는(엡 4:11, 고전 12:28, 사 13:1 딤후 1:11)의 배 곳 문구를 종합하여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나 목사나 동일한 교사인 것이며 만일 교사직을 구분한다면 전도자 목사로서 다년간 교역 실천 중에 성경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동시에 학구적 입장에서 교역자를 양성하는 학원에서 교수하며 교회 중에서도 교양하는 교사직으로 생각된다.

이상 교회의 직분과 교역자는 성도를 완전케 하며 교회 사무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립하는 성직이니라(엡 4:11~12).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례를 행하며 권정을 엄숙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마 18:15~17).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비참한 사실인 것이다.

## 제 2 장 그리스도인의 예배

### 제 1 절 예배의 의의와 유래

1.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전인 것인데 창조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동물과 식물로 제사하였고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짐승 중에 청결한 것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고(창 8:20) 지존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세례를 하였고(창 14:18~19) 유월절에 무교병과 양의 피로 제사 하였으며(신 16:2~6) 제칠일 안식

일에 예배한 것이다.

신약시대에는 「주 예수 말씀에 여인아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러  
라」(요4:21)하였다.

이는 주 에수를 신앙자들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  
배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후 주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제로 죽은지 3일 만에 곧 7일 중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시므로 이 진리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부터 시작하여  
각지에 전파 함으로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 후에 세례(뱃피조)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즙으로 먹고 마시는 진리의 예배를 오순절 곧 칠일 중 첫날에  
예루살렘에서 모여 하나님께 바치었다(행2:41~42). 각처 교회  
에서도 주의 만찬으로 예배한 것이다(행20:7). 신약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로 안식일 예배는 폐한 것이다. 이것은 만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가 분별 되는 것이다. 구약은  
성축(牲畜)의 피의 약속이요 신약은 주님의 보혈의 약속인 까닭  
이다(눅22:20).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의 약속인 예배인  
것이다.

1. 예배는 누구에게 할 것인가?

고대나 현대에도 각를 자신에게 예배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고로 신에 대한  
본성인 종교심을 준 것을 증거로 보고 있다.

다신적인 물신숭배를 버리고 유일신적인 조물주 되신 하나님에  
게 예배 할 것이다(요4:24).

2.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하였고 사마리아 인  
들은 그리스십산에서 예배하였다(요4:20).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3. 어떤 날에 예배할까요?

유대교에서는 제 7일 안식일에 예배하였으나 그리스도교회에서  
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 7일 중 첫날에 예배 하였다(행 2 :  
2, 20 : 7)

4.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요4:24). 이는 신령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인 십자가 도리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  
념하는 주의 만찬 곧 피로 예배해야 한다(행 2 : 42, 20 : 7).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창 4 : 5).

5. 예배한 자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신 것이다(요 4 : 23).

6. 여성도들의 예배의 태도는?

특히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주일(主日)에 배시 머리에 전  
백한 흰수건을 반드시 쓰고 예배에 참석할 것(고전 11 : 1~13)만  
일에 안살 경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 제 2절 예배에 대한 내용과 순서

1. 예배 내용 순서에 대하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 한  
즉 동일하면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구약시대는 무교병과 산양의  
피로 예배하였다. 이는 이스라엘민족이 출애굽 직전에 신이 천  
사로서 애굽사람을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민족은 그 멸망 중에  
서 구원 하기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살 것을 모세에게 명  
하여 양의 피로서 구원한 사실인 것과 그 고난을 통한 것을 기념  
하는 무교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는 장래 있을 실재  
모습의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희생하사 보혈로써

만민의 죄를 하나님께 대속하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그 육체를 찢기우신 죽음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살과 그의 보혈을 기념하는 무교병과 포도즙 잔을 각각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각각 동참하여 신계 예배하는 신약 교회에 성취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변경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분열파들은 세례를 약식으로 하는 등 주의 만찬에 주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 잔을 같하고 무교병만 참여하며 또는 피와 살의 기념도 주일에 전부 망각하는 등은 이스라엘민족이 광야에 출애굽시에 유월절 양의 피와 홍해의 세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애굽의 신인 금제의 우상을 숭배함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동으로 만든 뱀은 생명이 없다. 그러나 산 불뱀에게 물린 자는 나무에 달린 그 동으로 만든 뱀을 바라 보면 생명을 구원했다. 무생명의 떡과 포도즙은 주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한 유언적 명령이다. 순종하여야 할 것이다. 주일에 주의 만찬예배를 폐지하거나 또는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 그들은 그들대로 이론이 있겠으나 그것은 베드로(마16:22~23)와 같이 사단의 이론임을 말해 준다. 주님앞에는(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하신 명령을 따르기에 너무나 다르다.

주님은 동사(銅蛇)와 같이 나무에 달리겠다고 예언하시었다. (요 3:14)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요 3:15)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이는(요 6:54)영생을 약속하시었다. 인간적 이론이나 이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사랑의 주님이 십판의 주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마 7:22~24)

2. 예배순서는 교회창설한 날 곧 오순절에 삼천명 신도의 예배순서가 이러하다.

가. 성경 설교(사도의 가르치심)(행 2:42)

나. 주일 헌금(상호 교제)(행 2:42)

- 다. 주의 만찬(피와 살 기념)(눅22:19~20, 행 2:42, 20:7)  
 라. 기도한다 (행 2:42)  
 마. 찬송한다 (행 2:47)

### 제 3 절 주의 만찬의 시작과 발전

1. 주님이 잠하시던 밤에 무교병을 먹는 절기에 제자들과 같이 이름없이 사는 믿는 자의 가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여 사도들과 절기를 지키시고 「또 떡을 베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하시고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것이라」(눅22:19~20)하시여 장차 이와 같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시작한 것이다. 그 후 50일에 사도들이 주의 명령인 유언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충심으로 기념하였다(행 2:42, 20:7).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함에서 축사한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동참함이요 축사한 떡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동참함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됨을 의미하였다(고전10:16~17, 엡 1:22)

그러므로 주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주의 연회인 고로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명사한 것이다(고전11:20)

### 제 4 절 주의 만찬의 목적과 방법

#### 1. 주의 만찬의 목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로 인하여 인류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중생하는 진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①기념하는 동시에 주의 명령을 순종 함이요(눅22:19, 고전11:24~25) 또는 각 사람이 ②자성하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참여하게 되니 신앙생활에 대하

어 양심적으로 내성함이며(고전11:28)자성하는 동시에 후회하던  
 ③속신의 약속이 성취되고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할 때 까지 전하  
 여 기념하면 영생과 부활의 약속까지 성취하는 것이다(고전11:  
 26, 요 6:28)이는 믿는 자의 최고의 ④소망이다.

2. 주(主)의 만찬 시행방법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하는 법인 고로 구약 시대의 제전보다도 더욱 성스러운 그리스도  
 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동시에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부  
 족한 것과 죄악스러운 우리들의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  
 신 것을 다시 추억하면서 황송하며 감개 무량한 크신 은혜를 양  
 모하는 전심 전지를 기울여 엄숙히 성례를 거행해야 한다.

동양 제례에도 말하기를 모든 제례는 엄숙히 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부모나 할아버지에게 제사할 때도 엄숙히 한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의 사환에 대한 예배야 더욱 신성성과 엄숙한 태도로 마치 대제  
 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 가서 봉행하는 태도와  
 같이 경허하게 할지니라

#### 7. 방법에 대하여

- ① 떡은 한 덩어리로 할 것(고전10:17)
- ② 잔은 포도즙(주가 아니라 즙으로)잔으로 할 것(마26:29고전  
 11:21하)
- ③ 조심하여 먹을 것(자기 반성에서 회개하고 먹을 것)(고전11:  
 29~30)
- ④ 제사 의식으로 알지말고 신성한 예배를 할 것(고전10:21)
- ⑤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할 수 있음(고전11:33)
- ⑥ 떡을 들고서 사제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고 배어 줄 것(눅22:  
 19, 고전11:23하-24)
- ⑦ 잔을 가지고 축사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한 후에 분배 할 것  
 (마26:27).

⑧ 떡과 잔을 각각 분배하여 먹고 마신 후에 다시 기도하되 「주  
 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  
 생이 있고 끝날에 내가 다시 살게 할터이니」(요 6:54)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성취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할 것이다.

#### L. 시행하는 시기와 어느 때 까지 할 것인가?

① 안식일 후 첫날(주일 곧 일요일)에 시작하였고(행 2:41~42)  
 그 후도 계속한 것이다(행 20:7).

② 안식일은 주일의 예표인데 주의 살과 피를 세우신 것(출 20:  
 8, 레 24:5~8) 주의 피인 잔은 지성소에 양의 피를 바친 것 (히 9:7)  
 과 같음.

③ 주 예수의 재림시 까지(고전 11:26).

④ 주일 예배 첫째 목적이 였다(행 20:7).

#### <참고>

신령한 양식(요 6:48~58)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고전 10:1~4)  
 부주의하고 먹으면 죄가 됨(고전 11:26~30) 안식일 후 첫날(주일)  
 에 떡을 배려 하여 모였더니 한 말씀은 주일에 모이는 목적은 떡)  
 을 배는 것이니 주일 회집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 하는 것이 필연  
 적이다. 주일에 회집하면서도 성례를 행치 않으면 목적을 상실한  
 동시에 성서 말씀의 위반이니 죄가 되는 줄 알고 회개 할지니라.  
 그리고 보면 주일 마다 행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이나 헌금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설교나 주일 예배에  
 무엇 한 가지라도 체거 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이상 5종으로서  
 진리의 예배이며 신령한 예배인 것이다.

### 제 3 장 구 원 론

우리 인류에게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 생명의 구원

일 것이다.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대하여 우주 보다는 세계 보다는 가장 중대한 문제인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마 16장26절)하신 것이다. 그런즉 우리 인생은 생명이 있음으로 고귀한 것이다. 인간의 고귀성은 결코 그 신분이나 재산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입은 의복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생명 자체에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랑 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적 생명이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은 용모와 재질 품성 등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만일 사람이 육체적 만이라면 그 자식이 영적 생명이 떠난 뒤라도 그 육체를 집에 보관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그 육체는 장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신 광채이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장16절)하셨으니 인간을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어 그 생명을 희생시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심이니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와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인의 생명이나 의인의 생명이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의인 아벨을 죽인 악인 가인의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하여 저를 죽이는 자는 다시 일곱배의 벌을 받을 것을 선언 하셨다(창 4장15절). 하나님은 악인의 생명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의 생명을 사랑하사 그 아들로 팔미암아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 려하신 경륜이 위대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중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혼란으로 얼크러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기독교계에 의견이 여러가지로 많아서 사람마다 구원에 대하여 단순히 무엇 한 가지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며 또는 순진하여 말하기를 할 수 있는대로 잘하라는 등의 의견이 많을 뿐이요 구원의 방법론을 들어서 구체적인 구원문제를 성서 중에 설계를 소개하는 신학을 가르치는 자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인생과 관계가 광대무량하며 성서중에 어떤 구절 만으로는 해결하기에 능치 못한 까닭이다. 또는 사람의 자신의 열심으로만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주장의 일개 교리만으로는 될 수 없다. 신앙만이 구원하든가 세례만이 구원한다든가 혹은 그리스도가 단독적으로 구원 하신다는 이러한 단지 일개 조건으로 만이 우리를 구원 하신다는 것 보다는 구주 하나님도(딤편 1장1절) 구주 예수도(마 1장21절) 기타 모든 조건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다만 무엇만이 구원 한다고 하는 “만” 字가 성서 중에 출현되지 않고 있다. 그런즉 구원에 대한 조건에 전체적으로 된 사실을 성서 중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 제 1 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에 대하여 성서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딤편 1장1절) 하였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 한 것이니」(딤편 2장3절)하셨으니 구주는 구원자이시라는 말이다. 「그가 이 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 하시었고 또 구원 하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구원 하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후 1장10절)하였고 하나님만이 구원한다고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즉 구원의 주동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협동자도 있음을 믿는다.

#### 제 2 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 하신다

이 교훈은 누구든지 다 잘 아는 말씀이다. 「아들을 낳거든 이

를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마 1장 21절) 또는 「오늘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눅 2장 21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 1장 2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노하심을 받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살전 5장 9절) 하였다. 그런즉 구원은 하나님만도 아니요 그리스도 만도 아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문제가 혼란한 것이다.

### 제 3 절 예수의 생명이 구원 하신다

예수의 생명의 중요성은 구원에 관계하여 빛을 비추심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장 10절) 「그럼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장 2절). 그런즉 예수의 생명을 버리심은 우리를 구원 하심이니 예수의 생명으로도 우리를 구원 하시는 것은 조건 중의 한 가지이다.

### 제 4 절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피로 구원을 얻는데 대하여 성서적 재미있는 교훈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일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 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

장 8절~9절) 또는 「술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장 22절) 그런즉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 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제 5 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잘 알고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상고 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 2장 5절)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함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장 23절~24절)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장 8절) 그런즉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 제 6 절 복음과 구원

복음이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서 중에 쓰여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롬 1장 1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 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전 5장 1~2절) 「십자가의 도(복음)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고전 1장 18절).

二런즉 복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 제7절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성서 중에 인간을 구원할 말씀을 이룬다고 하셨다. 「너와 나의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행 11장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장12절)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인류를 구원 하는 능력이시다.

#### 제8절 소망과 구원

신약성서 중에 매우 중요한 중에 일체의 제목이 있으니 곧 소망이다. 그런즉 이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관계가 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롬 8장24절) 그러한즉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하리로다. 그의 풍성한 자비로 우리를 구원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산 소망에서 나게 하셨다.

이상 8개 조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조건으로 인하여 구원선을 설치하신 것인데 우리 인간이 단일 구원선에 접촉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또는 접촉 될지라도 이하 6조항을 인간들이 할 의무인 동시에 순응치 않으면 구원을 성취 할 도리가 없을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서도 무엇 한 조건만 순응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다.

#### 제9절 신앙과 구원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즐기며 익숙히 믿음이 구원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서중에는 믿으면 구원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만하면 구원한다고 「만」자를 덧붙치며 전도하는 것이 고정적이다. 그리고 보면 기타의 조건은 쓸데없이 되고 믿음만이 구원하고 회개도 고백도 세례도 구원에 하등의 필요성이 없게 되니 성서를 파괴하는 위험성을 발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고로 성서의 말씀을 상고하면 이러하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롬 5:1~2)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또한 롬 3:28, 갈 3:24~25, 히 10:39 보면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였을 뿐이요 믿음만 믿기만 한다면 「만」자가 출현 하지 않은 것이다.

신약성서 중에 믿음이라는 말과 「만」이라는 말이 연속 된 곳을 소개 하노니 이렇다 「이로 보전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약 2:24) 하였으니 믿음만이 아니라고 하며 행함도 무엇도 여러 조건이 구비 되어야 구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교리인 신학 사상이 얹어져서 성서를 파괴하는 위험성이 실현되고 있다. 이미 구원한 데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부터 시작한다.

#### 제10절 회개와 구원

이 회개의 문제는 우리 구원에 대하여 믿음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 천국 복음을 선포 할 때에 먼저 회개를 말하였다.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마 3:1~2)하였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또는 사도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죄 초 선교에 「가로되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하였고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하였고 또는 「그럼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하였으니 회개 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씀 중에도 회개만 하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믿음 만도 아니요 회개 만도 아니라 믿음도 회개도 또 무엇도 여러 조건이 합하여 구원한다는 것이다. 그런즉 회개는 제 2계단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 제11절 구증고백과 구원

이 신앙고백에 대하여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그러나 베드로 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마 16:16) 구스내시도 빌립을 상대하여 신앙고백한 사실이 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노라」(행 8:37)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 할 것이요」(마 10:3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증거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롬 10:10) 「무릇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6)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증고백도 구원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무엇이냐 한 가지만 구원한다는 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니다.

#### 제 12 절 세례와 구원

신약성서 중에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직전에 사도들에게 마지막 대사명으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5~16)하신 명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그 명령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수만 대중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7~38) 「이와 같이 설교한즉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한지라」(행 2:41) 이 때에 비로소 천국열쇠를 사용하여 3천명을 구원시키며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하였고 구스내시도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며 죄인의 죄수라고 하던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아 죄를 사(행 22:16)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즉 세례도 구원에 대하여 한 가지 조건이 되는 것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원어(原語)는 방법) 곧 세례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벧전 3:21) 구원하는 방법은 곧 세례라 하였으니 세례의 물과 또는 성신으로 중생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이니 세례도 구원에 중대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세례를 구원에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말하기를 십자가 우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 생시에 직접 말씀으로 죄 사하심을 주시는 때(막 2장 9~10절)인 것을 알지 못함으로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고 회개하고 구증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구원 속죄하신 것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이 구원의 비밀은 착각하기 쉬운고로 잘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겠으니 구원에 대한 조건은 일일이 통과 하여야 할 것이다.

### 제 13 절 인내와 구원

이 제목은 여러사람이 잘 생각지 않는 것이다. 이상 여러조건을 통과 하였으니 구원이 다 된 줄로 알고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여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니 그런고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10장 22절)하였고 더한 충격적인 말씀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막 2장 10절) 「한 가지로 참으면 또한 한 가지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버리면 주도 우리를 버릴 것이요」(딤후 2장 12절) 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복종 하였으니 내가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우기 이제 내가 있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빌 2장 12절) 바울 사도의 권면은 얻은 구원을 끝까지 견디며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여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였으니 이와 같이 구원의 계획선에 접촉하여야 되는 것을 한 가지나 혹은 2, 3건으로 만이 되는 줄 알고 잘 못 되는 것이 발견되게 된다.

제 14 절 주 재림 회망자에게 최후에 주님이 오시어 구원하신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가지 조건의 구원을 얻은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기를 회망자에게 재차 나타나서 구원하시던 영원히 완성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일차 자기를 바쳐서 중인의 죄를 담당 하였고 후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회망하는 자에게 재차 나타나서 구원 하시리라」(히 9장 28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이상 여러가지 구원 방법대로 구원을 얻은 자들 곧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회망하는 자에게 부활과 변화로써 공중에 들리워 올라가 환접 할 때에 영원한 최후의 구원이다.

만일 우리가 믿기만 하고 회개를 하지않거나 믿고 회개도 하고 신앙고백도 하였으나 세례를 성서적으로 받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고로 예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시었다. 심장에는 정맥이 있는 동시에 동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다. 만일 정맥만 있고 동맥이 없으면 생명은 없게 된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구원 곧 사는 것도 믿음만 있고 세례나 회개나 구증고백이 없다면 영적 생명을 구원 할 수 없는 것이니 중대하고 고귀한 구원 문제를 성서에 착오되면 구원은 불성립일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교계에 혼란과 혼잡으로 인하여 참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방황하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많은 전도자나 설교자가 믿기만이라는 말에 구체적이 되지 못하였으니 이상 여러 조건을 심각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를 기도 한다. 필자도 혼란 중에 흐려진 구원문제에 대하여 방황하다가 모든 비결은 성서 중에 있는 것을 깨닫고 성서를 상고한 결과 구원에 대한 조건이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게되어 우선 단일적인 믿음만이든가 세례만이든가 편견적인 것을 버리고

믿음도 회개도 구증고백도 세례도 종말까지의 인내도 우리 인간으로서 완전히 할 것을 소개 하였고 또한 우리 인간 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과 피와 은혜와 복음과 말씀과 소망으로써 구원선을 설치하신 것을 우리 인간의 신앙으로 각기 로선에 접촉하여야 구원할 것을 논증한 것은 우리 생명이 구원에 대하여 혼란을 정리하여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제 4 장 인간이 할 구원의 중요성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하시고 사도들에게 대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시행하여 사회 구원 하도록 제정 되었음으로(마 28장 19~20절, 막 13장 16절) 사도들이 그리하여(행 2장 38절) 3 천명을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교리를 창설한 후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 제 1 절 신앙과 회개와 구증고백과 세례

(1). 신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장 1절)하였다. 이는 신앙의 정의라고 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 하지한 실존계의 증거이요 하나님의 성지대로 영성(靈性)을 다스려서 신과 합동함으로 신의 세계의 영생을 소망 중에서 성취하는 실상이다. 그러므로 회랍 원어에 「피스티스」요. 영어로는 「페이트」(Faith)라고 하는데 곧 신앙 신념 신뢰 등등의 뜻을 말함이다.

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앙 하도록 할까? 주님께서 부활승천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장 19~20절)하였으니 이는 복음을 가서 전하여 신앙케 하면 세례를 주라는 것이다. 또한 바울이 말하기를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며」(롬 10장 14절)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전파함으로 듣고 들음으로 신앙하게 된다는 말이다. 베드로 사도가 전도한 결과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행 2장 37절)하였으니 이는 복음을 듣고 신앙이 발생한 것이다.

② 무엇을 신앙하는가?

㉠. 천공에 우주와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오 신앙자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히 11장 6절, 갈 4:6, 태 6:9, 례 18:30)

㉡.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신 것을 신앙하며(마 16:16, 요 3:16, 요 14:6, 행 8:37, 13:31, 갈 3:26).

㉢. 하나님의 신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령을 신앙하며(롬 8:9, 행 2:38, 고전 3:16, 요 14:26).

㉣.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을 신앙하며(고전 1:18, 15:1~4, 롬 1:16, 막 1:15).

㉤.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완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신앙하며(딤후 3:15~16).

㉥.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심을 신앙함이다(벧전 1:18~19).

(2) 회개

회개는 헬라 원어에 「메타노미아」인데 의지전환의 뜻이며 자아

의 개혁을 말한다. 이는 복음을 듣고 신앙심이 발생하는 동시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오하고 불신의 죄를(요 16:9) 회개하고 불의의 노선을 버리고 방향전환으로 옳은 길을 택하여 실천행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불신에서 신앙으로 불효에서 효행으로 음행에서 정절로 첩을 얻은 자가 첩을 해방하여 주고 도적이 양동이 되고 우상숭배자가 여러가지 신을 버리고 유일신 조물주만 예배 할 것이다. 그런즉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행 17:30) 옛일 역대적인 예언자들도 개조를 말하였다(새 1:16~17, 렘 7:5~8, 호 5:15, 겔 18:30~31) 주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15) 하였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5) 사도들도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행 2:38)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정한 대로 돌이켜 너희 죄가 면케함을 받으라(행 3:19) 주님의 교훈중에 자기를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 16:24) 이 말씀은 인간은 범죄받고 치라는 것은 아니다. 죄로 출생하고 죄로 생활하다가 죄를 사망하는 죄로 인격화한 저들의 고유성인 의지와 사상 전체적인 자기를 파괴 혹은 파열, 개혁을 의미 함이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갈 5:24).

### (3) 구증고백

이것은 신앙고백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함이다」로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다(마 16:16, 행 8:38)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하는 잔증이니 곧 구원에 이르는 비밀에 하나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증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하였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 할 것이요 누

구든지 사람 앞에서 저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 하리라(마 10:32~33) 하셨으니 그런즉 진실한 신앙고백은 주께서 영접하시어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 (4) 세례

세례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뱃티조”라 한다. 그 뜻은 전신이 수중에 포태된 모양을 말한다. 그런즉 우리말로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만일 번역한다면 침수 혹은 수장(물 속에 장사지냄),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근사하다. 그러면 번역 하는 것 보다 원어 그대로 뱃티조로 사용하는 것이 잡념이 들어가지 않고 순진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세례에 대한 완전한 의의를 명확히 말씀 하였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니라」(롬 6:3~4) 하였고 죄인이 주를 믿고 회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어 장사되고 부활된 복음대로 십자가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 동시에 영은 성령을 받음으로 중생하여 새 생명을 얻어 행함이 되느니라(행 2:38) 그러므로 성경적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는 신비스러운 십자가의 진리이다. 만일 주를 신앙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연합하는 중생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요 3:5) 성서를 어떤 사람은 믿음을 시인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 부인하는 것이 현대 교회들이다. 이스라엘 엘리사시대에 아람인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 하려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말하기를 요단강에 나아가서 일곱차례 목욕을 하면 완전히 나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아만은 순종치 않고 도리어 노하여 자기 의사와 자기의 치료법을 말하였

다 (왕하5:10~11). 원래 교회는 성지인 신의 계시 성서를 인간  
의 사상과 저희들의 법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성서 이외의 교리를  
실현한 친구자는 "저스테인"이요(가도리 교회 설립자) 그 재로  
를 다소간 취하여 간 자들이 또 있다. 이는 소위 신 교파들이다.  
나아만의 종은 충고하되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여도 긍정  
할 것인데 일곱 차례 목욕이 무엇이 불합당해서 불순종하는가?  
하는 심령을 고취(鼓吹)하였다. 그러므로 나아만은 각성하여 순  
종하여 일곱 차례 물 가운데 목욕한 결과 중생의 유아의 몸이  
되어 순결함을 얻었다 (왕하5:13~14).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들  
이 주님의 명하신 세례를 순종 시행하였다 (행2:38, 16:33).  
나아만의 종의 충고로 깨끗함을 얻은 것과 같이 구 교파나 신 교  
파나 회개하고 순종하여 주의 십자가와 합하는 중생의 세례(딤후3  
:5)를 자신들이 받고 시행하라. 일곱 차례 목욕이 일차로 되지  
않고 전적인 일곱 차례 목욕으로 깨끗함을 얻은 것과 같이 물을  
머리에만 뿌리지 말고 전신을 물 가운데 잠사하는 세례를 행하여  
야 하겠다. 그리스도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 필자도 친구 교파에  
게 충고하노니 법왕의 의사나 신 교파 교주의 사상 보다 곧 지혜  
가 있고 통달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숨기시  
고 어린 아이에게(필자에게도) 나타내심을 감사함이다(마11:35)  
하심과 같이 유아같은 필자의 충고를 예외로 듣지 말고 나아만과  
같이 성서의 비밀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바란다.

- ① 세례는 하나님과(요1:32) 주 예수의 특명인 것이다 (마  
28:19~20).
- ②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유일한 것이다 (엡4:5). 신앙이 하  
나인 동시에 세례도 하나이다.
7. 세례의 요구. 그리스도의 확실한 명령으로 알고 복종 할  
것이다 (요14:15~20).
- 나. 주님 예수께서 세례로서 공적생애에 출발하시었다.

- (마3:17)
- 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다(마3  
:16~17). 우리도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 올때에 성령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 르. 그리스도의 최후 명령도 세례에 관한 것이다 (마28:  
19~20).
- ㅁ. 죄인들이 신앙심이 발생함으로 구원을 호소할 때에 죄적  
당한 답은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행2:38).
- ③ 세례 행할 순서
7. 물로 행할 것(행10:47)
- 나. 많은 물로 행할 것(요3:23)
- 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갈 것(행8:38)
- 르. 물 속으로 들어 갈 것(행8:38)
- ㅁ. 물 속에서 올라 올 것(막1:10, 마3:16, 행8:39)
- 비. 몸을 맑은 물로 씻음(히10:22)
- ㅅ. 예수와 합하여 잠사 지냄(롬6:4 골2:12)
- ㅇ.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다시 삶을 얻어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롬6:5, 골2:12)
- ④ 세례의 결과에 대하여
7.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동시에 성령을 받음  
(막16:16, 행2:38)
- 나.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는 것(갈3:27, 롬13:14 마22:11, 록19:8, 마3:15,  
목16:15, 3:4~5)
- 다. 세례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가는 것(벧전3:21)
- 르. 세례는 과거의 죄를 씻는 것(행22:16)

- 口. 세례는 중생 곧 다시 사는 것(요3:5, 딤후3:5, 롬6:4, 골2:12)
- 나. 세례 받은 자의 심령은 혼연한 기본 마음이 있음(행8:39)
- ⑤ 세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막16:16, 행2:38)
- 7. 신앙할 만큼 장성한 자(영아는 신을 믿을 수 없음)(마7:24, 막16:15, 16)
- 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명령을 가르치면 지킬만 한 자(마28:19, 20)
- 다. 복음을 듣고 신앙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자 (행18:8, 2:38)
- 라. 신앙하는 남녀들에게(행8:12, 히6:2 이하 표시)
- ⑥ 세례에 대한 일람표(여러 세례와 유일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의 세례)(엡4:5)
- ⑦ 세례의 예정적 암시 시작
- 7. 이스라엘 민족의 홍수의 세례는 장래 그리스도인 세례를 암시 한 것(고전10:1, 2, 출13:21, 14:21, 22)
- 나. 레위족속의 세례는 세례 교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예표한 것(출30:17~19)
- 다. 노아의 가족적 홍수의 세례는 각 민족의 구원의 예표인듯(벧전3:21, 행10:48, 16:31~32)
- 라. 엘리사 시대에 나가만의 세례로 나병이 깨끗함을 얻은 것은 세례를 통하여 죄를 씻는 예표인 듯(왕하5:1~14)
- 口.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마3:1~5)
- 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행하심(요3:23)
- 나.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중생의 세례인 것(요3:5, 딤후3:5, 행2:38, 엡4:5)
- ⑧ 성경적 세례와 약식 세례 비교표

종 목	세례 받은 자의 자격	목 적	집 행 자
요한의 세례 (마3:11)	오실 그리스도를 회개한 자 (마3:7, 9 행19:4)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3:1, 3, 요1:1~29)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 (요1:6~33)
고난의 세례 (눅12:50)	예수 그리스도 (막14:62, 15:22, 27)	구세주 되실 준비 (히5:8~9)	그리스도 만여자들 (요7:47~53)
성령 세례 (마3:11)	사도들과 고넬료와 그 가족(행1:5, 2:14) 10:43~48, 11:21~181:8~22, 2:1:42)	그리스도의 교회 창설을 위해(요14:26, 행10:43~48, 11:21~181:8~22, 2:1:42)	그리스도께서 (요16:7, 마3:11, 행2:33)
불 세례 (마3:11)	불 신앙자 미신자 악배(악한무리들) (마25:41~46, 복21:8 살후2:7~8)	영 별 로 (마3:7~12)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7~10)
그리스도인의 세례 (마28:19)	믿고 회개, 고백 자에게 (막16:16, 행2:38, 행8:38)	사회와 구원과 성령 받음 (행2:38, 22:16, 벧전3:21)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28:19, 행8:38~39)

<성경적 세례>

- 7. 물로 행함 (행 8:36, 10:47) — 물을 뿌리며 세례 함.
- ㄴ. 많은 물에서 (요 3:22) — 적은 물로 세례 함.
- ㄷ. 물을 찾아감 (막 1:9) — 물을 가져옴.
- ㄹ. 물속에 들어감 (행 8:38) — 물 밖에서 행함.
- ㄹ. 물속에 장사함 (골 2:12) — 장사가 없음.
- ㅂ. 옛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은 떨하고 죄의 노예가 아니다. (롬 6:6) — 그렇게 될 수 없음.
- ㅅ. 물과 성령으로 중생함 (요 3:5) — 중생 할 수 없음.
- ㅇ. 부활의 모형 (롬 6:4) — 부활적 모형이 없음.
- ㅈ. 몸을 맑은 물에 씻음 (히 10:22) — 머리털만 적심.
- ㅊ. 물 속에서 올라옴. (막 1:10, 행 8:39) — 없음.

⑨ 세례의 어학적 비교와 약식 세례의 시작

7. 성경에 세례란 헬라 원어에 "뱃티조"라고 한다. 말의 뜻은 물속에 (胞胎之意) 둘러싸인 즉 양수속에 들어있는 태아(胎兒)와 같은 것이다.

(뱃티조)란 말이 성서 중에 98회나 기재 되었다.

- ㄴ. 성서에 뿌리는 문자는 헬라 원어에 "란티조"라고 한다. 이 문자는 성서 중에 6차나 기록 하였으나 세례를 주는 뜻은 한 곳에도 없음 (히 9:13, 19, 21, 11:28, 12:24, 벰전 1:2).
- ㄷ. 성서에 부어 주는 문자는 헬라 원어에 「케오」라고 한다. 이 글자가 성서 중에 5차나 기록 하였으나 또한 세례의 뜻은 일호 만치도 없다.
- ㄹ. 약식 세례의 시작은 기원 753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느

<약식 세례>

신부가 그 당시의 법왕인 스티븐 제 2세에게 질문하기를 부득이한 경우에 (병으로 위독한 자) 물을 붓거나 혹은 뿌리는 약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고 물었을 때에 법왕은 성서적 중심은 망각하고 자기 중심의 사상으로 답하기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식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기원 1311년에 르벤나 송교회의에서 이상과 동일한 문제로서 동일한 답의 선언이 있었다. 기원 1641년에 장노파에서 약식 세례로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기원 1643년에 신포파 종교 대회에서(영국 웨스트민스트)약식 세례 문제로 투표한 결과 24대 24로 같은 수로써 그 때 당시 의장인 라일프 드 박사가 약식편에 투표하여 약식으로 가결 되었다. 사단은 개선가를 높이 부른 것이다.

ㄹ. 영아 세례에 대하여는 성서에 의사적 표시도 없다. (종교 의식(儀式)에 의식(意識)이 없게 됨으로)

- a. 영아는 구원 방법 4계단을 이행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 b.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고 (롬 10:14)
- c.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음 (행 22:16)
- d. 주의 탄찬에 참여할 수 없음 (행 2:42)
- e. 영아는 주님이 무죄를 증언 하였음 (마 19:13~14)
- f. 세례에 대한 참고는 사죄에 관계인 고로 (신 1:39, 롬 5:14)

⑩ 사죄 구원에 대한 비밀

인간이 시작 되던 때에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범죄로서 인간에게는 저수 아래서 죄인이 되어 사망에 들어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희생의 피로 구속하는 법을 정하시고 생육을 잡아 그 피로 대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장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여 영을 구원 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구약시대에 명령하여 시행하였고 신약시대 초에 인간들에게 구약과 신약시대 연속적으로 제사장의 계통인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나게 하사 주님 예수의 길을 예비하시되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시어(요 1:33) 세례 요한이 회개와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장래의 노하심을 피하도록 하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족속인 왕족인 고로 제사장의 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레위 족속의 제사장 계통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여러가지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제사장의 계승적인 자격을 완비하시고 세상에 나탕나시어 복음을 전파하사 신앙자에게 직접 사죄(막 2:9~1) 십자가 상에서 최후에 우편 강도에게 까지(눅 23:43) 사죄 하시었다.

## 제 2 절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속의 노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12차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승천하실 시기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명령하시기를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 막 16:16) 하시고 인간의 구원하는 천국 열쇠의 사용 방법이니 지상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마 16:18~19).

### 1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

베드로가 열한 사도(행 2:14)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들은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신앙이 발생하여 그들의 마음에 찢리는 것 같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 더러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

찌랄고? (행 2:37)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요? 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하심으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주일)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행 2:41)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인데 신앙에서 회개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 물과 성령으로 중생 시킨 것이다.

2.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 전도의 사명을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신앙하는 남녀에게 세례를 주었으며(행 8:12)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에서 구스(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신앙 고백 하는 동시에 세례를 주어(행 8:36~38) 구원함을 얻어 기뻐하며 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적인 비밀이니라.

3. 사울의 구원에 대하여 명백히 기록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성서를 보면서도 잘 알지 못하여 질서없는 신앙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구원하신 질서를 잘 생각하면 비밀에 대하여 각오할 수 있다. 사울의 교회 박해는 전도자 스테반을 희생 시키고 오히려 노가 발하여 제자들을 공갈하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고 주의 도를 믿고 따르는 남녀를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성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주 예수께서 빛으로 반사하여 강력한 기압에 알 수 없는 포위 속에서 내상적인 것을 인식하고 주여 누구시오니까? 질문 할 때에 주님은 내가 꺾박하는 예수라 하시며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신앙하게 하시었으니 십자가의 우편 강도와 생전 당시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였다. 낙원에 동거하겠다 하시지

아니 하시고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 곧 회개와 신앙 고백과 세례식을 행할 것을 네가 누구를 통하여 일러 주리라 (행 9:6)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7. 주님이 직접 사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승천 할 때 사도들에게 곧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사죄 구원하도록 제정한 까닭이며 (마 28:18~16, 막 16:15~16)

ㄴ. 주님이 직접 죄사하여 주시던 자기 제자들에게 주었던 전도하여 믿고 회개하게 하여 세례를 주어 죄사하는 구원과 교회를 성립하는 권한을 도로 횡령하는 까닭이다 (마 16:18~19).

ㄷ.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백성이나 군주에게 전하게 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의 희생의 피로 속죄제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통을 구약과 신약시대 연속적으로 제사장 제통과 선지자 제통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제통적으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 인간적으로도 완전한 제통을 받아 선지자와 제사장을 계승하며 천국의 대제사장이 되사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인간인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자격과 제사장의 자격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통을 획득한 구원의 제통을 파괴하는 까닭에 다시 말하면 전통적 순복음주의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통을 파괴하게 됨으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소명하시어 사울을 법대로 구원한 것이다.

ㄹ. 사울은 정통적인 구원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삼위명으

로 세례를 통하여 성립하는 제통인 아나니아 이상 수속을 통하여 주님 당신이 사죄 구원을 결재 인가한 후에 예신하신 외방 사도의 직을 주시려는 직이었다(행 9:15~16).

4. 사울의 정통적 구원이 어떻게 하여서 성취 하였는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이미 사도들에게 제통적으로 주의 사명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얻게 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행 22:16, 9:17~18).

5. 세례는 구원에 대한 성령이요 (막 16:16, 행 2:38) 성령은 신앙상 구원을 보편자이신 선물이다(행 2:36). 성령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할자와 구원한 자에게 임재하신다. 예를 들면 고넬료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시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직 그들에게 사죄 구원이 성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동행한 동역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시행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성립한 것이 분명한즉 전통적 구원의 방법은 성서대로 하는 것이요 성서에서 한 가지라도 빼거나 더 할 수 없는 것이니 믿기만하고 세례를 빼거나 (막 16:16) 믿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거나 또는 카도릭파와 같이 스테분제2세가 성서 중심인 십자가 진리 사장(死難) 부활적 수증 장사 (롬 6:4)의 신앙을 파괴하고 약식으로 변경한 것을 행하거나 또는 성령만 받으면 된다는 오해도 세례가 구원의 관련성이 없이 생각하거나 또는 신앙 회개도 없이 세례만 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정통적 신앙으로는 순수복음적 신앙주의라고 생각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구원의 방법대로 하고 볼 것이다. 구원의 법대로 되지 못하면 불법이다 (요일 3:4). 구원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도 어떠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사귀도 축출 할 수 있고 제반 능사를 행할 수 있다(마 7:22). 그러나 주님은 불법자로 취급 할 것이다 (마 7:23).

## 제 5 장 신약교회에 대한 구약예언

### 제 1 절 교회는 예언 성취이다

#### 1. 구약 신약에 예언이 이루어 짐

- ① 말기에 대하여 (새 2:1, 율 2:28, 히 1:1~4, 행 2:17~18).
- ② 처소에 대하여 (미 4:1~2, 눅 24:46~47).
- ③ 성질에 대하여 (새 22:22, 마 16:19) 천국 열쇠 (행 2:38).
- ④ 기초에 대하여 (새 28:16, 고전 3:11).
- ⑤ 성도의 직분에 대하여 (제사장).  
(히 7:11, 벰전 2:5~9, 록 1:6).
- ⑥ 성도의 명칭에 대하여 (새 56:5, 62:2, 65:15, 행 11:26, 갈 5:24, 벰전 4:16).

#### 2. 탈세 왕국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은 아직도 완전히 다 이루어 지지 않음 (단 2:32~35, 44~45)

- ① 우주의 왕국 (시 50:1~5).
- ② 영원왕의 왕국 (새 9:7).
- ③ 권세의 왕국 (시 2:8~9, 단 7:13~14).
- ④ 영생의 왕국 (시 30:3~4).
- ⑤ 신천 실지 (벰후 3:13).
- ⑥ 평화의 왕국 (시 11:4~12).

### 제 2 절 교회의 모형

#### 1.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예표(창 6:13~22, 행 2:40~47).

(가)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의하여 구원을 받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죄 구원의 예표(벰전 3:18~21).

(나) 방주에 단일 재료는 성도가 일치한 예표(고전 10:17).

(다) 방주의 하나의 문은 구원의 문의 하나인 그리스도의 예표(요 10:7, 14:6).

(라) 방주의 한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표(딤후 3:15~17, 요 1:1~4).

(마) 방주에 들어간 짐승 중 청결한 자는 유대인의 예표요 부 청결한 자는 이방인의 예표.

(바) 폭우 중 방주가 침수 된 것은 세례를 예표(벰전 3:23).

#### 2. 장막도 교회의 예표 (히 8:5).

(가) 모든 제사 형식은 신령과 진리로 할 것의 예표(히 9:6, 10, 요 4:22~24).

(나) 진설병은 주의 만찬의 예표(히 9:2~3, 23).

### 제 3 절 신약에 계시된 교회

#### 1.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엡 2:22~23, 5:23).

(가)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영원함(마 28:18, 히 7:25).

(나) 교회를 그리스도가 자기 몸 보다 더욱 사랑 하심(엡 5:22).

(다) 교회를 그리스도가(마 16:18) 자기 교회로 설립하였고 자기 피의 씻가로 사서 얻었으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 변경할 수 없음(행 20:28).

####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엡 5:30, 골 1:24, 고전 12:12~27, 엡 3:9~12, 벰 1:1, 2:16).

3.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요 3:27~29, 엡 5:22~24, 고후 11:2, 롬 21:9, 22:17). 신부는 신랑의 성을 따른다 (행 11:26, 갈 5:24, 벧전 4:16).

4. 교회는 유일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롬 16:16, 마 16:18)  
그리스도는 하나님 (요 10:33, 20:28, 행 20:28. 고전 1:2, 딤후 3:5, 살전 2:14).

(가) 모든 성도가 (요 17:20~21).

(나) 지상에 있는 볼 수 있는 교회 (요 17:15, 10:16).

(다) 분파는 육에 속한 죄로 됨 (롬 16:16~18, 고전 1:10~13, 고전 3:1~3, 10:15, 살후 2:9).

5. 성경에 계시된 명칭들.

(가) 명칭에 대한 예언 (새 65:15, 56:5, 62:3)

(나) 명칭의 중요성 (새 62:2, 알 9:11~12).

(다) 교회의 명칭에 대하여,

a. 하나님의 교회 (행 20:28, 고전 1:2, 살전 2:14, 딤후 3:5) (계획자).

b. 산 하나님의 교회 (딤후 3:15 <그리스도가 하나님> 요 10:33, 20:28).

c. 성도의 교회 (고전 14:33) (그리스도 내에 있는 성결자들).

d.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골 1:24, 엡 4:12, 1:25) (활동범위).

이상 명칭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6. 처음과 마지막의 명칭은 그리스도의 교회 (마 16:18, 롬 16:16, 엡 5:23) (소유자의 관계).

5. 성도의 명칭

7. 제자 (요 15:8, 행 11:26, 6:1).

ㄴ. 성도 (롬 1:7, 고전 1:2, 행 9:13, 골 1:2).

ㄷ. 형제 (눅 8:21, 고전 15:6, 약 1:2, 벧후 1:7, 행 6:3)

ㄹ. 그리스도인 (행 11:26, 26:28, 갈 5:24, 벧전 4:16, 약 2:7).

ㅁ. 자녀 (갈 3:26).

ㅂ. 명칭을 변경할 수 없음 (히 7:26~28, 13:8).

6.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뿐

7. 믿을 것 (요 20:30~31, 행 8:12).

ㄴ. 고백 함 (마 16:16, 요 1:49, 딤후 6:12~13, 딤후 1:12).

ㄷ. 전 함 (행 2:20, 8:5, 고후 11:4).

#### 제 4 절 교회에서 행사할 성례

1.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 (요 4:24)

① 안식 후 첫 날에 주일에 집회 (행 20:7, 2:1, 41).

7. 주님이 따로 별달리 집회를 기뻐하심 (요 20:19~2, 행 5:12).

ㄴ. 주일을 선포하심 (목 1:10).

② 교훈 곧 설교 함~신약성서 대로 (마 28:20, 행 2:42).

7. 신조와 실행에 유일한 법칙.

(갈 6:16, 딤후 3:16~17, 빌 3:16).

ㄴ. 사람이 만든 유전과 교훈은 죄가 됨.

(마 15:9, 막 7:1~12, 고전 4:6, 갈 1:8~9, 목 22:18~19).

③ 헌금 (교제함).

7. 명 하심 (고전 9:14, 고후 9:6~10).

바치는 법. 실례 (히 7:1~9)

- ㄴ. 권함 (고전 16:2, 갈 6:6~8).
-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에 무엇을 어떻게
- ㄷ. 축복함 (행 20:42, 눅 6:38, 16:9, 마 6:19~21, 말 3:10~12).

④ 주의 만찬 (행 2:42).

- ㄱ. 주님이 시작하시고 유언의 명령을 하심 (눅 22:19~20)
- ㄴ.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함 (눅 22:19~20).
- ㄷ. 주와 동참함 (고전 10:17).
- ㄹ. 하나이 됨 (고전 10:16).
- ㅁ. 신약 (눅 22:20).
- ㅂ. 오실 때 까지 유전 할 것 (고전 11:26).
- ㅅ.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고 부활과 영생에 참여함 (요 6:53~58).
- ㅇ. 떡을 들고 축사함에 대하여 주님의 살을 기념함을 주의 이름으로 축사 할 것.
- ㅈ. 잔을 들고 축사 할 때에도 주님의 피를 기념함을 주의 이름으로 축사할 것.
- ㅊ. 떡과 잔을 각각 분식(分食) 분음(分飲)한 후에 기도에 대하여는 주의 살과 피를 진성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과 부활을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성취 하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할 것.

⑤ 기도 할 것(행 2:42) (개회목도로 부터 폐회 축도까지).

- ㄱ. 예배 순서 종복마다 해당한 기도할 것.
- ㄴ. 주일 예배에는 주의 만찬식인 정식 때 예배인 고로 공중 기도는 장로나 집사가 하고 없으면 진실한 신앙자

중 남자에게 예고하여 준비 하였다가 성의로써 회중을 대표하여 한다 (기타 집회에는 신앙이 충실한 남년도 할 수 있다).

⑥ 찬미할 것 (행 2:47, 히 2:12, 13:15).

- ㄱ.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심 (히 13:15, 2:12).
- ㄴ. 신령한 가곡으로 찬미를 마음 곧 성의로 할 것 (골 3:16).
- ㄷ.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골 3:16).
- ㄹ. 성심으로 입과 혀로서 찬송할 것이다 (히 13:15, 하엿 5:19하). 기계적으로 말 것.
- ㅁ. 주일은 주의 만찬의 예배인 고로 심신(心神)을 성스럽게 또는 경외로서 하나님께 찬미함으로 전성의(全誠意) 중에서 입과 혀와 전신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과실이 되어야 할 것. (히 13:15하) 이다.

그리고 보면 정식 예배시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악기를 피악시 해서는 안된다. 무성의한 것을 기계적인 악기로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찬송 연습시와 아동 주일 학교와 노방 야외, 회당에서도 전도 집회시에 사용금지까지 한다면 구별이 없는 신앙이다.

구약 시대에는 악기를 사용하였다.

악기는 최초로 천사를 위하여 창조 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사 악대를 두시었으나 그들이 불의로 타락하여 악마가 된 것이다 (결 28:13~16).

신약 교회에서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악기

에 도취하여 천사가 향락적인 입장에서 불의로 범죄 함을 인함일까? 구약시대 보다 신약 시대는 기악이 더 발달한 관계상 심신이 악기에 도취하여 성심성의(誠心誠意)를 상실 함인지? 현대 교회에서도 기악적인 찬송은 피동적인 감이고 입과 마음으로 찬송은 자동적인 성심성의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게 될이다(히 13:15).

2. 복음을 전함 (막 16:15, 행 1:8).
  - ① 복음을 전함으로 듣게 됨 (롬 10:14).
  - ② 전도를 듣고 믿음 (롬 10:14).
  - ③ 문서로도 전도하고 회당과 로방에서도 집회 전도함.
3. 교회에서도 사경 공부할 것 (요 5:39).
  7. 주간 중에 2, 3회씩 요주자들에게 교수할 것.
  - 나. 출하추동 4제로 교회 전 신자가 강습하며 일년 일차에 교회들이 연합 대사경회를 할 것.
4. 침수 세례식
  - ①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줄로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막 16:15~16).
  - ②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행 2:38)
  - ③ 신앙 고백 곧 구증하는 자에게 (행 8:37, 롬 10:10).
  - ④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런 후에 집예자가 그 사람을 수중에 장사하되 주와 함께 장사함과 주의 부활과 같이 수중에서 기상하여 세례식을 집행 한다(마 28:19, 롬 6:4).
  - ⑤ 세례 받은 자에게 모든 신앙 생활을 교훈하여 지키게 함 (마 28:20).
  - ⑥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함(행 2:41, 마 28:19).

## 제 6 장 예정론

### 제 1 절 예정에 대한 각자의 설

1. 대개의 예정론을 말하고자 하며 예지적인 하나님의 전지를 말하게 된다.

칼빈설은 예정은 예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정이라고 하였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사람을 예정 하신다」(롬 8:29) 하였으니 예지가 없이 예정 할 수가 있을 리가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학설을 채용한다는 것 보다도 성서적 입장에서 신앙로선을 가르침이다. 그런즉 각자의 학설을 요약하여 말한다.

7. 어거스틴 예정에 대한 설은 인류는 아담으로 인하여 다 타락 하였으므로 행선(行善)의 자유를 잃어 버렸다.

그래서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인정하고 어떤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을 힘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 혹자는 택하고 혹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정하였다. 고로 구원은 시종일관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를 무조건 예정설이라고도 하며 또는 개동설(個動說)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나. 펠라기우스 예정에 대한 설은 인류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의 정력이 필요하지만 각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나 버리는 것은 자유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못얻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곧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어 구원을 완성 한다 하였다.

이 설을 신인공동설(神人共働說)이라 한다.

ㄷ. 반(半)펠라기어스 설. 이 학설은 어거스틴의 공동설과 펠라기어스의 공동설을 조화한 설인데 예정은 조건부의 예정이다.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믿거나 안 믿는 것을 예지한 것으로 기인하여 신앙 하려고 하는 자를 구원 하시는 예정이다. 이리하여 6세기에 어거스틴 대 반(半)펠라기어스설의 논쟁이 심하였으나 필경은 서방교회에서는 극단적 어거스틴설을 용납지 않고 반 어거스틴설 같은 것을 주장 하였고 동방교회에서는 반 펠라기어스설 같은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ㄹ. 루터 예정에 대한 설은 사람은 죄의 결과로 전혀 의지의 자유를 잃었으므로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힘에 의한 것이다. 사람은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신앙까지도 스스로 가질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를 주신다. 이 설은 어거스틴설을 따른 것이다.

ㅁ. 칼빈의 예정설. 이 설은 예정은 예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정이다. 그리스도 속죄도 누구에게든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예정자를 위하여 있다. 의지의 자유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전권을 주로한 학설이다.

ㅂ. 알미니어스 학설. 이 설은 예정은 하나님께서 신앙하려는 자를 예지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코자 예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민에게 미치므로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다. 타락한 인간은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자유에 있다. 이 설은 하나님의 전지를 주로한 인간의 범죄 책임을 추궁하는 학설이다.

## 2. 두 종류의 예정 학설

칼빈파에서도 두 학파가 있으니 하나는 아담의 타락도 예정이라고 하는 자를 서푸랄라푸사리안(Supralapsarian) (타락전 예정설)이라 칭하고 아담 타락 후 부터 예정이다 라고 하는 자를 인푸랄라푸사리안(Infralapsarian) (타락후 예정설)이라 한다.

어거스틴의 예정설은 후자에 속하는데 칼빈은 어디에 속하느냐는 것이다.

칼빈(기독교 요강)에는 전차에 속한 예정설이니 시조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이란 극단적 예정론이요 또는 칼빈이 기초한 「제네바 목사의 일치 의견」이란 책 중에는 후자에 속한 어거스틴설 같은 설이니 시조 타락은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칼빈파에서도 전자 지지자와 후자 지지자의 두 가지 예정설이 있다.

요컨대 어거스틴의 예정설은 인간타락을 기초로한 예정설이요 칼빈의 예정설은 신의 전권을 기초로한 예정설이다. 예정론에 있어서 어거스틴 시대부터 14, 15세기 동안에 논쟁이 그치지 않고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칼빈 주의는 대개 장노교회로, 알미니안 주의는 대개 감리교회로 분열 되었고 근자에 와서는 이 두 종파중에도 그 의견이 불일치함을 느낀다.

그래서 소위 정통 신학이라는 자들도 예정처럼 억측과 회의가 많은 학설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나 학설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한 학자들의 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보면

## 7. 공동설(共働說)

이것은 펠라기어스설과 반(半)펠라기어스설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을 행함이 조화가 되어 공동적 활동으

로 구원을 얻는다 함이니 신의 주권이 침해가 되어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대평가 함이니 취할 바가 못 된다고 하며(?)

#### ㄴ. 개동설(個動說)

어거스틴 설이나 칼빈 설은 개동설이니 우리의 구원은 일원적(一元的)이니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 개동적이니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적이다. 그러나 이 설에 주의 할 것은 예컨대 아담 타락도 예정이라 하여 신의 주권을 고조(高調)하는 반면에 자연히 아담의 범죄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서푸랄라푸사리안적인 극단 칼빈주의자 학설을 경계할 것이요 어거스틴설이나 루터설이나 온전한 칼빈파의 예정설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 ㄷ. 예지 예정설.

알미니어스설은 예지예정이니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하였으니 무조건 예정이 아니고 조건부의 예정이란 평을 받는다. 동시에 인간자유 의지가 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니 잘못 해석하면 구원의 조건이 인간의지에 있음 같이 된다. 그런 까닭에 반(反)칼빈설이 된다. 그러나 자세히 연구하여 보면 칼빈의 하나님의 전권 대신에 알미니어스는 신의 전지를 논함이며 칼빈의 율법적 대신에 알미니어스의 복음적이며 칼빈의 의지적(意志的)교리 신앙론 반면에 알미니어스의 감정적 정서(情緒)신앙론이며 극단 칼빈파에 인간 범죄를 신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반면에 알미니어안파는 인간의 범죄는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학설이다. 다시 말하면 알미니어안파에 주의 할 것은 범죄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려 하다가 켈라기어스설 같이 구원도 인간 자유의지에 있다고 하면 인본주의로 흐르기 쉬운 것이니 경계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지 하심으로 인간의 운명 여부를 절대로 예정하셨다면 성서적일 것이다. 칼빈도 알미니어스도 인

간인 동시에 모순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권과 전지를 고조함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전권에 순응하는 것 뿐인 학설이니 큰 착오는 없는 줄로 안다.

#### 제 2 절 성서의 예정론

이상 학자들의 예정설을 상고하는 동시에 성서를 중심으로 예정론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예정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살후 2:13)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심」(눅 6:13, 요 6:70)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울) 나의 택한 그릇이라」(행 9:15) 「그러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되니」(골 3:12)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신 7:6~7). 바울사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삼으셨으니」(엡 1:4~5)하였고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벧후 1:10)하였고 예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마 22:14)하였으니 우리의 구원이 예언이나 인간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예정에 기인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매 예정도 불변 하신다(구원의 예정).

#### 제 3 절 예지와 예정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 하신다」(롬 8:29)하셨으니 예정이 하나님의 전권이라면 예지는 하나님의 전지이니 하나님께서 모르고 택하셨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만일

인간의 행동이 예정의 조건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보아 예정은 무조건이다 또는 절대적이다. 만일 사람이 선행하는 것을 알으시고 택하신다면 이것은 예정이 아니고 후정이 될 것이니 이설(異說)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택하심은 천부께서 예지 하시고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사 순종케 하며」(벧전1:2) 하였으니 인간은 타락자인으로 선을 행할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하게 하사 순종케 한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심으로 인간의 운명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으니 이는 기계론적이나 혹은 숙명론적이나 극단론적 예정론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 의지도 시인(是認)하는 동시에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일남 일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복하고」(창 1:27~28)하신 것은 사람을 흠으로 창조하시기 전의 예정이시다. 무죄로 조성 하시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말라 하신 것은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시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니 범죄는 인간 자신에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완전하게 조성하셨으나 그 중에 불의함이 노출하여(겔 28:15) 마귀가 된 천사는 아침의 아들 곧 명광진성(明光辰星)으로 예정 하였던 것이나 하늘에서 떨어졌으니(새 14:12) 천사의 범죄(벧후2:4)는 하나님께 책임이 없고 천사 자체에게 있는 것이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여러 제자 중에 12사도로 택정하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는 반역죄를 범하였다. 이것 역시 범죄 책임이 주님께 있지 않고 오직 가롯 유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즉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택정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

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히 여기지 않은고로 버렸고(행 13:46) 이 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함으로 영생을 택하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하였으니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행위 노력을 각각 극단적으로 하면 문제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다.

천사이든 인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결론은 하나님이 예정 중에서 인간을 창조 하시었으나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지상에 인간을 조성하심에 대하여 탄탄하시고 근심하시었고(창 6:6) 주 예수께서도 여러제자 중에 12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를 삼으셨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사단의 제자가 됨으로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잡아 주는 자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이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 하였다」(막 14:20)하시었다. 그런즉 우리들의 범죄 책임을 예지 예정을 고조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조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범죄는 절대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예정의 구원인 은혜를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구원하심 예정 중에서 탈출자는 예정을 파괴함이니 범죄까지 예정에 책임을 전가 시키지 말 것이다.

## 제 7 장 성서론

### 제 1 절 성서의 의의

1. 성서의 의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아버지의 말씀이니 진리인 것이다(요 17:17).

(1) 성서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증명하였음(딤후 3:16, 벧후 1:21).

7. 구약 각 책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였음(새 8:11, 출 33:11, 히 1:1~2, 엡 3:3~5, 살전 2:13)

나. 신약성서 중에도 증거하였음(마 10:19~20, 눅 21:14~15, 요 14:16~17, 16:13, 14:16, 고전 2:10~12, 갈 1:21~22)

(2) 성서란 말이 영문으로 바이블(Bible)이니 이것은 헬라어에 뵘블로스에서 온 말이니 뵘블로스는 타-뵘블리아라는 말이니 탁월한 서적 곧 거룩한 서적, 하나님의 책이라는 말이다.

그런고로 유일무비(唯一無比)의 뜻으로 바이블이라 한다.

(3) 성서는 신의 기록이란 영어에 스크립쥬어(Scriptures)이니 라틴어 스크립투라에서 온 말인데 헬라어에는 그라파쓰이다.

이 뜻은 "기록"이란 뜻이니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란 말이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도 종종 기록 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용하신 것이니 성서는 신언 필기이며 예수님의 언행록이요 성령의 계시록이다.

(4) 성서는 신앙의 표준이다.

헬라어에 카논(Canon) 곧 경전(經典), 성전이라 하였으니 그 뜻은 척도표준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앙을 행하는 척도이다. 성서대로의 신앙이 정통이요 성서대로 행하는 것이 도덕의 표준이다. 그리하여 아무리 신조와 조직이 좋을지라도 성서교리에 기인하지 아니하면 이단이요 사설(邪說)이다.

(5) 성서는 하나님의 계약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니 헬라어에 디아테케 히브리어에 베리드이니 그 원래의 뜻은 혈조약(血條約) 혈맹약(血盟約) 단(團)이란 것이다(출 24:8).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 약속한 말씀이니 영원불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니 구약은 짐승

피로 조약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조약하신 말씀이니 이는 인류구원의 피의 조약이다(눅 22:20). 성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와의 피의 조약이요 예수께서 우리와 피로 연합된 혈맹체(血盟體)이니 구약이란 말씀은(고후 3:14)신약이란 말씀(눅 22:20)에 나타 났으나 구약이라 신약이라는 사용은 기원 190년에 테트리안제가 사용하였다. 그런고로 천지는 변할 지라도 그 말씀은 일절일획이라도 변치 아니 하나니 이 혈약속인 신의 말씀인 까닭이다.

(6) 신기(神奇)한 통일성인 성서이다.

3대륙관내의 15개국에 살고 있는 42인의 기자가 1550여년 장기간에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기록한 바 하나님이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한 문제 등 중요한 교리상 통일성이 있는 저자가 하나님신 하나님의 성지를 다수 기자가 일치 순응한 것이다.

7. 목적의 통일은 인류를 구원함인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려 함이요.

나.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함이다.

다. 인간의 태도에 통일에도 사람을 미워함이 없으며 해롭게 하지 아니 함이요.

로. 신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정죄함이다.

(7) 세계 대문제의 해결에 몇 가지였다.

7. 창조에 대한 것(창 1:1-)

하나님에 대한 것(딤후 1:17)

나. 죄악의 가치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롬 6:23)

다. 멸망과 영생에 대한 것(요 3:16, 5:28~29, 6:40, 롭 21:3~4)

(8) 각양 시험에서 실패치 않은 것이다.

7. 천문학상 시험

기원전 150년에 히파키스는 별의 수 1,022개로 계산하고 기원후 120년에 탈레미는 별의 수를 1,026개로 계산 하였고 금일에 작 천 문 학자는 망원경을 통하여 천체에 별수가 무수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벌써 수 천년 전에 하늘의 별은 무수하다고 증언 하였다(창 15:5, 22:17).

#### ㄴ. 과학 시험

약 800여명의 과학자 회의에서 성경중에 자연계에 대한 기록은 모순이 없다고 하였다.

#### ㄷ. 고등 비평가의 시험

기원후 1771년에 이태리 사람 셸씩스란 자는 동정녀 탄생 이적 과 부활등을 공격 하였는데 오리겐씨는 충분한 답변을 하였고 1778년에 무신론자 불란서 사담인 발태어는 자기가 죽은 후 100년 경에는 기독교 문헌이 멸종하리라고 예언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발태어의 주택에 성경문고로 사용하고 있고 또는 그 후 무신론문을 출판하던 출판소는 기독교 문헌 출판소가 되고 있다.

#### 제2절 성서의 영구성(마 24:35)

자기 민족의 역사가 오래면 오래수록 그 연원(淵源)이 깊고 긴 강이 길면 길수록 그 배경되는 원천이 없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성서와 같이 장구한 역사를 가진 서적도 없고 진서도 없다. 그리 하여 성서론에 있어서 그 배경을 먼저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 기원은 모세의 기록부터 시작 되었으니 지금부터 약 3400 여년 전에 나타 났으니 약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보서(寶書)이다. 그러나 인류는 모세 전 2500여년 전에 세상에 있었으니 이 2500년간은 성서 기록에 증거가 도무지 없고 아담부터 모세까지 2500년간은 저의 기록이 선조들 곧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같은 인물들이 직접 신의 명령을 종종 받았으나 이 신의 말

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은 때는 없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2천5백년의 장구한 사실을 기록하였을까? 여기는 신의 배경과 고서등이 있으니 몇 가지를 참고 하기로 한다.

#### 1. 고서와 비문

모세는 성령의 지시를 고서 중에서의 애굽과 바빌론에서 많이 발견한 비문에서 선택하여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다. 고고학에 의 하면 이 비문은 흙으로 만든 사각형의 것인데 문자를 조각하여 일광에 말린 것이다. 그 예를 들면 1901년 12월에 파사 수사사에서 흑석원수를 발굴 하였는데 가장 오래된 문자로 썼으니 이것은 고 바빌론 캄라비 황제가 지배할 때의 법률이었다. 수산시는 구약(느헤미아 1:1)에 수산도성이요 캄라비는(창 10:10) 시날왕 아므라벨이라 한다. 이 법률은 모세의 법과 서로 비슷한데 이는 아담이 그 자손들에게 법을 전하여 준 것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수년전 베루아(창 10:10)에 기록한 시날, 갈베 중 작은 산에서 점토비문을 발견하였는데 노아의 홍수와 그 방주의 사실을 자세히 기록 하였다고 하였다.

이것 등 고고학적 증거는 성경기록에 좋은 배경이 되며 성경 연구에 좋은 재료가 되었나니 모세가 계시로 취사선택한 기록에 배경이 된 것이다.

#### 2. 전한 말

뿐만 아니라 모세 전에 여러 인물들이 계시를 직접 받았고 또는 아담부터 자자손손이 신의 계시를 문자 보다는 입으로 전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 하였고(창 2:16) 아담은 가인에게 말하였고(창 4:6) 그 아들들을 통하여 노아에게(창 6:13) 그 자손은 아브라함에게(창 12:1)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이굽은 요셉에게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서 모세까지 전해진 것이니 비록 2500년의 긴 역사라 할지라도 당시 사람들은 구백세 내외를 살았으니 불과 몇대가 못 되는 것이니 비록

전래된 말이더라도 확실한 사실인즉 예를 들면 안식일, 결혼, 제사 등의 일이나 예멘동산부터 전래된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될 걱정도 없고 사실 그대로 신의 명 그대로 전언 된 것이 모세의 기록에 배경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 3. 계시

이제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모세 이전의 사실이 고문전언으로만 배경이 되었다 하여도 성서에 천지창조와 및 개조며 인류의 기원 등 여러가지 사실이 확실한데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기록한 것이니 여러 선지자들이 수백년 수천년 후에 될 사실을 예언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기록을 명하실 때 과거 사실은 계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미래의 일을 계시하신 동시에 과거일도 계시하신 것이니 모든 성경은 하가님의 계시하신바니(딤후 3:16)성서 기록에 유일한 배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 제3절 성서의 기원

인류사상(人類史上)에서 최선인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으로 인연을 두신 것이다.

#### 1. 선민

인류역사는 흑백·양선으로 분리되었으니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구별되었고 아벨의 계통인 셋의 자손으로 에녹에 도달하여 성스럽게 되고 그 후에 노아가 의인으로 홍수의 구제를 받았다. 따라서 선택된 민족 중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으니 저는 우상도시 갈데아우르에서 나서 자랐다. 유일신 사상이 강한 저를 선택하여 세계 중심지 팔레스타인으로 인도 하시어 개명하여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세워 12지파 조상이 되게 하고 선민을 삼았으니 이는 유일신 종교를

주시고자 섭리하고 특별히 성스러운 말씀을 맡기실 예정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선민이라 여호와는 세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신 14:2)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증거 하신 것이다. 여기 커다란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니 그 택한 이유는 선민에게 계시를 주시고 지키라고 위임하신 것이다. 바울은 일찌기 말하기를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부탁한 것이다.」(롬 3:2)하였고 모세는 말하기를 은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밝히 드러난 것이 우리와 우리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것이니라(신 29:29)하였으니 먼저 율법을 저희에게 맡기심은 성스러운 민족인 연고요 또는 보수성이 강한 민족인 까닭이다. 동시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4)하셨으니 성서를 저희에게 맡기실 뿐 아니라 선포할 권리까지 허락하셨으니 성스러운 말씀의 기원은 선민에게서부터이다.

2. 모세,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은 후 오백년을 지나 모세는 신의 명령을 받아 성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니 스테반은 최후 설교에 모세를 가리켜 「시나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함께 있었으며 우리 조상과 같이 있으며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행 7:38)하였고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 이들을 천하에서 제거 하리니 너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책에 기록하며」(출 17:14)하였으니 처음에는 모세의 손을 통하여 쓰셨고 다음에 예언자나 사도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1500년에 걸쳐 계시록까지 완성하였으니 성서의 기원은 모세부터이다.

#### 3. 하나님

성서의 근본 기원은 하나님께로 인한 것이니 처음에 말씀하신 이가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 법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지요

가죽옷을 입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종교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그렇다고 하면 종교의 계시 되는 성서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기록하셨나니 (출 31:18) 성서의 기원은 하나님께로 부터이니 성서의 배경이야말로 참으로 본분하고 훌륭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서는 그 배경이 인간의 머리로 기원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부터 기원한 천서이니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복음이다.

#### 제 4 절 구약과 신약의 지위론

##### 1.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관점인 구약의 지위

구약은 예전대 성광과 월광이요 신약은 태양 곧 일광이다. 구약,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인류의 유년기를 위한 교훈이요 신약은 장년시대를 위한 교훈이다. 그러므로 구약 말씀을 신약말씀과 같이 응용하려 할 때에는 오해되는 일이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전쟁문제 노예제도 육식문제 등등은 구약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신약시대에도 응용 하려고 함은 불합리적이라고 본다. 전도자들은 주일 설교제목을 구약에서 택하는 것 보다 신약에서 택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구약 역사 및 인물 전기는 실례로 사용 할 수 있다. 신약 교회 환원 운동자들은 신약 대신에 구약제목 사용을 불찬성 하였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서 및 시가서 등은 중요하게 취급 하였으며 율법 및 성취된 예언서 대신에 사도행전을 중요시 하였다.

캠트벨은 이와 같이 넷으로 분석 하였다.

즉장시대는 성광이요 모세시대는 월광이요 세례 요한 시대는 계명성광이요 주님 예수시대는 태양 일광이라 하였다(눅 1:78).

##### 2.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인 신약의 지위

신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성질을 마지막으로 가장 완전하게 출현 된 것이다. 신약은 전 인류 구속의 정상점(頂上點)이

다(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사랑을 최종 완전하게 나타 내었다. 신약을 떠나서는 구약이 무의미 하게 된다. 장성한 사람은 유년시대의 일을 잊어 버리는 법인데(고전 13:11, 엡 4:13~14) 신약 완성시대에 구약 유년시대로 귀기하면 하나님의 경운은 틀려지는 것이다.

##### 7. 신약전서 내용

###### 가. 신양하여야 할 사실

예를 들면 다수 중에 몇 가지만 들면(요 3:16, 1:1~4, 3:36, 요일 5:10~13, 마 16:19, 히 11:1, 롬10:9~10, 요 14:1~3) 나. 순종 하여야 할 명령(마 28:18~20, 눅 22:19~20, 마 7:12, 8:22, 막 16:15, 요 14:14, 15, 15. 골 3:17, 목 2:10) 다. 사랑하여야 할 약속(히락)(행 2:38, 요 6:54, 58, 목 2:17)

라. 주의하여야 할 경계(눅 13:3, 마 25:13, 목 2:5, 16. 2. 눅 12:9~10)

###### 나. 신약전서 구분

가. 사복음서~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나. 사도행전~그리스도의 교회 설립과 발전  
다. 각 서신~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법칙  
라. 예언(계시)~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와 신앙생활 격려

#### 제 5 절 구약오경에 고등비판

이 비평가의 시조는 불란서의 궁중 시인인 아스츄릭(Astruc)이란 자니 기원 1753년경에 창세기 중에 하나님을 가르쳐 엘로힘 여호와라 하는 두 말을 사용하면서 연구에 관한 것을 잡은 것인데 그 후 서서히 그 비명이 진행이 되어 오경 기원에 대하여 후에 다섯가지 종류의 학설이 출현한 것이다.

### 1. 구문서 설

전술한 아스추릭을 시조로한 구약총론 제 2권 (1787) 서문에 처음으로 고등비평이란 말을 사용하였고 이 말을 독일 예나대학 존·트프리트, 아이치 호프 및 그 후계자 다비드·일젠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고 창세기 배경에는 여호와 문서와 엘로힘문서의 2대 재료와 수개의 적은 단편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니 이를 구문서 설이라 한다.

### 2. 단편설

이는 영국의 알렉산더 갯더스의 설이니 그는 먼저 5경 비평의 범위를 종래와 같이 5경에만 한한 것이고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6권이라 고조하여 이것을 6경이라 새로운 말을 사용하였는데 6경에 대한 연구 결과 (1) 저자는 모세가 아닌 것 (2) 쓴 장소는 가나안인 것 (3) 그 연대는 다윗 이전이 아니고 기원전 1,000년으로 700년경인 것 (4) 그 편찬한 재료는 상호 연쇄관계가 없고 무수한 단편으로 되었다는 것이니 이것을 단편설이라 한다.

### 제 6 절 보충설 (補充說)

독일의 데윗티 (W·M·L·Dewette) 의 제창한 것인데 (1708년) 이 설은 단편설과 전연 반대로 5경 기초 전에 기초적 문서와 원시적 서라고 하는 중심재료를 인정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종종 보충하다가 최후에 여호와 기자의 편찬으로 현재의 5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기초적 문서는 종래의 엘로힘 문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윌티의 말에 의하면 유대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서는 신명기라고 단정할 것이다.

### 4. 신문서 설

이 설은 독일의 헬만·후펠드 (1853) 와 남아프리카 주재의 폰코텐소감독의 설인데 후펠은 첫째로 일겐이 분할한 것 같이 엘로힘 문서중에는 확실히 두 종류가 있고 둘째로 보충설에 여호와 기자가 기초적 문서를 보충했다는 것은 오페인데 이 양자는 상호 독립적으로 기록하여 오랜 후 신명기 등과 같이 합하였다고 하는 2종(種)의 책으로 단정하였다. 이 설이 접진적으로 고조되어 5경의 4대재료가 배경이라 하는데 즉 두 종류의 엘로힘 문서, 여호와 문서 및 신명기인데 이 중에 두 종류의 엘로힘 문서는 현금에 제사전 문서 및 엘로힘 문서로 진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에 이것 등의 4대재료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제사전을 P, 엘로힘을 E, 여호와 문서를 J, 신명기 문서를 D라 약술하였다. 이 설을 신문서설이라 한다.

### 5. 발달설

이것을 혹은 그라프 (Craf) 설이라고 하나니 저는 스타라스·뿌루그의 교수 에드워드·로이쓰의 설을 계승하여 이상 4대재료를 그 사상을 발달된 순서에 의하여 연대적으로 연구에 출발점을 신명기에 두었나니 신명기의 연대에 대하여서는 당시 학자들의 일치 사상이었으니 (요시아 왕 18년) 이것을 표준으로 5경 내용을 연구하여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에 의하여 신명기 전의 것이라 신명기 후의 것이라고 나누었다. 그 결과 기초적 문서는 역사적 부분과 (현재의 E) 율법적 부분 (현재의 P) 으로 2분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재료 문서는 첫째로 기초적 문서에 역사적 부분, 둘째로 여호와 문서 셋째로 신명기의 순서로 하였는데 이것을 신명기 기자가 편찬하였고 넷째로 에스라가 기초적 문서에 율법적 부분을 더하여서 현재의 5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발달설이라 한다.

### 제 7 절 오경기자 모세에 대한 반대설

5경이 모세로 부터 기원하였다는 의문은 기원 제10세기 이후인 데 이에 신구자들 중에는 유대인측으로 몰레도 이삭 (982) 기독교측으로 있던 베루퍼 대학에 칼스뎃트 (1521) 카톨릭에는 안드류·듀메쓰 (1752년) 등인데 그 외에도 많은 학자가 있다. 특히 영국의 철학자 홉스·유네에 대한 반증론으로 4종류의 사실을 논하였다.

### 1. 역사적 반증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5경중 11차나 있는데 그 중 (창14:14) 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러 단까지 갔다는 구절이 있으니 단의 본명은 **타이스니** 이 명은 12지파가 가나안 점령 후 단지파가 라이스 점령 후 단이라 그럴다면 모세의 저술이 아니라는 것을 인용한다.

2. 특수 기사를 보여주었는데 2차나 기록되었다는 것 (민22:14, 신27:2)

3. 상호 모순되는 바가 2차 있다는 것 (신6:1-8) (對신3:6 8:14) 기타 (출4:20 對출18:2이하)

4. 모세 자신에 관한 것이 3차 있는데 예를들면 민12:3에 「모세의 사립됨이 천하만민 보다 심히 겸손한지라」 하였으니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쓸리가 없다는 것이요, 또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이니 죽은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죽은 사실을 기록하겠는가 하는 비평이니 이런 모든 사실을 연구할 때에 5경은 모세의 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 제 8 절 성서가 본 오경 기사론

이상과 같이 모든 학자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 아담부터 모세에 까지 2천 5백년의 역사적 사실을 어디서 취재하였을까? 그런데 문자가 있다면 애굽이나 바빌론의 역사에서 취하지 않았을까

! 물론 이상의 말한 고서나 비문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 범문이 오경과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신화나 전설에 불과한 것뿐이요, 성경 개권 창세기단 연구해 본다면 신화류와 상이한 것은 극히 소수요 원리원칙 단순명백한 지식을 주는 역사를 쓰는 것이 분명하니 이에 이상 비평론을 검토하고 고치면서 5경기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4경고등비평에 대하여 학자들의 다섯가지의 설이 있으니 구문서설, 단편설, 보충설, 신문서설, 발달설 등으로 5경을 비평하였으니 이는 단순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문서로 5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평이 가해진 것이다. 물론 5경편찬 전에 구문서나 단편서가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취재했다 하더라도 그 고문서는 어디서 발원하였는가? 아담의 **자손일테니** 하나님께서 계시한 문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기사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역사적 사실을 취재편찬 하였다면 잘못된 점이 무엇일까? 또는 신문서설이니 보충, 발달설이니 평하니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서 그 계시가 보충 혹은 진보되었을까? 이는 성경 파괴의 불신학자들의 비평이니 단연 거절하여야 된다.

둘째로 5경기자 비평이니 이에도 4가지 설로 모세를 부인한다

1. 역사적으로 부인 하나니 예를 들면 창14:14에 「단」에 대하여 이는 가나안 점령후에 지은 이름이 분명하다 (사사기18:29)

2. 특수기사를 나타낸 것도 분명하다 「여호와의 전쟁사라」 (민21:14) 하였다.

3. 서로 모순된 기사가 있다는 것.

4. 모세 자신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것.

이상 사실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에 후에 작명한 지명「단」이 창세기에 있으니 이는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는 후에 번역자들이, 민중이 밝혀 아는 「단」이니 라이스라

하면 모를 터이니 지명을 밝히기 위하여 「단」이라 하였는지 혹은 모세가 장차 작명될 것을 계시로, 예언으로, 지시 받았다고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 특수기자를 말하니 모세도 감동으로 당시 고문을 인용하였을 것이고 서로 모순기사란 말은 문구가 다소 다르다고 해서 모세 한 사람의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니 주체되는 내용이 변할 없으니 평할 바가 못되며 또는 모세 자신이 기사에 대하여도 비록 모세가 기록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대로 쓴 것이니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 뿐이요, 또는 모세의 죽음의 기사도 죽음에 대한 예언인 줄로 안다. 요셉이 애굽에서 죽기전에 수백년 후에 될 출애굽시에 유골에 대하여 예언한 것과 같은 것들이다. 한 말씀이 폐지하고 신약에 모든 유대의 학자들도 모세의 글이라 하였고 주 예수께서도 모세의 법이라 하였으며 여호와 직접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계속하여 있다. 이렇게 뚜렷한 성서의 증거를 학자들의 말에 의하여 의심할 것인가? 다시 고조하느니 성서는 신의 말씀 그대로이다. 만약 평론가의 말대로 열왕시대의 어떤 학자가 썼다고 하면 문장의 증거로도 불합하느니 ①신명(神名) ②도명(都名) ③예배법(禮拜法)이 열왕시대에 있던 것인데 모세오경 중에는 1차도 없으니 열왕시에나 그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님이 오경자체가 증명하는 바이니 우리는 모세의 작으로 확신한다.

### 제9절 성서의 원본과 사본

성서에 대한 원본과 사본문제에 종종 이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성경 중에 아주 적은 문구 중에 오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니 또는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헬라어 신약서 중에는 1권이 중에 단 한번, 히브리어 구약서 중에는 1권 3백어 중에 단

1차에 오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원본과 사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경에도 오자가 있다는 설을 주장하는 비평자들에게는 언질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원본

구, 신약 66권 중에는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구약에 대하여는 유대의 학자들이 계속하여 성서의 중대성을 느껴 심분 주의하여 그 문자의 수까지 원본과 같이 기록하였으나 이것 역시 세구년심(世久年深) 하여 혹은 낡아지기도 하고 혹은 전쟁과 박해로 인하여 소각되어 최초부터 원서는 점점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신약전서가 기록될 때에는 구약은 이미 사본만 남아있었으나 제 2세기 간에 의하여 금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서가 된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어 구약서의 사본은 헬라어로 번역하여 셉투아진트(Saepuagint)라 하였는데 이와 함께 신약서의 저서로 27권을 헬라어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 헬라어 원본도 수백년간에 전부 없어지고 근래에 남아 있는 것은 전부 사본 뿐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종종 비밀이 있으니 크리스마스 일자를 감추심과 같이 원본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나 감추심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만일 모세나 이사야, 에레미야나 바울이나 요한의 친필로 기록한 원본이 있다면 우암(愚暗)한 인간들이 미신으로 하나님의 주신 계시인 줄 분별치 못하고 성서를 일종의 우상화 할 우려가 있는 연고로인 듯 하다. 성서엔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였다. 모세가 만든 구리 뱀을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 사실이나 또는 기드온이 만든 금에봇을 백성들이 신으로 섬긴 일 등이니 인간들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변하여 우상화 하는 예가 있는고로 원본도 감추심이라고도 본다.

## 사본

이상에 논한 바와 같이 원본이 없어졌다 하여 조금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비록 원본은 잃어버렸으나 우리 신앙에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고사본이 얼마든지 있는 까닭이다. 금일 학자들은 이것을 원서라 칭하는 것인데 그 대다수는 구라파 여러 국공립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고 그 외 수천부는 유명한 박사들의 도서관에 있으니 예를 들면 가스텔박사의 서고에는 히브리어로 등사한 구약성서가 팔백종류 이상이나 있다고 하며 또는 1894년에 출판한 신약전서 서언중에 스크리펜나 박사는 신약사본이 약 4천종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에 있는 구약적 사본의 상태를 논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7. 구약전서 히브리어 사본은 기원 7백년에 등사한 것.
- 나. 신약전서 헬라어 사본은 최고의 것은 4세기에 등사한 것.
- 다. 구약전서 헬라어 번역 (70인역)은 주전 277년에 번역한 것인데 이것을 등사한 것은 3세기의 것.
- 르. 4세기에 성서전부 또는 몇 부분을 여러나라가 따로 번역하였는데 헬라어 수리아어, 에디오피아어로 번역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서를 등사한 유대의 학자들은 최대 주의(注意)를 더하여 말의 뜻과 글자수를 정밀히 세고 그 사본에 한 자라도 틀리면 전부 버리고 다시 고쳐 쓴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혹 중이에 쓰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에 썼다고 한다. 이렇게 저들이 신중을 가함은 성서는 돌도 없는 보석로 존중히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오류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구약을 등사함에는 아래와 같은 규칙을 엄수 하였나니 먼저 제사장이 등사 허가한 성서를 정결한 동물의 가죽에 특별한 먹으로 쓰는데 등사자는 그 글

을 쓰기전에 고성대독하여 기억된 부분을 쓰는데 신의 이름을 쓰기 전에 붓을 깨끗이 닦고 쓰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쓰기 전에는 신체전부를 목욕하고 쓴다고 한다. 이것은 학자들의 불결로 신의 성스러운 이름이 모독될까 염려함이라. 등사가 끝나면 검사 조자가 세밀히 조사하며 한 자라도 오자가 있으면 전부 불태워버린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예를 들면 췌, 뵤, 스미스씨는 어떤 라비가 성서를 등사하는 학자를 권하여 동작에 주의를 가하라 이 동작은 하늘의 기량이기 때문이라. 한일 한 자라도 실수하면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 하였으나 그 등사는 마침내 오류를 내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등사에 인간이 활동한 연고이다. 인간의 활동은 불완전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령 왕 하8:26에 아하스왕이 즉위시에 22세와 대하22:2에 42세라는 상위될은 분명하니 이는 원본의 오류가 아니고 사본이 착오일지라도 성서의 문자를 존경하기 때문에 감히 정정하지 못하니 과거 유대 학자들도 그렇고 금일도 그렇다. 본래 히브리 문자에 "20"이라는 글자와 "40"이라는 글자가 대체로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위변됨을 내게된 것인데 열왕기에 22세가 정확한 일이다. 그것은 아하스왕의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었는데 그 아들 아하스가 부왕이 죽은 같은 해에 즉위한 것이 사실인데 즉위시에 42세라고 하면 부왕보다 2세가 더 많은 것이 되니 열왕기의 22세라고 함이 정확하고 대하22:2에 42세라고 적은 것은 오류가 분명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등사하는 학자들의 실수이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고 따라서 히브리는 처음 시기에는 자음만을 문자로 사용할 뿐 아니라 글자사이에 간격(Space)이 없이 이어서 글씨를 썼던 것인데 기원전 500년경에 유대인이 바빌론 포로로 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비로소 구약문구에 간격을 두는 것을 사용하여 절과

구를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에 옛날 페니시아 문자의 대용으로 사각형 문자로 기록하였던 것이라고 하는데 그 후 기원 500년에 모음을 사용하여 비로소 히브리 문자의 모음이 되는 절을 사용하여 등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이베리아스라는 곳에 성경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 성서를 수집하여 정밀하게 비교한 다음 일치하게 표준을 정하고 이것을 쓰기 위하여 옛날에 전래한 성경등사 규칙을 지키어 한편으로 등사한 것인데 이것을 「맛소라」 곧 전해 내려온 책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모음을 기록하여 넣은 성서를 맛소라틱 성라서고 칭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히브리 문자는 서로 비슷한 절이 많아 인쇄에는 물론 등사에도 틀리기가 쉽고 또는 오랜 세월 동안을 그 책이 유전되어 왔으니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극히 소수라고 하는 것이니 진실로 하늘의 책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옛날부터 금일까지 많은 성서에 사본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항상 보존하시며 엄수하여 주신 것이 비록 원본은 없고 사본만이 현재에 있어 진리 가운데 우리 인류를 들어가게 하여 구원하신다.

#### 제 10 절 성서 원어론에 대하여

세계 각 민족에 원어를 소구(溯究) 함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나 유일의 분명한 사실은 바벨탑 사건인 탑을 세우는 시기까지는 한 언어요 같은 발음이었으나 그 후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동서사방으로 흩어진 민족이 각기 서로 다른 발음과 다른 말의 방언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일된 방언을 혼잡케 한 까닭이다. 그리하여 현재에는 약 2,000여 이상의 방언이 있다고

키스트박사는 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노아 이전에 사용하던 통일된 언어는 현재에는 도저히 알길이 없으나 다만 갈대아비문에 의하면 이것은 노아 방주 때까지의 기록인데 이 비문을 운명의 비문이라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비문은 노아 이전에 목시 받은 비문이라 하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 여러 박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 최초로 문자는 상형문자 라고 하는데 1915년경에 바빌론에서 최고 제단석(祭壇石)을 발견 하였는데 이상에 말한 상형문자로 기록한 것을 현재 런던 박물관에 비치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옛날에 갈대아 나라를 둘로 나누어 남쪽을 쥘미아라 한 바 남바빌론을 말함이고, 북쪽을 아가트라 하였는데 북바빌론을 말함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신알평지 (창 11:2)라고 하였다. 그 방언은 슈메로아가덴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이 바벨탑전 통일어라고 생각하며 또 그 문자형은 활(弓)형의 그림으로 그 사상을 발표하였는데 그 후 사각절토형(四角粘土型)의 문자를 사용하였다 하는데 1895년경에서 부터 지금까지 바빌론 고지에서 이와 같은 비문을 다수 발굴하였다고 한다. 또는 장래도 더 많이 발굴될 것을 알고 있다. 여러 박사들은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언어는 슈메로아가덴어로 생각되며 이 방언이 아브라함시대까지 사용하다가 그 후에 전폐되어 단 여러 대학에서만 연구하였고 그 후 느브갓네살왕까지는 세미깃 바벨논어를 사용하였다 한다. 여러 박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주한 이후로는 고국어를 버리고 가나안어를 사용하였으니 이것을 히브리어라 하였으니 현재 런던 박물관에 텔엘아탈나에서 가져온 비문에 의하면 아브라함 후 400년경에 쓴 비문인데 히브리어로 썼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나안어를 히브리인들이 사용한다고 히브리어라 하였으니 히브리어는 유대 나라가 바벨논으로 잡혀 갈때까지 사용하다가 그 후에 전폐되었고 그 후에는 아리메익어를 사용하여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계속하다가 그 후에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구약에는 예레미야 10:11, 다니엘 2:4, 7:28, 에스라 4:8, 6:15까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히브리어로 썼다. 이상 3서 구절은 아라메어로 썼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일차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별로 특별한 이유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한 가지 생각된 것은 (렘 10:21)은 갈대아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반대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갈대아에게 이해하기 쉽게 쓰느라고 갈대아어 곧 아라메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다니엘서에도 바벨론나라에 정치적 보고서로 쓴 것이므로 그 때에 사용하던 아라메어로 쓴 것으로 인정되며 에스라서에도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십새가 파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보낸 서신임으로 아라메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된다. 그러므로 그 외는 전부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하였다.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히브리어는 전폐 되었고 헬라어가 유행 되었으나 예수님께서도 헬라어를 사용하셨는지 아라메어를 사용하셨는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다. 아마도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셨다고 생각 된다. 신약에도 막 5:41에 “달리다꿈이”라는 말씀과 막 15:34에 “엘니 엘니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다 아라메어이고 그 외에는 전부 헬라어로 쓴 것이다. 신약 헬라어에도 보통 헬라어와도 다르게 특색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플라톤식 제논등의 고문과는 달라서 알렉산더 시대에 있던 방언인 것.
2. 또는 히브리어 감화를 많이 받았음으로 히브리어화된 헬라어인 것이다. 당시에는 특별히 헬라어 역 구약성서가 일반에게 채용 되었기 때문에 신약기자도 히브리어 구약을 많이 인용하였음으로 부지부식 중에 히브리어 감화를 많이 받은 것은 자연스런 사실이란 것이다.

3. 또 히브리어는 아라메익 어조가 섞여 있다는 것. 이상에 이미 논한대로 유대 일반에 아라메익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기자들도 아라메익 색채가 다분히 끼어 있는 것도 자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4. 신약 기자들은 유대에서 나서 유대교육을 받은 유대교 신자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인 것 만큼 저들의 사상도 반 유대 교적이면서 반 기독교적이었기 때문에 헬라어에 원의(原意)와는 달리 새로운 의의를 갖춘 새로운 술어가 많다는 것도 자연스런 사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약 원문은 특수 헬라어라고 할 것이다. 이상원어를 십사 해 볼때 원시어는 슈메르아가멘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국 후는 가나안어 곧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된 후로는 아라메익어를 사용 하였고 주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정복후로는 헬라어가 각국에 유행 하였다가 다시 라틴어로 변하였다가 현금에는 구라파어로 변한 것이다. 그리하여 구·신약원어도 이렇게 변천무쌍한 언어 중에 존속하여 온 것이다.

#### 제11절 성서 번역에 대하여

구약이 완성된 때부터 세계에 중요한 언어가 종종 변천할 뿐만 아니라 신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1900여년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신흥 각국이 별례처럼 일어나 구라파 각국어가 발달됨에 따라 여러학자들이 한 마음을 지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따라 성서를 번역하게 된 것이니 중요한 번역을 간단히 논하면,

##### 1. 70인역

이 번역은 히브리어 구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니 혹 알렉산드리아 역이라고도 하고 셉투아진트(Septuagint)라고

도 한다. 라틴어에 70인어란 뜻이다. 번역의 동기와 번역한 학자들의 명단은 역사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어느 한 설에 의하면 애굽 왕 푸톨노미필라텔프스는 경신종교가(敎神宗教家)로 성경을 당시 유행하는 헬라어로 번역에 응지(雄志)한 뜻을 품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을 초청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하였다 하니 주전 250년으로 130년까지에 완역하였다 하는데 히브리 문자보다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들은 성서 번역을 죄로 논하였고 사계(斯界)에 유명한 긴즈바룩 박사는 말하기를 이러한 번역은 아론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같다고 평하였으나 신약에 구약을 인용할 때에는 70인역에서 인용하였고 예수님께서도 70인역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히브리 원문만을 인용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우리 구약의 순서는 70인역 순에 의한 것이다.

#### 2. 로마역(라틴역)에 대하여

구약은 70인역을 다시 라틴어로 신약을 헬라어 원문을 비로소 라틴어로 번역하였으니 이것은 주후 4세기에 당시 로마어인 라틴어로 번역하였으니 이것은 벌케트(Vulgate)라 하니 벌가스란 속어에서 어원이 나왔으니 벌가스는 공공(公共)이란 뜻인데 곧 벌케트는 성경이란 뜻이니 성 제롬이 완역하였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벌케역을 사용한다.

#### 3. 앵글로색손역에 대하여

기원 5세기경에는 앵글로색손어가 영국에 유행하였으니 라틴어는 고어가 되어 무학자들은 읽을 수도 없고 또는 너무 고가(高價)여서 가난한 자들의 수중에 넣을 수도 없게 되어 기-도몬트라는 학자가 앵글로색손어로 성경을 의역하다가 기원 680년경에 죽고 그 후 피데라는 학자가 4복음과 시편을 앵글로색손말로 번역하였고 그 후 알프레드가 색손의 황제가 되어 직령으로 번역을 명하

였으나 완성치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 4. 영어로 번역한데 대하여

주후 1525년에 윌리엄 틴넬이 구.신약을 영어로 완성하였고 주후 1534년에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을 완성하였고 주후 1807년에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주후 1903년에 한국어로 번역완성하였다. 현재에는 성서가 일천여 방언으로 번역되어 전 인류에 진리의 생명 양식이다.

#### 제12절 성서는 인류 구원서

(1) 성서는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동시에 세계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큰 감화를 줌

##### 1. 구미의 대문학자 대정치가

7. 밀튼의 실락원

나. 뻬현의 천로역정, 뻬론등

디. 영국의 대정치가 글래드 스톤

리. 미국의 대정치가 워싱턴, 링컨

##### 2. 유명한 작가들

7. 베토벤, 애굽의 이스라엘 족속

나. 헤이드 창조곡

디. 헨델의 메시아(성악), 사울, 앵다, 에스터등

##### 3. 특별 사업가들

7. 노예 해방 인권 옹호자 스톤 부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나. 식인종을 교화한 리빙스톤

디. 크림미야 전쟁에 부상군인 치료자 귀족녀 나이팅젤(세계 적십자사 운동자)

리. 고아 보육원 창설자 푸리스톤 조지 밀레

#### 4. 순교자들

7. 스테반, 베드로, 야고보의 신앙

나. 바울의 회개

다. 폴리갑, 이클라푸, 허스, 루터, 케로이 등의 순교정신

#### (2) 성경의 예언이 응함과 그리스도의 증거

1. 바벨론의 멸망(렘 50:26, 51:58)

2. 사마리아의 심판(미 1:6)

3. 예루살렘 황금문이 폐쇄 됨(겔 44:2)

4. 그리스도의 구약에 대한 증거(막 7:13, 눅 16:31, 요 5:46~47, 눅 24:26~44)

5. 자기 말씀에 대하여 증거(요 3:34, 8:28, 12:49~50, 14:10~24, 7:16, 17:8)

6. 사도들이 기록할때에 대하여 증거(요 16:12~16, 14:26)

#### (3) 성경을 이용하는 자는 멸망할 것.

1. 유대 광야에서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여 주님 예수를 넘어지게 하려 하였다. (마 4:6)

2. 하나님의 계시 아닌 계시를 신의 계시라고 이용 하였음(왕상 13:18).

3. 화악문 화밀 부인이 계시로 인하여 성경을 자기 의견과 계시에 합리화 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

4. 아리안의 이론에 가담한 소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파도 서기 1872년에 미국 핏츠버그에 사는 C.T 텃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견해를 성경으로서 이용하여 자기주의화 시키려는 동시에 자기만 성경해적한 것을 각 부하에 명령으로 시달하여 중앙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논의 가결하여 각 세포에 지령하여 소위 왕국회관에서 강습시켜서 각 구역에 봉사자를 지정하여 호별방문하며 책자를 매도 선전하고 있다.

5. 카도릭 교회에서는 경전이라는 것을 신자에게 주어 성경으로 내용하고 성경은 법왕 외에는 해석할 권리가 없고 성경을 읽는 것도 법왕 주교 신부 외에는 읽기에 불능이라 한다. 또는 그 수위자(首位者)의 견해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하므로 그들 인간에게 성경이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 제 8 장 신앙 생활의 규범

### 제 1 절 성경공부와 기도생활

#### (1) 성경 공부와 기타생활

1. 그리스도인이 됨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교수함에 필요함 (딤후 4:13) (딤후 3:16~17).

2.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 (벧전 2:2).

3. 고난이 있음을 각오할 것(딤후 2:21, 22, 벧전 4:12, 19).

4. 성경은 성신점으로 사용하여 악귀를 대적할 것(히 4:12, 엡 6:17).

5. 성경은 논리적으로 연구할 것(고전 4:2. 딤후 2:15).

#### (2) 기도의 생활

##### 1. 기도의 성격

7. 신과 인간의 교통선인 동시에 신앙으로 기도 할 것(요 1:7. 약 5:15, 18. 1:6).

나. 물질적 요구보다, 감사와 영광을 더욱 돌릴 것(골 4:2, 빌 4:6).

##### 2. 기도의 목적

7. 영적생활의 향상(요 17:1, 26).

나. 고난을 극복할 능력을 얻은 것(눅 22:43).

##### 3. 비성경적 기도

7. 회의적 기도(약 1:6~8).

- ㄴ. 형식적 기도(마 6:5, 15).
- ㄷ. 미신적 기도(자연법칙을 위반하려는 감정적 기도)(고후 12:8, 9).
- ㄹ. 정욕적 기도(약 4:3).

#### 4. 기도의 방법

- 7. 무시로 기도(엡 6:7, 18, 살전 5:17, 롬 12:12).
- ㄴ. 개인 기도(마 6:6).

- ㄷ. 합심 기도(마 18:19, 요일 3:22, 5:14, 15).

#### 5. 기도의 목적

- 7. 자기 자신의 죄비 성패시.
- ㄴ. 국가, 사회, 형제 및 원수들에(골 4:3, 6, 딤후 2:2, 롬 12:14).

#### 6. 기도의 모형

- 7. 대상은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요 16:23, 골 3:17, 마 6:9).
- ㄴ. 의뢰(依賴)는 예수의 이름으로(요 14:13, 14, 16:22, 24 골 3:17).

- 7. 기도는 하나님 성지대로 기도할 것 (요 14:14, 15, 행 4:23, 31, 약 4:2, 3).

#### (3) 개인 전도(약 5:19, 20, 마 25:20 단 12:3 말 3:16).

- 1. 그리스도의 증인들(행 1:8).
- 2. 그리스도의 명령(마 28:19, 20, 막 16:15, 16).
- 3.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심(요 4:5).
- 3. 그리스도교는 열병과 같다(행 24:5).

#### (4) 죄에서 떠날 것(벧전 2:9, 히 12:1~2).

- 1. 죄는 자살행위(롬 1:28, 32, 고전 6:9).
- 2. 죄인과 짝짓지 말 것(롬 6:16, 18, 고후 6:14, 17).

#### (5)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고전 6:20).

- 1. 육에 속한 지혜와 정욕을 죽일 것(갈 5:24, 골 3:5, 10).
- 2. 성신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고전 16:14, 갈 5:22, 24).
- 3. 신앙의 선전(善戰)을 할 것(딤후 6:11, 12, 딤후 4:7).

#### (6) 집회에 참석할 것(히 10:25). (주일 성만찬 예배, 기타예배, 공부).

- 1. 주일예배와 기타예배(행 2:42, 20:7).
- 2. 전도집회와 사경공부, 기도회 등(눅 4:16, 19, 엡 4:25)

#### (7) 정기 헌금(고전 16:1).

- 1. 십일조(말 3:7, 11 고전 9:13, 14, 마 23:20).
- 2. 기쁨으로 헌금(고후 9:6, 7).
- 3. 교훈의 보수(갈 6:6, 7).

#### (8) 찬송(마 26:30, 골 3:16, 엡 5:19, 약 5:13).

#### (9) 자비와 충성

- 1. 병자와 가난한 자와 고독자를 도와 줄 것 (행 6:1~7 약 1:27, 5:14).
- 2. 최후까지 충성할 것(묵 2:10, 고전 4:1, 2).
- 7. 필박을 예기함(딤후 3:21, 눅 6:22).
- ㄴ. 시험을 인내할 것(약 1:12).

## 제 9 장 이적론

### 제 1절 이적의 범위(행 8:13~17, 롬 1:11)

기도와 안수로 성신을 받은 것은 이적적 은사이고 동시에 사도들에게 한한 것이다. 사도들은 주님 예수에게 직접 이적행할 권능을 받은 동시에 그 권능을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그 권능을 안수로 받은 자가 타인에게는 곧 제삼자에게는 분급하지

못한다. 빌립은 사도에게 안수로 권능을 받았지만 타인에게 안수하여 권능을 주지 못함으로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청하여 빌립 자기가 침례를 준 신자에게 안수하여 권능을 받도록 하였다. 그런즉 이적의 권능은 사도에게 안수로 받는 것을 깨달아 알면 금일에도 사도들과 사도에게 안수 받은 자와 같이 이적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한 신경(信經)이다(행 8:4-17). 사도시대에 이적, 권능은 교회창립 또는 신약성서가 성립되는 건축시에 족대(尼臺)(공사하기 위한 임시 발판을 말함)와 같은 것 뿐이니 완전한 성서가 출래(出來)(안에서 밖으로 나옴)하므로 불완전한 예언, 방언은 자연 폐지(고전 13:8)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한 이적과 권능, 방언은 완전 하므로 완전한 성서로 기록하였으니 그대로 교회를 설립하고 인생의 생령(生靈)을 구원하게 되므로 목적실물(目的實物)이 성립되므로 족대와 같은 이적적인 예언 방언은 폐지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의 권능, 예언하는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 하였으니(마 7:22) 만일 금일에 권능의 모든 행사와 선지자가 있다면 불법자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한 일을 행한 자들이 나에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마 7:23) 하시었으니 예를 들면 어떤 교파의 교주된 여자가 목사의 예언서 저술로 그 교파에서는 요한 목시록 보다도 중요하게 신앙한다는 소문이 있다. 과연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세례로 인하여 교회 창립과 신약성서를 완전하게 기록하신 그 말씀에 비하면 불법자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성서적 교회와 성서적 신앙으로 견실(堅實)히 순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것인 동시에 성서외에 근대 목시록, 예언, 이적은 부정한다.

제 2 절 이적은 그쳤다(고전 12:13).

이적이 그치지 않았다면 교회역사상 모든 시대 모든 신앙과 전도사업을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요구하여 실행할 권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행함인데(행 5:32) 한번 증명된 것은 그 증명이 영구한 것이다. 과학상으로 불지라도 창조는 이적적으로 된 것을 한번 증거하였고 그 후로는 또 새로 창조하지를 앎고 여러가지 물질계가 자연법칙에 의하여 계속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와 같이 신령계도 교회가 이적적으로 창립된 것을 한번 증거한 후에 영계의 법칙이 완성함에 따라 그 법칙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함 이요(요 20:30, 31) 사도된 표라고(고후 12:12)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할 것 뿐이요 더 증거할 필요도 없고 권리도 없다(요 14:11, 12). 신령적 성전을 지음에(교회) 있어서 성전이 완성되면 족대는 치워 버리는 원칙이다(요일 5:7). 지금은 더욱 큰일, 신령적 이적을 행할 시기다(롬 1:16). 유년시의 웃은 장성한 후에는 벗는 것이다(고전 13:11).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육체적 이적은 감각에 호소 함이지(롬 15:19, 히 2:3, 4). 장성한 교회는 신앙으로 행할 것이다(요 20:29. 고후 5:7, 벵전 1:8). 예수께서는 항상 육체적 감각에 호소하는 이적을 경계하시었다(마 12:39, 16:4). 감정호소는 계시의 최초 단계이요 지금은 영적감정에 호소할 때이다(요 4:24, 고후 5:16). 성신을(은사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을 2:28, 32) 오순절날 충분히 성취되었다. 또는 예수님의 약속도(요 7:39)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게 성취 되었다. 지금은 성신을 부어 받을 때가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사도들이 행한 이적을 그대로 신앙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성취한다. 바울사도는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신앙심이 박약함을 경계하였고 고전 12장에 교회내에서 이적행함을 논한 후 그 결론으로서 제일 좋은 길

을 보여 주리라 하고 고전 12장, 13장에 와서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을 말하였다. 그때의 교회 지식은 구약의 지식이다. 지식도 불완전 하고 예언도 불완전 하므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하였고 신약성경이 완편됨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고로 우리들이 구원하기에 더욱 완전(딤후 3:16~17)함으로써 이적 방언이 폐지됨을 말하였다(고전 13:8~10). 주 예수의 재강림도 완전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하나님의 법칙은 일반적인 동시에 창조 또는 이적만은 특수적이다 (히9:27)

이적을 행함이 일반적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눈먼 자를 보게하고 죽은 자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요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법칙과 인간의 선택의지는 파괴되었을 것이다.

1. 우주는 이적으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법칙으로 운영됨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성신침례를 통하여 이적으로 교회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곧 신약성서를 통하여 계속 설립하는 동시에 또 창조의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2. 일차 성서에 증명된 사실을 누차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아담, 해와를 이적으로 창조한 후에는 자연법칙으로 생육하고 또 창조를 증명치 않는다.
3.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신침례의 성신 권능으로 이적으로 교회를 창립함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면 신약성서가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신 침례를 받아 사도들과 같이 성신이 하라는 대로 하며 이적으로 일차 창립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이 성신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성서법칙대로 계승하는 유일한 교회

일 것이다. (하나님이 일차 이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후에는 다시 창조하지 않고 자연법칙으로 계승 생산함과 같다) 지금은 우리 신자들이 성서 말씀대로 신앙하며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성신이 충만하여서 병자를 위하여 신앙으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 하신다(약 5:14, 16).

이것은 이적이 아니다 이적은 기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즉시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병자에게 그림자만 지나가도 살아 일어났었다. 신약시대 사도들이나 사도들에게 안수로 권능을 받은 자들이 죽은 후에는 성경에 증명한 이적은 자연 정지 되었다(고전 13:8).

4. 이적으로 사죄한 예가 없다(행 22:10, 11:12, 14). 주를 믿고 회개하고 구증 고백하고 침례를 통하여 사죄 구원한다(요 3:16, 막 16:16, 롬 10:10, 행 2:38).

#### 결론

하나님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직접 파송한 사자만 육체적 이적을 행함이요, 그의 교역자들은 신의 파송인의 후계자로 성령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교역을 계승하여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할 뿐이다. 현대에 이적이라는 것은 이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고는 없다. 찬송과 기도 많은 시간의 노력과 정신적과 심리적 작용에 집주로 이상한 자태가 있다. 이것은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종교든지 그런 것이다. 또는 무당도 소위 작도무당이 많은 시간 노래와 춤을 추다가 면도날 같이 예리한 작도 위에 육죽으로 밟아도 상하지 않는다. 병도 치료한다. 아지 못하겠는가? 아마 무당의 수가 소위 이적을 행한다는 자보다 많은 수일 것이다. 그러므로 무당충배자가 인구 수에 60 퍼센트일 것이다. 소위 기압술도 이적일까? 성경에 기록된 이적은 이미 성경이 완편 됨에 따라 정지되고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

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거짓선지자(묵 13:13, 마 7:22)가 출현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다. 이적기사를 행함은 사도된 표시이다(고후 12:12).

## 제 10 장 천국론

### 제 1 절 개론

구약 성서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였고 영원한 나라라는 말등으로 많이 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요 독재적인 왕국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시요 만왕의 왕이 시요 만주의 주신(딤후 6:15) 까닭이다. 천지 만물과 인류는 복종하게 될 뿐이요 아니라는 것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세 왕국의 모형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이요 신의 백성(벧전 2:10)이요 신의 직속(엡 2:19)이니 절대 순종하는 생활로 왕국을 형성한다.

신약성서에서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요 3:3, 5, 롬 14:17, 고전 15:50)로 쓴 것이 많은 것이다.

그러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서적인 신앙과 회개와 고백과 침례의 물과 성령(막 16:16. 행 2:38)으로 중생자 곧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교훈으로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 한데 도달하기 까지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엡 4:1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든지 헤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아니라 하는 것은 없고 예 할 뿐이다(고후 1:19~20). 현세에 그리스도교회는 이지적으로 왕국을 공화국으로 개조 하려는 까닭에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열과 분파로 인하여

신·구간에 500여 교파로 난립하고 있다.

천국은 왕국인 동시에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오직이라 하므로 통일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파도 신파도 아닌 신약교회이다. 소위 신파니 구파니하는 것은 서기 100년 경에 동 로마교와 회람정교와 서기 300년 경으로 부터 606년 경에 서 로마교(카톨릭) 등이 구파로 자칭하고 서기 1500년 경에 루터교, 감독교(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등이 가톨릭 로마교에서 개종된 신파로 지칭하는 것들이 신약시대에 주 예수께서 사도와 동역하시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적적으로 창립한 교회에서 분파된 역사적 사실이다.

신약성서중 창립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오직이라 할 뿐인 그리스도 하나님 왕국 모형이다.

주님 기도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 될 같이 믿는 자들도 완성하여 하나이 되게 하였음(요 17:11~23). 신약에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만도 44회나 기록되고 마가 누가복음에도 30회나 쓰여 진바 그 중에 몇 개 구절을 소개 한다.

천국은 마 8:11, 16:19, 23:13, 3:2, 10:7, 13:11, 24, 31, 33, 44, 45, 47, 52 등에 기록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 6:33, 눅 12:31, 막 9:1, 12:34, 14:25, 눅 4:43, 7:28, :2, 27, 62, 14:15, 17:20~21, 요 2:3, 5, 행 14:22, 28:23, 롬 14:17, 고전 4:20, 15:50, 골 4:11, 살후 2:5 등에 기록 되었다.

1.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세 왕국에 진행 중에서 모형을 형성하는 것이다(마 18:23, 20:1, 22:2, 25:1, 14).

2. 낙원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지상에 있는 것이나 그 경치가 대개는 동일한 모형이다.

그 안에 강이 있는 것과 생명수가 있는 것이다(창 2:9~10,

목 22:1~2).

생명 과실은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창3:22, 목2:7). 그러나 지상 낙원과 천상 낙원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안의 생명과일은 인생이 악마의 유혹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로 인하여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하시었고(창 3:22) 천상에 있는 낙원은 성삼위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악과 시험을 승리하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신령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하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약속(요 6:54)하였으니 장래 상제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주워 먹게 할 것이다(목 2:7).

- ① 아버지 집에 준비한 곳(요 14:2).
  - ② 그리스도인의 우리 고향인 한 성(히 11:14~16).
  - ③ 사죄하고 구원받은 자의 신들이 있는 곳 곧 선성(先聖)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곳(눅 16:23, 23:43).
  - ④ 사도 바울의 빛을 본 곳 곧 삼계천(三階天)(고후 12:3)
  - ⑤ 사도 요한 관광한 곳 곧 상제의 낙원이다(목 2:7).
3. 하나님의 통치왕국(단 4:34, 35, 6:25, 대하 36:23).
  4.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새 9:6~7, 단 2:44, 7:14, 시 2:4~9)
  5.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때에 위탁인가? (요 19:30, 행 1:3~4).
  6. 그리스도의 왕국이 설립 됨(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고 주와 그리스도 됨)(히 2:9, 행 2:36).
  7. 천국과 교회는 성질이 동일 함(마 3:2, 4:17, 고전 15:9 달 1:13, 행 19:8, 28:23, 31, 엡 1:22, 목 17:14, 요 3:3, 5).

8. 천국 통치권을 반환할 시기는 종말기(고전 15:24, 28).

### 제 2 절 내세 왕국 주 예수 재림시로부터 시작

- (1)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생존 변화자들이 향락할 것이다(고전 15:23, 살전 4:16~17, 목 19:1~16).
  - (2)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는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요 3:5, 막 16:16, 행 2:38, 딤후 3:5, 골 2:12, 마 7:21, 5:10, 19, 18:3, 19:24, 눅 18:24, 29, 막 9:47, 10:14~15, 12:34, 14:25, 고전 6:9~10, 15:50).
  - (3) 천국에 들어갈 생활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과 결실(마6:33, 갈5:22~23, 벧후1:5~7).
  - (4) 내세 천국상태(마8:12,11, 요14:1,3, 눅13:24~29, 목12:10,12, 21:3~4).
  - (5) 내세 천국은 영생의 나라이다(마25:46, 막10:30, 요 5, 12:25, 롬6:23下, 목22:1~5).
9. 천국을 개방하므로(눅16:16)사람마다 전하는 자 곧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하고 진실된 회개와 신과 사람 앞에 신앙고백인 구증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밥티즈)를 받아 죄 사함과 성령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안식일 후 첫날 주일에 신령과 진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하며 성령의 과실을 맺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3:5) 천국을 침입할 수 있고 탈취 할 수 있다(마11:12).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권하여 들어 가니라」한 말씀이 천국을 개방하는 비결인 복음이다. 1. 하늘들 곧 모든 하늘이라 함(엡4:10)「하늘들」은 신약 원어로는 「우라노이」단수로는 「우라노스」라 하는데 이는 자연계의 하늘이라는 데서 시작된 헬라어니 눈으로 볼 수있는 하늘들 (The visible heavens)공기

의 하늘(The sky the atmosphere) 별들의 하늘들(The starry heavens)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구약원어로는 「사마임」(복수형)이라고 한다. 이는 「사~마」(to be high)의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고천(高天) 또는 현천(玄天)의 뜻이다. 이따로 우주론적 관념과 신화적 관념에서 그 보다 종교적 관념에서 나온 히브리어이다.

바벨론과 파사에서는 일곱 하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체험담에 의하면 제 3층천까지는 무원한 것이 확실하다. 이는 공기천과 일월 성진 천 이상이 외 천인 영계의 천국을 말함이다. 그러면 천국의 개방이라 함은 종교적 하늘 문이 열림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2. 나라들이라는 말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나 신령한 의에서 보는 나라들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7. 신국 은혜 방면으로 보는 종교적인 신국(눅17:21)은 마귀국과 대립된 나라다.

ㄴ. 천국 조직 방면으로 보는 정치적인 천국은 지옥과 대립된 나라다(눅20:14)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 기록한 대로 하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혼동하여 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하늘과 하나님의 차이가 크게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 한 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3. 하나님 나라는 3종으로 나누나니

7. 성신의 나라(그리스도 신이 주재한 곳)(롬14:17) 사랑과 진리 또는 직와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는 곳(요16:7~13) 신령하게 집회(주님의 만찬회)하는 은혜의 나라(행2:42)

ㄷ. 예수님의 나라(눅1:9, 마16:28)

(가) 이방인에게 까지 허용하신 인자(人子)의 나라(골1:13)

(나) 세상나라가 아던 진리의 나라(요18:36~37)

(다)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나라(행1:6)

ㄷ. 아버지의 나라(마13:43, 26:29)

은혜 혹은 정치 방면으로 보는 사랑의 나라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찾을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모든 나라는 개방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하신 것이다.

4. 천국(마4:17) 어떤 종교에서는 18 계의 지옥과 13계의 천당이 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제 1천과 제 2천이라고 중국사람들은 천국의 성별을 위하여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하며 제 2천은 타락된 천사가 유배되어 있고 제 3천에는 에그레-고로이 주시자(注視者)가 제 2천에서 고통하고 있는 천사를 동정하여 비애의 침묵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제 3층천을 믿을 것은 물론(고후12:3)이고 그 외에 우리가 믿어야 할 천국은 몇 종류며 또 어떠한가?

7. 예멘 천국(창2:8)

(가) 신약을 가르치던 신약과가 있던 천국(창2:17)

(나) 인간이 범죄하고 나온 구천국(舊天國)(창3:23)

(다) 타락된 인간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창3:24)

ㄴ. 교회 천국(마13:51)

(가) 영화 앞에도 참예할 수 있는 교회의 내부적인 천국(마1:7)

(나) 영적 실력에 의하여 조직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엡1:23, 4:12)

(다) 공중 재림시에 영광화 되어야 할 천국(살전4:16~17)

ㄷ. 은혜의 천국(요18:36)

(가) 어떤 제도로도 세울 수 없는 오순절 천국(행2:1, 4:37)

- (나) 세상에 잘 볼 수 없는 천국(눅17:20~21)
- ㄹ. 영계천국(마17:1~8)
  - (가) 변화산상의 신비의 천국(눅9:29)
  - (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계시의 천국 곧 계시록에 출현된 천국
    - ㄱ. 영혼의 천국(묵2:7, 눅23:43)
      - (가) 낙원 히브리인의 「팔렘」 헬라인의 「파라다이스」
      - (나) 실천 신지에 들어 갈 「파라다이스」
      - (다) 아브라함의 품(눅16:22)
      - (라) 바울이 보았던 제 삼층천(고후12:3)
      - (마) 공중 재림시 진보적 해산이 될 임시 천국(살전4:16)
    - ㄴ. 공중천국(묵19:9)
      - 이는 순양의 결혼식장
      - 성도의 시상식장 칠년간 사랑의 천국
    - ㄷ. 만국 통일 천국(묵20:6)
      - (가) 만민이 귀화 입적할 평화의 천국(시78:4~6)
      - (나) 만왕의 왕의 통일 신정천국(神政天國)
      - (다) 육체의 영화자의 이중(二種) 인류의 천국
      - (라) 주와 선민과의 약속 성취의 천국
      - (마) 칠년간 무죄 수형의 정의 천국
    - ㅇ. 영원한 천국(히4:9~11, 묵21:22~27, 벰후1:11)
      - (가) 영원한 안식의 그리스도의 천국(히4:9~11, 묵11:15)
      - (나) 교회가 시민권을 가지고 입적할 천국(묵21:3)
      - (다) 영과 물질 양계의 최후 이상적 천국(눅14:15)
      - (라) 신천 신지의 의애(義愛)의 천국(벰후3:13)
      - (마) 진동(震動)치 못할 천국(히12:28)
  - ㅈ. 심령(心靈)천국(롬14:17, 히12:23)

- (가) 양심의 천국(벰전3:21)
- (나) 피곤을 모르는 평강의 천국(마5:10, 롬14:17)
- (다) 성결의 천국(마5:3~8)
  - (라) 성령의 과실을 맺는 천국(갈5:22~23,21)이상 9종중에서 제 8종의 천국을 체득하려면 제 9종번의 천국을 먼저 체험하여야 할지니 이는 천국의 출발점이다.
- 5. 천국의 시발점(롬14:17) 천국은 심중으로 부터 시작되나니(눅17:21)
  - 7. 의로움
    - (가) 대속의 주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義)
    - (나) 신자의 양심이 옳다고 하는 신의(信義)
  - ㄴ. 평강함
    - (가) 세상의 평안과 다른 담대한 평안(요14:27)
    - (나)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할만한 영력(靈力)
    - (다) 외래의 유혹과 꾀박과 세력을 방어할 성진검인 성경이 충분하여 공격할만한 평강
      - (라) 성령이 내주한 성전인 신체도 성결하고 건강한 평강
      - (마) 천상의 명령을 지상에도 성취할만한 평강
  - ㄷ. 희열함
    - (가) 모든 일이나 빼앗기지 않는 기쁨
    - (나) 언제든지 있는 기쁨
    - (다) 어떤 곳이나 있는 기쁨(살전5:16)
- 이상 3종의 은혜는 모든 천국의 약속이요 장래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니 이 때야 말로 육체에 있으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올라간 자와 동일한 심령이요 비록 지상에 거주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와 동일한 생활이다(엡2:9).
- 6. 천국중심(마17:8)

베드로가 변화 산상에서 주께 대답하여 가로되「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하고 그 변회의 천국을 좋게 여기었다. 또 모세와 엘리야를 사모하였다. 그러나 천국의 중심은 그 산이나 그 선지자 들에게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영광과 그들은 구름에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 돌리니「이는 내 사랑 하는 자요 내 기뻐 하는 자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었다.그런즉 천국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시면 우선 마음의 천국이요 내 가정에 계시면 가정 낙원이요 우리 교회에 계시면 교회 천국이다.

#### 7. 천국 개방

이상 말한 천국들은 다 개방하였다.그러나 완전한 개방은 최후 신천 신지가 출현되므로 성취 된다.

주님이 개방의 주가 되시어서 내가 길이다 문이다(요14:6~10:9)고 하셨다.

그 개방은 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림으로 계시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장막이 갈라짐을 보아 증명 되었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와 요한에게 나타 나심으로 보증이 되었다.

주께서는 이 복음으로 부르신다(마11:28). 성령과 신부도「오라 하시도다」(묵22:17) 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이나「묵 마른 자」마다「원하는 자」마다 마시우리라(묵22:17)천국의 주인이 되신 주만이 예비하신다고 약속 하시었다(요14:3).「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쫓입하느니라」(눅16:16)

### 제11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론(顯現)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게 되는 동시에 과거 처음으로 오실 때 오실 것을 말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나 처음 오실 때에 대하여서도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시어 메시아로 탄생 하실 것을 계시하였으므로 과연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여 유대나라 베들레헴에 탄생 하시어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며 전 세계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시어 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망 아래 저주를 받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최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사 40일간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죄인들이 사망중에서 구원하실 방법을 가르치시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두 천사를 통하여 선포 하시고 승천하시였으니(행1:11) 그런즉 초림도 예언에 의하여 성취 하였고, 재림도 예언에 의하여 될 것을 믿는 성도들의 산 소망인 동시에 성경에 중심이라고 본다.

주의 재림에 대하여 신약전서 총 절수가 7,959절인데 주 재림의 어의 구절이 25절에 대하여 1절씩 되어 총 계수가 318절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재림은 성서의 예언의 중심이 된 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시었고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 하였다(묵22:20). 성경대로 참 중생한 그리스도인 곧 성도들은 재림의 예언의 약속을 믿고 대기하는 것이다.

제1절 구원한 성도들을 구원을 완성시키려 하심(히9:28)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망 중에서 그복생자 예수를 탄생 시

키시고 십자가의 도로서 곧 초림(初臨)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하시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하여 재차 보내사 구원을 완성 시키려 함이다.

이 때가 곧 하나님의 뜻 자녀가 나타 나는 시기인 동시에 주의 재림은 만물들도 대망하고 있다. 「대개 창조함을 받은 만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자녀가 나타 나기를 기다리니」(롬 8:19) 하였으며 이러한 탄식을 주께서 재강림하사 만물을 회복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 자녀의 영광을 얻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정 속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리라(히9:28) 재림의 목적에 중요성이 있느니라」.

### 제 2 절 성도의 순교를 보복하기 위한 공의의 심판

구약시대 아벨의 피로 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마23:35)와 기타 모든 선지 성인들의 순교와 신약시대 세례 요한으로 부터 스테반과 야골 베드로 바울 기타 여러 성도들의 순교(막6:27, 행7:59~60, 12:2)의 피가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기를 호소하고 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때가 곧 주의 재림의 시기인 것이다. 또 말한 것은 순교자의 수효가 다 차는 때이다. 그러므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 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 하시기를 어느 때 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묵6:10~11)하였으니 순교자의 보수적 심판은 그들의 원수들이 받을 것이니라.

그런즉 재림 하시게 되면 무신론자들과 향락주의자들 곧 못할 것이 없이 죄를 짓는 자들, 적 그리스도, 왕과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나니라(행17:31, 약5:9, 묵1:7, 2:24, 6:17, 6:19~11).

### 제 3 절 재림에 대한 여러가지 징조(마24:3~39)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굉장한 건물을 가리키시며 돌 한 개도 돌위에 첩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신 것이 주후 5년경에 그와 같이 로마 군대에 멸망을 하였고 또한 갈란 산에 앉으사 제자들로 더불어 말세에 대한 문답을 할 때에 제자들이 묻기를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 오리카?」(마24:3)한즉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마24:4~)하였으니 미혹하는 이단의 교회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한 제 3일만에 부활하신 이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 이시다. 만일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자기 재림의 주라고 하거나 혹은 기사와 이적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지라도 미혹을 받지 말지니라 먼저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출몰한 때가 재림의 시기인 것이니라.

이는 교회에 대한 징조이다.

#### 1. 세상에 재림의 시작(마24:6)

전쟁이란 어느 때든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세계적 대 전쟁을 말한 것이니 1차, 2차 대 전쟁을 내가 보았으며 불원한

장래에 3차대전이 올 것은 록11:14에서 제2차 화는 지나가고 제3차 화가 속히 오리라 하였으니 곧 3차전쟁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는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나라마다 내란이 일어나서 동족쟁투로 전 세계 국가들이 혼란한 것은 주의와 사상전이니 곧 공산주의와 자유 사상의 대립이다. 민족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가정, 개인에게 까지 침투되어 학살과 분열과 파괴와 반역 등등으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는 흉년과 기아, 지진에 대하여서도 한 지방적으로는 어느 시대든지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 기아와 대 지진은 전무한 사실이 있다.

## 2. 반종교와 위선자의 출현

기독교는 시작할 때 부터 반대 또는 박해와 학살을 당한 것은 성서에서도 볼 수 있고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말세인 주님의 재림하실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반 종교 운동이 있을 것을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내어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24:9)하였음을 보면 말세에 곧 주님의 재림 시기에는 더욱 이 치열한 반 종교 운동을 말씀하신 것이며 여러가지 말세의 징조와 함께 반 종교 운동이 세계적으로 현대에 일어나는 것은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팽창함으로써 학살과 추방과 납치와 학대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는 주님이 예언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24:11,12)하였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위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징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형형색색으로 별별 이단 사실로 미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계에 신학자의 명칭을 가지고 또는 신

비주의와 허무주의와 고등비평 신학자 현대주의로서 성경을 자기 주의에 부합시키는 해석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많음으로 교회는 혼란할 뿐 아니라 성경의 법을 교란시키어 불법적인 신앙에서 애정이 식어지는 이 때라 인류애가 냉각되어 교회내에 분열과 국가, 사회, 가정이 분열하는 것은 옛날에 보지 못하던 이 시대이다.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런고로 주님의 말씀에 “인자가 이를 때에 세상에 믿는 것을 보겠느냐”(눅18:8)하였으니 성경대로 신앙하고 주님 재림시까지 인내할 것을 격려하시는 것이다.

## 3.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만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능적 성령을 주신 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기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 곧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명령인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말기 곧 재림시기일 것이다. 주님 말씀에 천국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여지고 있어 성서공회에서 각국 방언으로 번역한 것이 일천이백의 방언이라고 하여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전 인류에 3분의 1 이라고 하니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한 후에 곧 만기에 주님 재림기인 것이다.

## 4.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울 것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한 것은 무화과 나무를 유대 나라의 국수인 것을 말함이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고 가지가 자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치적 동향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 가실 때에 시장하여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과실을 얻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고 그 나무에게 저주하여 곧 마르게 하신 것은(마 21:18, 19) 유대의 국가적 멸망을 가리킴이요 또한 이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두었으니(마 3:10)

이상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주후 70년경에 로마 대장 피도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유대인의 이상에 대한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부터 근 2000년간 세계 각국에 이산되어 국가를 잃어 버리게 된 것이 구약으로 부터 신약에 예고한 것이다.

「탄민중에 흠으사 이 땅끝에서 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신 28:64)

「저희가 알지 못하던 열국에 선봉처럼 흠으리라」(겔 12:15)

「너희를 열방에 흠으사」(렐 26:33)

「탄일 너희가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흠을 것이요」(느 1:8)

「여호와 너희를 열국에 흠으사」(신 4:27)

「비록 원수 앞에 사로 잡히나 내가 겹으로 살륙하게 할 것이요」(암 9:4) 「그 열국중에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이 설 곳이 없고 네 눈이 상하고 생명이 쇠잔하게 하리라」(신 28:65~67) 「너희 죄로 인하여 7 배나 더 징계하여 다스리며」(렐 26:28) 「너희가 장차 칼날에 죽으며 모든 나라에 사로잡혀 가고」(눅 21:24)

이상 말씀은 그들이 각국에 흠어져서 학살과 추방과 치욕으로서 금일에 일관하였으니 실로 2천년간 유대민족 역사는 피의 슬픈 역사라 할 수 있다.

서기 1917년으로 1920년까지 각국으로 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온 수가 3천만명이라고 하니 이하 각 예언이 옳은 것이다(겔 11:17, 37:12, 사 5:26, 27). 이와 같이 예언 성취도 예언중 백골 부흥(겔 37:7, 10)인 1897년에 유대인들이 시온회를 조직하고 시온 운동 곧 성지 회복인데 그 후 20년인 1917년에 일차대전 후 영국 총리대신(유대인) ?씨가 영국 대장 알렌비를 명하여 3백년간 토이기 영토인 유대 성역을 탈환하여 영국이 위임 통치

하여 세계에 산재한 유대인들을 옛 땅으로 소집하여(암 9:14 겔 6:36) 국토 재건에 눈부신 활동을 하여 31년 후인 1948년 5월 5일에 유대가 위임통치에서 배탈(配脫)되어 이스라엘 국가 독립이 되었다. 제 2차대전이 끝난 소식이 있던 후 3년에 국기를 날리었다(사 5:26, 11:12, 18:12). 이 국기는 백지에 양편은 청색이요 그 중에 다윗을 상징하는 일성을 두었다. 초대 대통령 와이즈만 박사 영도 아래 독립 선언식을 하고 세계에 선포 하였다. 그 후에 유엔(UN)에 가입한 당당한 세계의 일원국가 되었다. 2천년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기적적으로 부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토가 완전 통일이 못되었다. 불원한 장애에 완전통일 독립이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잎이 피고 가지가 자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니라.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3)하였으니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

#### 제 4 절 주의 재림의 목적 (다시 나타나심)

우리 성도의 구원을 성취 시키는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려고 재림하시는 것이다(마 25:31 약 5:9, 딤후 4:1, 행 17:31, 롬 14:10, 고후 5:10, 벰전 4:6).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구별없이 되나 악인의 의인의 보응을 받고 의인이 악인의 보응을 받고 있는 수가 있다. 이것은 은폐가 심판보다 앞선 까닭이다(전 8:11). 그러나 곧 죄인 급히 나오라는 소리에 애곡하리라. 또는 정의를 세우시려고 오신다(살후 1:8). 세상은 악령과 타락과 인간들이 합작하여 주장하는고로 정의를 찾아 볼 수 없다(롬 3:11, 약 5:6). 그런고로 마귀를 떨하시려고(요일 3:8, 히 2:14, 창 3:15, 묵 19:20, 20:3, 10, 12:12) 오실 것이다. 이것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다. 또는 신랑되신 주님이 신부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접하시려고 (마 25 : 6, 록 19 : 8, 요 14 : 3) 그 신부가 벌써 예비하였으나 화려한 세마포 옷이다. 그 옷은 그리스도로 옷입은 구원이다 (감 3 : 17, 록 22 : 17, 20)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세례 (뱃티조) 를 성경 말씀대로 받고 물과 성신으로 증생의 은혜를 통하여 정조있는 신앙자들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영접할 것이다. 미련한 처녀 곧 믿기는 믿으면서도 성서대로 참사하고 다시 살아나는 침수 세례를 받아 십자가에 연합하여 죄 사하는 물과 성령으로 증생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범황 스티븐 제 2세가 자의로 변경한 약식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하여 성신 기름이 없는 등한 준비한 교회 출입자들이다.

신부의 자격은 믿고 세례 받아(막 16 : 16) 사죄 증생한 자로서 신앙의 정조를 가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고 요 3 : 5, 골 2 : 12 에 기록 되었다.

혼연(婚宴)에는 그리스도의 예복을(마 22 : 11, 12) 입을 자라야 친히 영접한다.

#### 제 5 절 주의 나타나시는 장소

먼저는 공중에 임하시어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 (빌 3 : 21) 로서 공중에 휴거시키어 영적 혼연(婚筵) 을 설치하실 것이요 (살전 4 : 17, 록 12 : 5, 마 24 : 40, 눅 17 : 34, 35, 마 25 : 1, 13) 그다음에는 지상에 임하시되 유대 나라에 오신다「여자 같은 시온아 크게 기뻐하고 여자같은 예루살렘아 환호하라. 불지어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매 저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색 9 : 9) 하였고 또는 「그 날에 그 말이 동편으로 예루살렘 전에 있는 감람산

에 오실 것이다」(행 1 : 11, 12) 또는 시온성에서 환영할 것이다「여자같은 시온아 너는 노래 할 것이요 이스라엘아 너는 환호할 것이요 여자같은 예루살렘아 너는 전심으로 희락할 지어다」(습 3 : 14) 이 때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이러한 환영가가 있을 것이다.

#### 제 6 절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심

이 때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겠으나」(마 16 : 27) 하였고 「이 예수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게 하셨으니 하늘로 오르게 하심을 본대로 올리라」(행 1 : 11) 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아들이 하늘로 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였으니 곧 예수라」(살전 1 : 10) 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사 장사한지 3일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40일간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 제 7 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타나심(록 17 : 14, 딤후 6 : 15)

주님은 심판의 주로만이 아니요 신랑으로만도 아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 세계 국가들이 인민을 평화롭게 행복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평화의 대왕이신 주님이 유대 나라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세계를 철장으로 옹기그릇을 파괴하듯 하여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칼을 들어 저 나라를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때가 오리니(사 2 : 4) 하였으니 평화의 통치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을 지상에 설치 하실 것이요 영계와 종교계에 독일(獨一)만 되

시고 능하신 자이시니 만주의 주이시다.

## 제12장 대환란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시어 혼연 곧 신랑과 신부의 친영(親迎)시에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추방을 당하여 지상 곧 세상에 와서 발악적인 환란을 야기하여 「그 때에 고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이 때까지 없는 고난이라」(단 12:1) 또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을지니 이런 것이 세상 시작함으로 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21)하신 것은 전무 후무의 대 환란인 것이다. 밤이 오는 혼란한 시기다(사 21:12, 슬 1:15). 이 때는 참여 하지 못한 이방인 신자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모든 믿지 않는 자가 시험을 당하는 때인 것이다(묵 3:10, 섹 13:9). 이방인의 악의 보응이다. 진리를 순종치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하심과 분내심과 환란과 곤고하심으로 보응 하실 터인데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리니」(롬 2:8~9) 또한 이 모든 날은 벌주시는 날들이니 기록한 것이 그 날에 응하게 하심이다(눅 21:22). 인생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보응이 속히 오지 않는고로 인생들의 심리가 행악하기에 대답하여 지는고로(전 8:11)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 벌을 받는 동시에 의인들은 상을 받는 시기가 되리라.

### 제1절 공중에서 되어지는 일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기 위하여 천사장 미가엘이 자기의 사자를 동원하여 마귀와 교전하여 마귀가 이기지 못하여 지상으로 내려 쫓아 공중의 악령을 소탕 하시고(묵 12:7~9) 주님이 임하시는 동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 있는 자도 저피와 함께 구름 속에 인도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라(살전 4:11~17)하였으니 주의 영체와 성도의 영체들이 공중에서는 혼인 잔치를 벌릴 것이요, 지상에는 마귀의 세계라 대 환란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 제2절 지상에서 되어지는 광경

민족과 민족들이 주의와 사상전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전쟁이 되고 흉년 곧 기근이 세계적으로 호소하며 지진이 세계적으로 크게 나서 많은 사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수난의 시작이다(마 24:7~8). 그러므로 전란이 끄치지 않는다 「또 다른 말이 나오나니 적마를 탄자에게 권세를 주어 땅의 화평을 빼앗아 모든 사람을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주더라」(묵 6:4) 또는 온 천하 모든 왕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모아 싸우게 하더라(묵 16:14). 전쟁은 악령의 역사이다. 적마를 탄자는 곧 마귀 사탄이다.

적마와 적용은 마귀의 암호인 동시에 적색주의 사상 곧 무신론자의 정신이다. 무신이면 무자비이니 폭력과 살인이니 최종에는 유브라더 강 연안인 히브리 음으로 된 아마겟돈 지방에서(묵 16:12~16) 「세 귀신이 개구리(蛙)와 같이 개구리(蛙)는 수륙 양면의 행동의 동물이니 반도(半島) 삼개국(三國) 용(적용) 곧 적정(赤政)의 입과 집승(육지 동물이니 대륙국)의 입과 거짓 선지자(무신사상)의 입으로 나오나니 이는 마귀의 신령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여러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묵 16:13~14) 이렇게 대 환란의 종막이 되는 시기까지 자기의 옷을 지키어 벗고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리스도를 입은 자들).

### 제3절 대 환란의 기간

여러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7년간이라고 한다. 「저가 장차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일주일간 견고한 언약을 정하였고」(단 9:27). 이 예언과 또는 「1일로 일년을 당하게 하였노라」(셀 4:67) 이 예언을 종합하여 7년이란 숫자를 생각하고 해석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인정하는 동시에 7년에 대하여서도 전 3년반과 후 3년반 2기로 되었는데 전 후 양기간 연수는 계산이 없는 것이다.

3년반은 무엇으로 해석 하는가? 「곧 42개월간을 편답 하리라」(묵 11:2)한 말씀과 한때 두때 반 때 라는 것으로 또 3년반으로 계산 하는 것인데 제 1차 화인 제일차대전시기이며 또는 제 2차 화인 제 2차 대전시기도 3년반씩이었다. 제 3차 화인 제 3차 대전은 반의 시기란 말에 해당된다. 이는 아무 것도 다르지 않다. 공중 소탕전(묵 12:7~9)이 있음과 같이 전 후기 3년반인 7년 혼연(婚宴)과 대 환란 말기에도 지상 재림 초기에 마귀 사탄 소탕전으로 용을 결박하여 무저경에 투입 봉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묵 20:1~3상).

### 제 13 장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의 시대에 시작하였는데(요일 2:18) 주 재림시기는 본격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때에 아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불지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대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대 징조와 이상한 일을 보이며 택하신 자에게도 미혹할 수만 있다면 하리라」(마 24:23~24) 하였다.

또는 적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나간자나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니(요일 2:19)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신

자라고 하는 자에게서 유대인들 중에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리라」(살후 2:4하)하였으니 성전에 앉은 자는 유대인인 것이니 유대인 중에서 나올 것이 분명하다.

### 제 1 절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악마의 계획은 정치적과 종교적과 주의사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 하려는 욕심으로 별수단과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 예고한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반 기독교이니 전 인류를 자기 자식을 삼으려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요 8:44) 짐승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훼방하되」(묵 13:6) 「저희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나 본래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니」(요일 2:19) 하였으니 반역자다.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귀를 쫓고 제반 능사를 행하는 자니(마 7:22) 이단을 가만히 신자들에게 주입하여 주를 반신하는 것이다(벧후 2:1)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이다. 과학적인 술법으로도 이적을 행한다(살후 2:9. 묵 13:14).

### 제 2 절 정치적 주의 사상

악마는 에덴 동산에 아담의 가정에 침투하여 평화의 낙원을 파괴함과 동시에 개인의 심리적과 가정의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함에 따라서 국가 정치적으로 또는 주의 사상적으로 전 인류를 자기의 자식을 삼아 하나님의 위를 약탈하려는 욕망인 것이다. 그러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묵 13:4,5) 또는 저가 권세를 받

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묵 13:7)「또 여러 족속과 백성과 지방과 나라를 다스리게 하니」(묵 13:7)이와 같이 정치가에게는 정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와 침략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시기에 매우 심한 것은 희유하다.

무신론주의와 유물적 사상이 정치와 경제적 투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종교 신앙자를 학살 또는 납치 등등의 비상한 특수적인 사상이 세계적으로 치열할 것이다.

### 제 3 절 적 그리스도의 최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 초기에는「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든 위선지자들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든 자를 이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자라」(묵 19:20)「또 자립하여 만왕의 왕을 대적 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깨어 지리라」(단 8:25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이 그 손에 있는지라 이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투입하나 그 위에 인을 봉쇄하여」(묵 20:1~3)하였으니 이러한 말씀을 응하여 최후의 결박 투옥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천년간 수옥 만기에는 잠깐 추방하며 전 세계 인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다시 전쟁을 야기하며 성도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들을 태워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니라(묵 20:7~10).

## 제 14 장 천년 왕국의 시작

신랑 되신 주 예수와 신부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중에서 혼

인에식을 마치고 만왕의 왕으로 지상에 강림하실 동시에 지상에는 대 환란이 끝날 것이다. 용 곧 사탄을 생포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고 잃었던 낙원을 회복하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설의 시작이 될 때에 우주 삼라만상이 저주 아래서 해탈되어 참 평화의 신 세계를 성취하는 시기이다.

「광야에 매마른 땅이 기뻐하고 황무한 땅이 즐거워 하여 백합화같이 될 것이요 무성하게 되어 즐거워 하며 기뻐 노래를 할 것이요 사람들이여 주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사 35:1,2) 또는「여호와와 회년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사 61:2)하신 회년이 곧 천년 왕국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세계 통일 정부의 왕국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묵 19:16).

### 제 1 절 순교자의 부활과 첫째 부활에 대하여

주님이 지상 재림 시기에는 지상의 마귀 소탕전이 있어 사탄은 포박하여 가둔 후에는 대 환란시에 순교자를 부활시키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제 1차 부활이 끝나는 것이다(묵 20:4,5).

제 1차 부활에 대하여 3시기로 구분하게 되었으니 이리하다.

첫째는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에「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니라」(마 27:51~53) 하였으니 이는 자던 성인들의 부활이요,

둘째는 주님 공중 재림시에「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또한 변화하리니」(고전 15:

52) 하였고 또는 「대개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하리니」(살전 4 : 16~17) 이상 두 말씀에 죽은 자 부활과 산자의 변화인 것이며,

셋째는 「또 내가 보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 하니 (묵20 : 4) 하였으니 최후에 순교자의 부활까지가 제 1차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이니라.

### 제 2 절 성도들에게 보상함

자고로 주의 진리의 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예정한 것이었다. 「시험을 받고 잠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연단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니」(약 1 : 12)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묵2 : 10).

또는 세상 영광을 버리고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곧 양들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선한 목자들 곧 성직의 교역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하면 목자들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 : 4)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위하여 곧 썩을 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일하는 대신에 불후의 성역을 하는 자에게는 불후의 면류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 : 25) 하였고 또는 의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주님

의 재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대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의로우신 심판장이 되사 그 날에 곧 재림시에 예비하였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의 증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두었으니 곧 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사 그 날에 내게 주시고 내게만 주실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리라」(딤후 4 : 8) 그런즉 이상 4종의 시상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곧 신부의 자격에도 다 받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 중에서 주님을 위하여 역사한 성적을 따라서 주는 것이다.

### 제 3 절 제 2차 부활과 심판

창세한 이후로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범죄한 일반 죄인들은 음부에서 장차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다가(묵 20 : 5) 천년왕국 후에 마귀를 무저갱에서 잠시 석방되어(묵 20 : 7)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야기할 때에 세계 인민들이 해초와 같이 그 수가 지면에 널리 편포하여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무조건 축복으로 인하여 무조건 순종하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성도의 진을 포위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소멸한(묵 20 : 8, 9) 그들까지 제 2차 부활에 참여하여(묵 20 : 12, 13) 각 그 행한대로 심판을 받고 제 2차 사망의 불구덩이에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 다시는 유혹하지 못하는 유황 불구덩이에 던지우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같이 세세 영원토록 주야 고통을 받는 벌이 있는 것이다(묵 20 : 10).

### 제 15 장 신천 신지와 새 예루살렘에서

#### 왕 노릇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묵 21 : 1) 하였으니 이것은 대 심판이 끝나며 불가불 옛 천지를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악령으로 인하여 인간이 범죄한 까닭에 이 천지는 저주를 받고 있다가 주님 재림 천년왕국이 시작되며 회복기였는데 마귀를 잠시 석방하자 다시 곡과 마곡을 유혹하여 대 혼란을 야기하였으므로 다시 불행하게 되어 반드시 옛 것이 지나가면 새로운 것이 오는 격으로 주님의 손(히 1 : 3)이 이동되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지은 물건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 : 10). 이렇게 정리하는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보일 것이며 또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부터 하늘로 쫓아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한 것 같더라」(묵 21 : 2) 이것은 다 구원이 성취된 성도들이 생명 과실을 먹고 태양이 아닌 다른 광명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신 천지와 새 예루살렘에서 저희들이 세세에 왕노릇 할 것이다(묵 22 : 1~5).

이것은 무궁세계 곧 영생 세계이다.

### 제 1 절 영생 복락

신령한 몸인 동시에 사망이 없고 노유가 없고 질병과 애통이 없는 영생의 세계를 소유한 성도의 행복이다. 「거기 두어 달만에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고」(사 65:20)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세세토록 있으리로다」(요일 2 : 17)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우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일이 다 지나감이라」(묵 21 : 4) 다시 살아난 자들의 신 세계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 제 2 절 천국의 시작

천국의 시작은 천국복음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다. 유대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 : 2) 하였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 : 15),

이때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여 신앙하고 회개하여 세례의 성례를 행하며 사죄와 성령으로 중생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니라(요 3 : 5) 이것은 심중에 죄는 없고 성령이 래왕하심으로 천국이 그 심중에 임하여(눅 17 : 22) 성결한 생활의 심중천국이 시작되며 그 심령들이 모이는 교회, 천국(마 13 : 33)이 성립되며 그리스도의 신이 주장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천국이다.

### 제 3 절 천국의 발전과 완성

천국의 발전은 거룩한 교회가 신부의 자격으로 휴거되어 공중 혼인을 통과 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같이 인상 재림 하사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묵 20 : 6) 하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묵 21 : 1~7) (사 55 : 17) 에 영생 세계를 이루고 무궁복락을 누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의가 거 하더라」(벧후 3 : 13).

이것 역시 천국의 완성이다.

### 제 4 절 천국의 조직

성부와 성자와 성신 3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묵 20 : 7).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계시니」(묵 22 : 3) 성신과 신랑의 말씀이 오라 하시느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

이요」(묵 22:17) 천년왕국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권(시 2:4~9)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고 통치 하다가 종말의 시기는 천국을 하나님께 반환(고전 15:24, 28)하시고 신천 신지의 통치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재(고전 15:28)로 통치 하실 것이다.

1.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그 왕노릇 하던 성도들은 또 신천신지 시대에서도 왕노릇 할 것이니라(묵 22:5).
2. 이십사 장노와 네 영들이 열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묵 19:4).
3. 천사장(문관) 가브리엘은 회소식(눅 1:19)을 전하게 하시고(살전 4:16).
4. 천사장(부관) 미카엘은 대적 악령을 격퇴(유9, 묵 12:7) 하며 또는 마귀 사탄을 결박투옥(묵 20:2)하는 이시다.
5. 무수한 천사와 무수한 천군이 12영문에 배치(마 26:53, 묵 21:12)되고 있다.

## 제 16 장 지옥론

### 제 1 절 옥의 실재

성서를 상고하면 5, 6회나 옥에 대한 기사가 있으며 또는 4, 5회나 옥에 대한 비유로 말씀한 곳이 있다.

예를 들면「나는 너희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히브리인의 옥설)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하셨음은 이 지옥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서남쪽에 흰흙 골짜기에 사형죄수들이 죽은 후에 유황불이 불붙는 가운데 투입하여 화장하는 곳을 비교함 것으로 생

각된다(마 5:29, 10:28, 막 9:44, 눅 16:23~24).

그런즉 비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재를 전제로 말한 것이니 부인이나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 제 2 절 옥의 종류와 사용

옥의 종류는 3종별이 있어서 사용도 각각 다른 것이니 분명할 것이다. 인간 세계 국가도 유치장과 미결수 옥과 기결수 옥이 있어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본다.

### 제 3 절 음부

음부의 시작에 대하여 성서 중에 명백한 시기를 알기에 곤란한 듯하나 알 수 있게 된 사실이 있다. 이것은 무타(無他)라 음부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악인의 거처이니(시 9:17) 인간이 범죄하던 시기에 음부가 시작 되었을 것을 믿는 바이다.

1. 음부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요 히브리어로는 시울인데 무덤이란 뜻이다. 헬라어는 헤이레스 라고 한다.

이곳은 인간의 죽은 후의 있을 곳인데 사람의 몸과 혼과 신 곧 영의 유치옥이다(벧전 3:19).

7.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실 때 「이에 성소의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신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성성(聖城)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마 27:51~53)하였으니 구약시대로 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구원한 성도들은 성성(聖城) 곧 낙원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를 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직접 구원하시고 낙원으로 인도 하신 것이다(눅 23:43). 그러므로 예수 부활 이후에 구원한 성도는 죽는 순간에 신 곧 영이 낙원으로 가게 되고 악인들은 제 2차 부활시

까지 몸과 혼과 신이 음부에 존속하여 있고 성도들은 몸과 혼만 제 1차 부활전 까지 음부에 있게 되어 있다.

#### 제 4 절 무저갱

무저갱의 시작도 성서 중에 나타나지 않고 실재만 기록 하였으니 아마 천사가 범죄하고 마귀로 변할시에 결속 유지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유6).

1. 무저갱이란 말은 한국어요 히브리어로는 압피스라고 하고 천년시대 초기로 부터 그 만기 까지 마귀들을 금고 해 두는 것이다(묵20:3).

7. 천년시대 전까지는 마귀들은 공중과 지상에 천국으로부터 쫓겨나서 횡행하고 있게 되므로 예수님도 무저갱에 가두지 않으신 것이다(눅8:31).

#### 제 5 절 지옥 (불구덩이)

이 지옥은 흑암체인 동시에 천년시대 만기 후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석방되어 곡과 마곡을 유혹시켜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의 진을 포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곡과 마곡들을 태워 던지고 유혹하던 마귀를 유황불구덩이에 던질 곳인데 그 짐승(용 곧 사탄과 거짓 선지자(곧 악인들)도 그 속에 들어가 세세토록 주야로 고통을 받을 곳이다(묵20:7~10).

1. 지옥 불구덩이란 말은 한국어요 히브리어로는 「도벳」이라고 하고 헬타어로는 「게헷나」라고 하는데 마귀는 물론이고 생명책에 등록 되지 못한 자와 사랑과 음부도 이곳에 투입하여 영벌을 받는 곳이다(묵20:14).

2. 제 2차 부활한 악인들이 몸과 혼과 신 곧 영이 공입(共入)할 제 2차 사망인 영벌처이다(유 33:18~22, 마10:28).

#### 著者の 略歴

1. 檀國大學校 政治科卒業
2. 서울 聖書神學校 本科卒業
3. 東洋醫藥大學卒業
4.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5. 성 요한의원 원장
6. 大韓基督敎神學校 敎授
7. 初代 그리스도의 敎會 牧師



####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요강

1971년 5월 1일 인쇄

1971년 5월 5일 발행

박권순

저자 성수경

<가격 500 원> 원 와 사

현주소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89의 1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화(42) 0585 (52) 2573 (93) 6097

## 재미 정 히 건 전도자

### 고국서 「목회자 부인 대학」 운영

미국 거주 한국인 전도자가 25년간 국내 교회 목회자 부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담당 정히건전도자(75)가 화제의 인물로 지난 71년부터 목회자 부인대학

목적으로 목회자 부인대학을 운영하게 됐다는 정전도자는 목회자 부인대학은 세미나나 심포지엄 형식이 아니라 목회자 부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전도자는 일찍이 서대문 그



목회자 부인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정히건전도자(가운데).

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정전도자는 11일 서울 화

곡동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거행된 목회자 부인대학 수료식에서 『현대 목회는 교역자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들도 목회자 수준까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목회자 부인을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71년8월 목회자들은 연장교육 기회가 많지만 부인들은 교육 기회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철순나이 잇고 25년째 봉사

농촌 교역자 자녀에 장학금도

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성경통신교

육원 부원장을 맡는등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도미해 산타아나교회를 개척해 시무해 왔다.

특히 한국의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인 「송아지 장학금」을 설립하여 해마다 6월이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李喜錫)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동114의1  
초대그리스도의교회  
목사 성수경